

기본연구과제 2002-10

충청남도 백제 문화재의 체계적 보존관리 및 활용방안

강 종 원

발 간 사

문화의 세기인 21세기에는 문화가 국가간, 지역간 경쟁에서 중요한 요소로 등장하고 있다. 문화 경쟁력의 관건은 지역의 문화적 정체성을 얼마나 확보할 수 있는가 하는 점이다. 이러한 측면에서 충남은 삼국시대 백제의 도읍이 위치하였던 공주, 부여가 있어 역사문화적 정체성 확보에 좋은 여건을 갖추고 있다.

충남의 백제문화는 공주로 천도한 475년 이후 본격적으로 그 모습을 드러내기 시작하여 538년 부여로 천도하면서 그 꽃을 피웠다고 할 수 있다. 그 결과 충남은 백제시대의 왕도가 2곳에 위치하고, 이와 관련된 많은 역사문화자원을 갖게 되었다. 백제문화의 우수성은 일찍부터 논의되어 왔지만 그 실체가 불확실하였다. 그런데 1971년 무령왕릉의 발굴로 인해 백제문화가 당시 삼국 중에서 가장 우수했음을 확인시켜 주었으며, 1993년 부여 능산리사지에서 출토된 백제금동대향로를 통해 다시 한번 입증되었다.

현재 정부에서는 이러한 백제문화의 우수성을 인식하고 백제문화권종합개발계획을 수립하여 부여에 백제역사재현단지를 조성 중에 있으며, 이와 병행하여 백제시대 문화유적의 정비·복원작업을 진행 중에 있다. 다만 이러한 계획이 백제시대 문화유산에 대한 체계적인 조사 및 연구가 미흡한 상태에서 진행되고 있어 다소 아쉬움이 있으나 이러한 미비점은 지속적으로 보완될 것으로 믿는다.

백제사의 경우 문헌자료가 부족하기 때문에 문화유산이 지닌 학술적 가치는 매우 크다. 따라서 이들 문화재에 대한 체계적인 조사·연구가 필요하며, 이를 온전하게 후손들에게 물려주기 위해서는 과학적이고 체계적인 관리가 이루어져야 한다. 뿐만 아니라 단순한 조사·관리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백제역사·문화복원을 위한 연구, 문화관광자원으로서의 활용을 위한 종합적인 관리방안 등을 수립할 필요가 있다.

그 동안 백제문화의 중요성이 인식되어 많은 연구가 이루어져 온 것이 사실이다. 그렇지만 이들 대부분의 연구는 학술적인 부분에 치중되어 온 감이 있으며, 충남에 소재하고 있는 백제시대 문화재에 한정하여 그 특성과 관리실태 파악, 활

용방안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연구는 아직 부족한 실정이다. 다만 백제 문화재의 조사현황 및 역사성 등에 대한 검토가 부분적으로 진행되고 있으나 대부분 현황파악에 치중되어 있다. 그리고 백제 문화재에 대한 정비계획의 경우에도 대개 부분적인 계획에 의해 정비보수가 이루어지고 있다. 그렇지만 백제시대에 형성된 문화재는 백제의 역사와 문화를 연구하고 밝힐 수 있는 생생한 산 자료들이라는 점에서 백제 문화재에 대한 체계적인 현황조사와 관리계획 수립이 필요하며, 나아가 이를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한 기반이 마련되어야 한다.

본 연구는 충청남도에 산재하고 있는 백제시대 문화재에 대한 관리현황을 분석하고, 이를 토대로 문제점을 도출하여 적절하고 체계적인 관리방안을 모색하였을 뿐만 아니라 이들 문화재가 지닌 역사문화적 특성을 파악하고, 또한 충남지역 백제문화재의 분포현황과 지역적 특성을 분석하여 효율적인 활용방안을 모색함으로써 백제시대의 역사·문화상을 밝히고, 문화관광자원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한 지역사회가 보유한 문화적 자산은 지역민들의 자긍심 고취와 그에 따른 사회통합, 지역발전의 동기유발 등 다양한 기능을 가진다. 특히 특정 문화자산이 타 지역에는 없어 그 지위가 독점적일 때 그 효용성은 더욱 크다. 충남의 경우 백제시대 문화유산은 그러한 의미에서 단연 우위를 점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한 효율적 보존관리와 활용은 지역 정체성을 확립하는데 있어 一助할 수 있을 것이다.

끝으로 연구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협조를 아끼지 않은 충청남도 관계자를 비롯하여 본 연구를 수행한 문화재연구부 강종원 연구위원의 노고에 감사의 뜻을 전한다.

2002년 12월

충남발전연구원장(직)

김 대 길

목 차

제1장 서론	1
1. 연구의 배경	1
2. 연구의 목적	1
3. 연구의 범위와 방법	3
제2장 백제 문화재의 현황과 특성	5
1. 충남지역의 백제문화 형성배경	5
2. 백제 문화재 현황	12
3. 백제 문화재의 특성분석	17
제3장 백제 문화재의 관리실태 분석	38
1. 백제 문화재 관리실태	38
2. 관리실태 분석	47
3. 체계적 보존관리방안	56
제4장 백제 문화재의 활용방안	64
1. 백제 역사·문화 복원을 위한 자료	64
2. 문화관광자원으로의 활용	71
제5장 결론 및 정책제언	84
1. 결론	84
2. 정책제언	85
참고문헌	89
부록 1. 충남의 시·군별 백제 문화재 현황	91
부록 2. 충남 백제 문화재 정비현황	107

제1장 서론

1. 연구의 배경

문화의 세기인 21세기에는 문화가 국가간, 지역간 경쟁에서 중요한 요소로 등장하고 있는데, 이는 지역의 문화적 정체성을 얼마나 확보할 수 있는가가 관건이 될 것이다. 이러한 측면에서 충남은 삼국시대 백제국의 도읍이 위치하였던 공주, 부여가 있어 역사문화적 정체성 확보에 좋은 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

백제는 기원전 18년부터 기원후 660년까지 존속한 국가이다. 백제는 고구려의 남진에 밀려 475년 공주로 천도하였으며, 이후 성왕의 중흥정책 시행과정에서 다시 도읍을 부여로 옮기게 되었다. 그 결과 충남은 백제의 왕도가 2곳에 위치하게 되었으며, 이와 관련된 많은 역사문화자원을 갖게 되었다. 특히 백제문화의 우수성은 일찍부터 논의되어 왔지만 그 실체가 불확실하였다. 그런데 1971년 무령왕릉이 발굴되면서 백제문화의 실체가 확인되었으며, 1993년 부여 능산리사지에서 출토된 백제금동대향로를 통해 다시 한번 입증되었다.

정부에서는 이러한 백제문화의 우수성을 인식하고 백제문화권종합개발계획을 수립하여 현재 부여에 백제역사재현단지를 조성 중에 있으며, 이와 병행하여 백제시대 문화유적의 정비·복원작업을 진행 중에 있다. 그러나 이러한 계획이 백제시대 문화유산에 대한 체계적인 조사 및 연구가 부족한 상태에서 진행되고 있어 지속적인 연구와 효율적인 정비·복원계획의 수립을 위한 관심과 노력이 필요하다. 특히 문헌자료가 부족한 백제사의 경우 문화유산이 지닌 학술적 가치는 매우 크므로 이들 문화재에 대한 체계적인 조사 및 관리가 이루어져야 한다. 또한 단순한 조사·관리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백제역사·문화 복원을 위한 연구, 문화관광자원으로서의 활용을 위한 종합적인 관리방안 등을 수립할 필요가 있다.

2. 연구의 목적

문화재 관리란 문화재를 단순히 보존한다는 차원에서 벗어나 이를 적절히 활용하는 방안도 함께 고려되고 있는데, 이는 문화에 대한 일반인들의 관심 증대에도 관련이 있다. 미국에서는 '문화자원관리'가 있어 고고학의 한 분야로 연구되고 있다(강봉원, 1997). 문화자원이란 주어진 문화를 대표하는 문화체계의 물질적

혹은 비물질적 면을 말한다. 즉, 사람들, 문화, 그리고 사람들의 활동 등과 관련된 유적, 유물, 건축물 및 역사적인 자료 등을 포함하며, 이들을 해석하는데 필요한 기본적인 문헌과 구전도 포함된다. 따라서 문화재의 관리란 문화재의 조사를 비롯해 문화재의 보호와 보존뿐만 아니라 문화유산의 활용방안 등에 대한 총체적인 관점에서 접근되고 있는 추세이다.

백제문화의 중요성은 일찍부터 인식되어 이에 대한 많은 연구가 이루어져 왔다. 그러나 이들 대부분의 연구는 특정 유적이나 주제에 대한 학술적 연구가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으며, 충남에 소재하고 있는 백제시대 문화재에 한정하여 그 특성과 관리실태 파악, 활용방안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연구는 거의 없는 실정이다. 다만 백제 문화재의 조사현황 및 역사성 등에 대한 검토가 부분적으로 진행되고 있으나 대부분 현황파악에 치중되어 있다. 그리고 백제 문화재에 대한 정비계획의 경우에도 대개 부분적인 계획에 의해 정비보수가 이루어지고 있는데, 이는 체계적인 실태분석이나 활용이라는 측면에서 접근한 것이 아니라 단지 문화재에 대한 보수 내지는 정비·복원차원에서 이루어지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또한 문화재청을 중심으로 문화재의 효율적인 보존관리를 위한 정책들이 수립되고 있으나 이는 원론적인 지침수준에 그치고 있으며, 대부분 문화재의 보호·보존을 위한 정책에 한정되어 있다.

그러나 21세기 문화의 세기를 맞아 문화재의 중요성이 부각되면서 보존과 활용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며, 특히 1997년 문화유산의 해를 계기로 문화유산의 활용방안 등에 대한 논의가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그렇지만 아직 충남과 관련해서는 구체적인 성과가 나타나고 있지 않은 실정이다.

백제시대에 형성된 문화재는 백제의 역사와 문화를 연구하고 밝힐 수 있는 생생한 산 자료들이라는 점에서 가장 잘 보존되고 관리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백제문화재에 대한 체계적인 현황조사와 관리계획 수립이 필요하며, 나아가 이를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한 기반이 마련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 본 연구에서는 먼저, 충청남도에 산재하고 있는 백제시대 문화재에 대한 관리현황을 분석하고, 이를 토대로 문제점을 도출하여 적절하고 체계적인 관리방안을 모색해 보고자 한다. 다음으로 이들 문화재가 지닌 역사문화적 특성을 파악하고, 또한 충남지역 백제문화재의 분포현황과 지역적 특성을 분석하여 효율적인 활용방안을 모색함으로써 백제시대의 역사·문화상을 밝히고, 문화관광자원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고자 한다.

한 지역사회가 보유한 문화적 자산은 지역민들의 자긍심 고취와 그에 따른 사

회통합, 지역발전의 동기유발 등 다양한 기능을 가진다. 특히 특정 문화자산이 타 지역에는 없어 그 지위가 독점적일 때 그 효용성은 더욱 크다. 충남의 경우 백제시대 문화유산은 그러한 의미에서 단연 우위를 점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한 효율적 보존관리와 활용은 지역 정체성을 확립하는데 一助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백제 문화재의 체계적인 보존관리 및 활용을 통해 궁극적으로 백제의 역사와 문화를 올바르게 이해하고 나아가 새로운 문화창조의 토대를 마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3. 연구의 범위와 방법

1) 연구의 범위

문화재에는 유형의 문화유산뿐만 아니라 무형의 문화유산, 자연자원, 천연기념물 등이 모두 포함되지만, 본 연구에서는 유형의 문화유산(동산, 부동산)을 중심으로 하며, 매장문화재의 경우에는 조사되어 보존되고 있는 것을 대상으로 한다. 다만 무형의 문화유산이라도 유형의 문화유산과 직·간접적으로 관련된 것은 함께 다루도록 한다.

공간적으로는 충남지역에 분포하고 있으며, 시간적으로는 백제시대에 형성된 문화재에 한정한다. 다만 백제시대에 형성되어 후대까지 이어지는 경우에는 연구의 범위에 포함시키도록 한다.

내용적으로는 백제 문화재의 현황 및 관리실태, 문제점 파악, 체계적 관리를 위한 기초적인 방안을 도출하고, 충남지역 백제 문화재가 지닌 역사·문화적 가치를 분석하여 활용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다만 발굴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은 유적의 경우 발굴결과에 의해서 유적의 관리정책이 수립되어야 하는 현실적인 문제가 있는데, 이러한 경우에는 문화유적이 지닌 특성과 역사성에 초점을 맞추어 분석하도록 하겠다.

2) 연구방법

(1) 문헌 및 연구사례 조사

문헌 및 각종 보고서에 대한 기초조사를 통해 연구현황을 검토하고, 이제까지 진행된 정비·복원 등에 대한 사례조사를 통해 연구방향 설정.

(2) 백제 문화재 조사

문헌 및 각종 보고서, 현지답사 등을 통해 충남지역에 산재하고 있는 백제시대 문화재에 대한 체계적인 정리와 문화재의 현황과 특성을 분석, 아울러 문화재별 유형화(지정별, 종류별, 지역별)를 시도.

(3) 관리현황 조사 및 관리방안 수립

정리된 문화재를 국가지정문화재와 도지정 및 일반문화재로 구분, 현재까지의 조사현황, 정비·복원상황 등 관리실태를 파악하여 그 문제점을 도출하고, 이를 토대로 기초적인 관리방안을 수립, 이 과정에서 문화재가 어떠한 방향으로 보존되고, 관리되어야 할 것인가 하는 문제도 함께 검토하고자 함.

(4) 활용방안 도출

충남지역 백제 문화재가 지닌 각각의 특성과 함께 유형별 성격을 분석하여 백제 역사·문화 연구의 자료 및 문화관광자원으로의 활용방안을 모색.

제2장 백제 문화재의 현황과 특성

1. 충남지역의 백제문화 형성배경

문화재의 성격을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그 문화재가 형성된 시대적 배경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 마찬가지로 충남지역의 백제시대 문화재가 지닌 성격을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충남지역에서 전개된 백제시대의 역사와 문화에 대한 검토가 요구된다.

(1) 충남지역의 백제영역화

原三國時代 충남지역에는 馬韓의 여러 小國들이 위치하고 있었던 것으로 파악되고 있는데,¹⁾ 대략 15개 정도의 소국이 위치하고 있었던 것으로 비정되고 있다. 그러나 당시 소국들에 대한 문헌자료가 매우 소략하기 때문에 구체적인 실상에 대해서는 알 수 없다. 다만 당시 마한 소국은 「大國은 萬餘家, 小國은 數千家로 모두 十餘萬戶」였다는 사실²⁾을 통해 대략 만여 가에서 수천가 정도의 규모로 이루어져 있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충남지역이 언제부터 백제의 영역에 편제되었는가는 분명하게 확인하기는 어렵다.

馬韓 54國 가운데 하나였던 伯濟는 부여계통의 여러 이주민 세력이 한강유역의 선주민과 결합하여 馬韓의 여러 小國들을 병합하는 과정에서 百濟라는 고대국가로 성장·발전하였다. 백제의 중심지는 현 서울시 강동구의 몽촌토성과 풍납동토성을 포함하는 지역이었으며, 마한세력권의 북방지역에 해당되었다. 백제의 성장과정은 한강유역을 중심으로 하는 伯濟가 馬韓의 여러 小國들을 복속해 가는 과정이기도 하였다. 따라서 백제의 영역국가로의 이행과정은 馬韓 小國들의 재편과정과 밀접한 관련을 맺고 있다.

백제가 한강유역을 중심으로 주변 정치체들을 포괄하는 聯盟王國으로 성장하는 것은 3세기 고이왕대(234~286)부터였다. 고이왕은 13년(246) 낙랑의 변방지역을 공격하는 등 군현세력과 대립하였을 뿐만 아니라 왕 28년에는 6佐平을 두어 각각의 분장사무를 관장토록 하였으며, 官等과 그에 따른 服色の 제정 등을 비롯

1) 李丙燾, 「三韓의 諸小國 問題」, 『韓國古代史研究』, 1987, 264쪽.

千寬宇, 『古朝鮮史・三韓史研究』, 1987, 408쪽.

2) 『三國志』 魏書 東夷傳 韓條.

하여 律令의 성격의 법령을 반포하였던 것으로 기록되고 있어 그 이전과는 다른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이러한 과정 속에서 충남지역에도 백제의 정치적 영향력이 미치게 되었을 것으로 생각된다.

백제가 전성기를 구가한 것은 近肖古王(346~375)대였다. 백제가 차령산맥을 넘어 금강유역 전역을 차지하게 되자 일부 마한세력은 영산강유역을 근거지로 하여 독립적 정치력을 유지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근초고왕대에 와서 이들 세력은 백제의 정치적 영향력하에 놓이게 되었다. 그 결과 근초고왕 때는 현재의 경기도·충청도·전라도를 포함해 황해도 일부지역까지 포괄하는 광대한 영역을 확보하였을 뿐만 아니라 일부 가야세력에 대해서는 정치적 영향력을 끼칠 수 있게 되었다. 따라서 충남지역은 4세기에 이미 백제의 영역화가 이루어졌을 것으로 파악된다. 그리고 이들 지역 가운데 요충지에는 성을 쌓고 지방관을 파견하였으며, 일부지역에는 재지세력을 중앙의 官制에 편제하여 지방관으로서의 자격을 부여하였던 것으로 생각된다. 충남지역은 남부지역으로 진출하는데 있어서 지리적으로 매우 중시되었을 것이다. 그렇지만 한성시기에 충남지역에 지방관을 파견하였는가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는 없다.

(2) 백제 웅진시기(475~538년)

4세기 후반이 되면서부터 이후 약 100여 년간 백제는 고구려의 남진에 대항하여 치열한 저항을 하지 않으면 안되었다. 이 시기에 고구려에서는 廣開土王(391~412)과 長壽王(412~491)의 치세 기간으로 고구려 역사상 가장 광대한 영토를 확장하였다. 고구려의 위협은 廣開土王때부터 현실화되어 나타났다. 특히 백제는 長壽王이 427년 수도를 평양으로 천도하여 본격적인 남진정책을 취하게 되면서 보다 직접적인 고구려의 위협아래 놓이게 되었다. 결국 백제는 475년 장수왕에 의해 수도인 한성이 함락되는 불행한 상황을 맞게 되었다. 한성이 함락되기 직전 文周는 신라에 원병을 요청하기 위해 파견되었는데, 문주가 신라의 1만 원병을 얻어 한성에 이르렀을 때 이미 개로왕은 전사하고, 한성은 파괴된 후였다. 그 결과 문주가 왕위에 오른 후 그 해 10월에 웅진(공주)로 도읍을 옮겼으며, 그로 인해 충남지역은 백제의 중심이 되었다.

웅진시대에는 지방 통치조직으로 檐魯制를 실시하였다. 담로제의 실시 시기는 한성후기로 소급되지만 웅진시대까지 계속되었던 것으로 보인다. 담로의 성격에 대해서는 『梁書』 백제전을 통해 확인되고 있는데, 「治城을 固麻라고 하며, 邑

을 檐魯라 하는데 중국의 郡縣과 같다. 그 나라에는 22개의 담로가 있으며, 모두 子弟・宗族으로 하여금 分據케 하였다」라는 기록이 실려있다.³⁾ 즉, 담로제는 전국을 22담로로 나누어 왕의 자제・종족으로 하여금 王・侯로 분봉하여 지방의 통치를 담당하게 한 제도였는데, 일부 토착적 기반이 강한 지역에는 재지세력을 담로로 임명하기도 하였을 것이다.

충남의 각 지역도 담로에 편제되어 중앙의 통치체제하에 놓여 있었던 것으로 파악할 수 있는데, 왕도인 공주를 중심으로 그 주변은 직접지배하에 있었을 것으로 파악된다. 담로제는 지방에 대한 직접통제를 강화하기 위한 목적에서 실시되었다. 특히 웅진천도 이후 충남지역은 대중국 통교를 비롯해 고구려와의 군사적 대립 등의 과정에서 중시되었을 것이며, 이로 인해 대부분 중앙의 직접통제하에 편제되어 있었을 것이다. 특히 黑齒常之의 先祖가 예산지역에 담로의 장으로 파견된 사실 등을 통해 왕이 측근인 왕족을 지방에 파견하여 직접지배를 실현하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

동성왕의 뒤를 이어 즉위한 왕은 백제의 국력을 회복시킨 武寧王(501~523)이었다. 무령왕은 동성왕의 이복형으로 이해되고 있으며,⁴⁾ 40세의 나이에 왕위에 올랐다. 무령왕에 대해서는 1971년 7월 공주 송산리고분군에서 우연히 발견된 武寧王陵을 통해 그 존재가 더욱 부각되었다.⁵⁾ 특히 무령왕릉에서 출토된 誌石을 통해 그가 523년 5월 7일 62세의 나이로 세상을 떠났음을 알 수 있는데, 이는 고고학적인 자료와 문헌기록이 부합되는 것이다. 『三國史記』 백제본기 무령왕 21년(521)조에 보면 梁에 보낸 국서에서 「다시 강국이 되었다(更爲強國)」라는 기사가 보이고 있는데, 이러한 상황으로 보아 백제는 무령왕대 다시 고구려와 대적할 수 있는 대등한 힘을 회복하게 되었던 것으로 보인다.

무령왕을 이어 즉위한 聖王(523~554)은 중앙의 행정조직인 22部司를 재정비하였으며, 方郡城으로의 체계적인 지방 통치조직을 정비하는 등 무령왕을 이어 국가체제를 일신하였다. 그렇지만 백제사상 가장 중요한 일 가운데 하나는 성왕 16년 사비로의 천도라고 하겠다. 성왕은 538년 사비로 천도함으로써 63년간에 걸친 웅진시대를 마감하고 사비(부여)에서 새로운 도약을 모색할 수 있게 되었다.

3) 『梁書』 권54 諸夷 百濟條.

4) 李道學, 「漢城末 熊津時代 百濟王系の 檢討」, 『한국사연구』 45, 1984.

5) 문화재관리국, 『武寧王陵 發掘調査報告書』, 1973.

(3) 백제 사비시기(538~660년)

聖王은 538년 사비로 천도하면서 國號를 南扶餘로 개칭하였다. 공주는 지리적으로 강과 산으로 둘러싸여 있어 방어에는 유리한 조건을 하고 있으나 반면에 대외적으로 팽창해 나가는데 있어서는 불리한 입지였다. 따라서 동성왕과 무령왕대를 거치면서 고구려와 대적할 수 있을 정도의 국력을 회복한 백제로서는 보다 넓은 지역으로 수도를 옮길 필요성이 제기되었던 것이다. 사비로의 천도계획은 이미 동성왕대에 비롯되었던 것으로 보인다. 동성왕은 사비지역에 전립을 자주 나갔는데,⁶⁾ 이는 도읍지를 물색하기 위한 목적도 내포되어 있었다고 하겠다. 부여지방은 금강과 산으로 둘러싸여 있어 방어에 적합하였을 뿐만 아니라 보다 넓은 평야가 있어 경제적으로도 풍요롭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으며, 또한 지리적으로 호남지역 및 가야지역으로의 진출과 금강을 통한 서해지역으로의 진출이 용이하다. 성왕은 사비로의 천도를 전후하여 도성제도를 마련하였다. 왕성은 부소산성을 배후산성으로 하고, 부여를 둘러싸는 나성을 축조하여 이중적인 방어체제를 수립하였다. 그리고 도성 내부는 5部로 구획하고, 각 부는 다시 5巷으로 세분하여 정연한 체제를 갖추었다. 사비도성의 내부구조는 1987년부터 충남대학교 박물관에서 실시한 발굴조사를 통해 일부 확인되었다. 그 가운데 도시계획을 알 수 있는 유적으로 도로유구가 주목되는데, 이 도로의 폭은 남북이 8.9m, 동서가 3.9m였다.⁷⁾

성왕은 사비로의 천도를 단행한 이후 통치체제 부분에 대해서도 대대적인 정비를 가하였다. 『周書』 및 『北書』 백제전에 보이는 22부사의 중앙 관부와 5방의 지방 통치조직이 완비된 것도 이 때였다. 5방의 방성 명칭과 비정되고 있는 위치를 보면, 동방은 得安城으로 恩津, 남방은 久知下城으로 求禮, 북방은 熊津城으로 公州, 중방은 古沙城으로 古阜에 비정되고 있으며, 서방은 刀先城으로 瑞山·唐津 또는 大興에 비정하는 견해⁸⁾가 있다. 그런데 『資治通鑑』(唐紀 16) 龍朔元年條의 胡三省의 註에 「任存城 在百濟西部任存山(임존성은 백제의 서부 임존산에 있다)」는 내용과 실제 백제 멸망후 대흥지역이 西方지역에서 부흥운동의 거점으로서 중요한 위치를 점하고 있었던 점이나 흑치상지가 이곳 임존성에서 부흥운동을 일으켰던 사실 등과 관련시켜 볼 때 서방의 治所인 도선성은 대흥지역에 비정할 수 있을 것이다. 이와 같이 사비시대 충남에는 5방 가운데 3개의 방

6) 『三國史記』 권26 동성왕 12년, 23년 10월·11월조.

7) 尹武炳, 『扶餘 官北里 百濟遺蹟 發掘報告(Ⅱ)』, 충남대박물관, 1999.

8) 千寬宇, 앞의 책, 388~389쪽.

이 위치하고 있었던 것으로 추정되는데, 이로 보아 충남이 사비시대 백제의 중심 권역을 이루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성왕은 검익과 같은 승려를 등용하여 불교의 중흥을 꾀함으로써 국가의 정신적 토대를 강화하였는데, 현재 부여지역의 곳곳에 남아있는 사지를 통해 확인된다. 그리고 중국 양나라로부터는 유교·불교 등 선진문물을 수입하는데 적극적였으며, 왜에는 불교를 전해 주었을 뿐만 아니라 五經·醫·易·曆博士 등의 전문가를 파견하여 백제의 우수한 문물을 전수해 주었다.

그러나 성왕은 신라와의 관산성 전투에서 죽음을 맞게 되면서 그의 중흥노력은 수포로 돌아갔다. 성왕의 죽음은 백제에 커다란 충격을 주었는데, 성왕릉이 있는 능산리고분군의 옆에 성왕의 명복을 빌기 위한 願刹이 세워졌다. 이 능산리 사지에서는 1995년 10월 석조사리감이 출토되었으며, 사리감에는 위덕왕의 누이가 발원하여 사찰이 세워졌음을 알 수 있는 명문이 새겨져 있었다.

백제가 국력을 다시 회복한 것은 武王(600~641)대였다. 무왕은 대내적으로는 왕권을 회복하고 대외적으로 신라와의 전쟁에 총력을 기울였다. 이러한 와중에 무왕은 도교와 불교에 깊은 관심을 기울였다. 무왕은 전북 익산에 彌勒寺라는 대규모의 미륵사찰을 창건하였으며, 왕 35년에는 부소산과 마주하고 있는 금강 對岸에 王興寺라고 하는 호국사찰을 지었다. 그리고 그 해 3월에는 궁의 남쪽에 연못을 만들어 20여리에서 물을 끌어들이고, 연못 가운데 인공섬을 만들어 三神山의 하나인 方丈仙山에 비하기도 하였다. 이러한 조치는 왕권의 위상을 강화하려는 의도와 함께 계속되는 전쟁으로부터 마음의 안정을 얻고자 한 데서 기인된 것으로 볼 수 있다.

무왕의 뒤를 이어 義慈王(641~660)이 즉위하였다. 의자왕은 태자 때 海東의 僧子라고 불릴 정도로 부모에 효성스러웠고, 형제간에는 우애가 돈독했었다고 한다. 또한 義慈王의 즉위초기 신라에 대한 전쟁은 매우 성공적이었다. 마침 고구려에서는 642년 연개소문이 정변을 일으켜 정권을 장악하였는데, 의자왕은 그와 연맹하여 신라에 대한 대규모 공격을 감행하였다. 백제군은 신라가 중국과 통하는 관문인 당항성을 압박하는 동시에 낙동강 방면의 대야성을 비롯해 40여 성을 공취하였다. 신라는 이러한 위급한 상황을 모면하기 위해 적대적이었던 고구려에 구원을 요청하였으나 실패하였다. 이에 신라에서는 다시 金春秋를 당에 보내 당의 군사적 원조를 요청하게 되었다. 당시 당은 고구려의 원정에 실패하고 전락을 바래 신라를 도와 백제를 멸한 후에 고구려를 협공하려는 의도를 가지게 되었다. 이로 인해 당은 신라의 요구에 응해 의자왕 20년(660) 蘇定方으로 하여금 13만의

대군을 이끌고 백제를 공격하게 하였다. 이 때 신라는 金庾信이 5만의 군사를 이끌고 소정방의 군대와 사비성 남쪽에서 합류하여 백제도성에 대한 공격을 감행하고자 진격하던 중 연산 황산벌에서 階伯의 5천결사대와 치열한 전투를 전개하였다. 이 전투에서 백제는 초기에 우세하였으나 수적인 열세를 극복하지 못하고 결국 패배하였으며, 계백을 비롯하여 5천결사대 대부분의 병사들이 황산벌에서 전사하고 말았다. 이어 김유신은 소정방이 이끄는 13만의 대군과 연합하여 사비도성에 대한 총공격을 감행하였다. 7월 12일 나·당연합군이 사비도성에 이르자 13일에 의자왕은 태자 孝와 함께 북방 웅진성으로 피하고 나당군은 사비성을 포위하였다. 이 때 백제에서는 의자왕의 次子 泰가 스스로 왕이 되어 성을 고수하였다. 그러나 태자의 子 文思와 왕자 隆이 左右와 함께 성을 나와 항복하자 백성이 모두 그들을 따랐다. 결국 泰도 항복하지 않을 수 없었으며, 이어서 웅진성으로 피신했던 의자왕과 태자도 항복하였다. 이로써 백제의 사비도성은 완전히 함락되었으며, 의자왕과 태자 孝, 왕자 태·용·연 및 대신·장사 88인, 그리고 백성 12,807명은 당의 수도로 보내졌고, 백제지역에는 5都督府가 두어졌다.

그러나 660년 사비도성의 함락이 곧 백제의 멸망으로 이어진 것은 아니었다. 각지에서 부흥운동이 전개된 것이다. 백제의 부흥운동은 사비도성이 함락된 직후부터 시작되어 663년 11월 遲受信이 점유하고 있었던 임존성이 함락될 때까지 치열하게 전개되었으며, 부흥운동의 가장 중요한 거점은 주류성과 임존성이었다.

(4) 백제시대 충남지역의 행정구역

백제시대 충남지역이 언제, 어떠한 과정을 거쳐 백제의 영역화가 이루어졌는가는 구체적으로 알 수 없다. 따라서 각 시·군 지역의 백제 편입과정도 구체적인 검토가 어렵다. 다만 475년 공주로의 천도와 함께 충남지역이 백제 영역의 중심을 이루었다는 점은 분명하다. 다음은 충남 각 지역의 백제시대 행정구역에 대해 검토해 보기로 하겠다.

공주지역은 475년 웅진(공주) 천도로 인해 왕도가 되었으며, 538년 사비(부여)로 천도할 때까지 63년간 도읍으로서 기능하였다. 부여로의 천도 후에는 5방 가운데 북방으로 편제되었으며, 치소로 북방성이 설치되었다. 그리고 신평지역에 伐音支縣이 있었다.

부여군은 부여읍을 중심으로 所夫里郡, 홍산에 大山縣, 임천에 加林郡, 석성에 珍惡山縣이 위치하였다. 특히 부여읍 일대는 소부리 혹은 사비(泗沘)라고 하였으며, 538년(성왕 16)에 熊津에서 부여로 도읍을 옮긴 후 660년까지 123년간 왕도

가 위치하였다.

논산지역은 연산이 黃登也山郡, 노성은 熱也山縣, 은진은 德近郡과 加知奈縣 등으로 편제되어 있었다. 덕근군에는 5방성 가운데 동방성인 득안성이 위치하고 있었던 것으로 비정되고 있어 동방의 중심지였던 것으로 추정된다.

연기군은 一牟山郡에 속했던 豆仍只縣과 대목악군에 仇知縣이 위치하였으며, 북방의 웅진에 속하였다.

청양군은 청양읍 지역에 古良夫里縣, 정산지역에 悅己縣이 있었으며, 각각 임존성과 소부리군에 영속되었던 것으로 추정된다.

예산군은 대흥지역에 任存城이 위치하고 있었으며, 예산읍에 烏山縣, 덕산지역에 馬尸山郡, 今勿縣 등이 있었다. 홍성군에는 결성지역에 結己郡과 沙尸良縣이 위치하고 있었다.

서산시는 基郡을 중심으로 지곡에 知六縣, 해미지역에 餘村縣이 위치하고 있었으며, 태안군은 省大兮縣이 위치하고 있었다. 당진지역은 樞郡을 중심으로 당진의 伐首只縣, 신평의 沙平縣 등이 領縣이었다.

보령지역은 西林郡에 소속된 寺浦縣과 결성군에 소속된 新村縣 등 2개의 현이 있었는데, 사포현은 오늘날의 남포면·주산면·웅천면·미산면·성주면 지역이고, 신촌현은 주포면·주교면·오천면·청소면·청라면·대천시 일대로 추정된다.

서천지역은 1군 2현으로 나뉘어져 있었는데, 舌林郡과 馬山縣, 卑衆縣이다. 설림군은 서천읍·장항읍·마서면·시초면·문산면 지역, 마산현은 한산면·화양면·기산면·마산면, 비중현은 비인면·서면·종천면·판교면 지역으로 추정된다.

천안지역은 직산이 백제 初都地로 알려질 만큼 일찍부터 영역화가 이루어진 지역 가운데 하나이다. 그렇지만 초기의 지방조직은 알 수 없으며, 현재 확인되는 것은 목천일대에 大木岳郡, 풍세면, 광덕면 지역에 甘賣縣이 설치되어 있었다는 것뿐이다.

아산지역은 1군 2현으로 나뉘어져 있었는데, 湯井郡과 領縣인 牙述縣, 屈直縣이 있었다. 탕정군은 현 아산시 중심지를 비롯한 탕정면, 배방면, 송악면에 비정되고 있는데, 탕정성은 온조왕 36년에 축조된 것으로 『삼국사기』백제본기에 기록되어 있어 매우 이른 시기에 백제의 직접 통제 하에 놓여있었던 것으로 추정된다. 그리고 아술현은 영인면과 인주면·둔포면·음봉면·염치면, 굴직현은 신창면·선장면·도고면을 각각 관할하였던 것으로 비정된다. 그런데 475년 웅진천

도 후에 삼국간의 경계가 오늘날 아산만~진천~조령~영일만을 연결하는 선으로 이해되고 있어 아산지역은 웅진·사비시기 대고구려 방어에의 전초기지로서 매우 중요하였다고 하겠다.

금산지역에는 珍同縣이 있어 황등야산군에 속하였으며, 상당기간 신라와 국경지대를 형성하고 있었기 때문에 지리적으로 중요한 위치를 점하고 있다.

이상에서 충남 각 시·군의 백제시대 행정명칭에 대하여 살펴보았다. 그러나 이들 행정구역은 현재의 행정구역과는 큰 차이를 보이고 있으며, 이들 지역의 백제영역화를 시기적으로 구명하기는 쉽지 않다. 다만 웅진으로 천도한 이후에 충남지역은 백제의 중심권역에 포함되어 백제 멸망시까지 지속되었다. 특히 왕도는 당시 정치·경제·문화의 중심지였으므로 공주·부여지역을 중심으로 다수의 문화재가 남아 있으며, 다른 지역들도 백제영역화 및 왕도의 변천과정에서 지역적 특성에 따른 문화재가 형성되었다.

2. 백제 문화재 현황

문화재는 역사문화 활동의 산물이다. 따라서 문화재의 성격은 그 지역의 역사문화적 환경과 지리적 특성에 의해 결정되고, 그 분포의 양상을 달리하고 있다.

충남지역 백제시대 문화재의 분포적 특징은 왕도가 입지하고 있었던 지역과 그 주변을 중심으로 밀집되어 있다는 점이다. 즉 백제시대의 왕도였던 공주(475~538)와 부여(538~660)에 중요문화재가 밀집되어 분포하고 있으며, 그 외에 주변지역에 부분적으로 분포하고 있다. 그리고 문화재의 성격은 공주와 부여는 주로 도읍기에 형성된 왕도 관련 유적·유물이 많이 남아 있으며, 그 주변으로는 산성 등 방어용 시설을 비롯해 각 지역적 특성을 지닌 유적·유물이 산재하고 있다는 점이다. 충남의 각 지역별 백제시대 문화재 현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⁹⁾

9) 지역구분은 왕도가 위치하였던 공주와 부여를 중심으로 임의적으로 구분하였다. 먼저, 왕도 지역은 공주시·부여군, 왕도 주변지역은 논산시·연기군·청양군, 서북 해안지역은 예산군·홍성군·서산시·당진군·태안군, 주변지역은 보령시·천안시·아산시·서천군·금산군 등으로 하였다. 이러한 지역구분은 백제시대 행정권역 또는 문화권역과는 관계가 없으며, 왕도를 중심으로 지리적 위치와 지역적 특성에 따라 구분된 것이다. 그리고 계룡출장소는 별도로 구분하지 않고 논산시에 포함시켜 다루기로 한다.

[표 1] 충남지역 백제문화재 현황

지역구분	구분	합계	국가지정 문화재	도지정 문화재	기타	비율(%)
	시군					
왕도지역	공주시	110	18	9	83	19.57
	부여군	138	30	17	91	24.55
왕도 주변지역	논산시	37	1	6	30	6.58
	연기군	8		2	6	1.42
	청양군	44		2	42	7.82
서북해안 지역	예산군	27	2	1	24	4.8
	홍성군	24		2	22	4.27
	서산시	16	2		14	2.84
	당진군	5			5	0.88
	태안군	11	1	1	9	1.95
주변지역	보령시	35	1		34	6.22
	천안시	30		5	25	5.33
	아산시	5		2	3	0.88
	서천군	37		1	36	6.58
	금산군	35		1	34	6.22
	합 계	562	55	49	458	100

1) 왕도지역

충남에서 백제시대 문화재가 가장 많이 분포하고 있는 지역은 왕도가 위치했던 공주와 부여이다. 충남은 백제가 475년(문주왕 1) 공주로 천도함에 따라 왕도가 자리잡게 되었으며, 538년(성왕 16) 부여로 다시 왕도를 옮기면서 백제시대 왕도가 2곳에 위치하는 결과를 가져왔다. 그 결과 왕도가 위치했던 지역에는 많은 고급의 물질문화가 형성되었으며, 그 흔적이 아직까지 곳곳에 남아있다.

공주는 475년부터 538년까지 63년간 도읍이 위치하고 있었으며, 유적·유물도 대부분 이 시기에 형성된 것이다. 특히 중요문화재는 웅진시기 도성지역을 중심으로 분포하고 있다. 현재까지 조사된 공주지역의 백제시대 문화재는 모두 110개 소이며, 충남지역 백제시대 문화재 562점 중 19.57%를 차지하고 있다. 이 가운데 가장 많은 수를 차지하고 있는 것은 古墳인데, 2개소의 왕릉군¹⁰⁾을 포함해 45개

10) 현재 송산리왕릉군과 능산리왕릉군의 경우 공식적인 국가지정 명칭은 송산리고분군, 능산리고분군이다. 그러나 송산리고분군의 경우 1971년에 武寧王陵이 발견되어 왕릉군임이 밝혀졌다. 그리고 능산리고분군의 경우에는 1995년 능산리사지에서 발견된 昌王

소로 42%를 점하고 있다. 다음은 城 14개소, 佛敎 관련 유적 15개소, 그 외에 宮·陵園·旌·閣 등의 순이다. 이들 가운데 국가지정문화재는 18, 도지정문화재 9, 기타 83개소이다.

지역별 분포상태를 보면, 검상동에 1, 교동에 2, 금성동 26, 금학동에 5, 반죽동 2, 봉정동 1, 산성동 2, 상왕동 1, 신관동 2, 신기동 2, 옥룡동 5, 웅진동 6, 주미동 4, 중동 16개소 등이며, 그 외에 이인면에 5, 탄천면에 4, 계룡면에 5, 반포면에 4, 장기면에 3, 의당면에 4, 정안면에 2, 우성면에 8, 신평면에 2개소 등이다.

다만 중동 소재 文化財의 경우 모두 國立公州博物館에 전시되어 있는 遺物이며, 금성동의 경우에는 모두 公山城과 宋山里王陵群 주변에 분포하고 있다. 또한 지역별 문화재의 유형을 보면, 공주 시내일원을 제외하면 대부분 古墳과 山城이다.

부여는 성왕 16년(538) 공주에서 천도하여 660년 백제가 망할 때까지 123년간 백제의 도읍이었다. 그로 인해 부여에는 왕도와 관련된 유적·유물이 다수 분포하고 있다. 현재까지 조사된 백제시대 유적의 수는 138개소로 충남의 24.55%를 차지하고 있으며, 국가지정문화재 33, 도지정문화재 19, 문화재자료 4, 향토유적 4, 기타 78개소 등이다. 문화재의 유형을 보면, 고분이 63, 사지 24, 산성 24, 건물지 11, 요지 9, 탑 1, 추정왕궁지 1, 기타 5개소이다. 가장 많은 수를 점하고 있는 것은 고분으로 46%를 차지하고 있으며, 사지와 산성은 각각 17%, 건물지 8%, 요지 7% 등이다. 기타는 모두 왕과의 밀접한 관계에 있는 유적이다.

이들 문화재를 지역별로 구분해 보면, 부여읍이 82개소로 전체 문화재의 60%가 분포하고 있으며, 규암면 14, 장암면 10, 임천면 8, 은산면 5, 구룡면 4, 옥산면 4, 외산면 3, 영화면 2, 세도면 2, 홍산면 1, 남면 1, 석성면 1, 초촌면 1 등이다.

2) 왕도 주변지역

왕도가 소재했던 공주·부여와 인접하고 있었던 지역을 왕도 주변지역으로 구분하였는데, 논산·연기·청양 등을 들 수 있다. 당시 왕도의 주변지역에는 산성과 고분유적이 많이 분포하고 있다.

왕도 이외의 지역 가운데 가장 많은 수의 백제시대 문화재가 분포하는 지역은 논산을 들 수 있다. 논산시의 백제시대 유적으로 확인된 수는 모두 37개소이다.

銘石造舍利龕을 통해 이곳이 성왕의 원찰이었음이 확인되었으며, 따라서 성왕의 능이 능산리고분군 안에 위치하고 있는 것이 분명하다. 따라서 이들 고분군은 왕릉군으로 지칭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본 연구에서는 이들을 왕릉군으로 표기하도록 하겠다.

이 가운데 고분이 23개소로 전체 유적중 62%를 차지하고 있으며, 산성이 12개소로 32.5%를 점하고 있으며, 기타 요지가 1개소, 계백장군전승지 1개소 등이다. 따라서 대부분이 고분유적이며, 다음이 성곽유적이다. 논산지역은 신라와의 접경지대라는 지역적 특성으로 인해 관방유적이 다수 분포하고 있는데, 이와 관련하여 많은 수의 고분유적이 분포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지역별 분포를 보면, 연산면 8, 양촌면 8, 노성면 7, 가야곡면 4, 상월면 3, 광석면 1, 두마면 1, 부적면 2, 벌곡면 2, 논산읍 1개소 등이다.

연기는 모두 8개소인데, 산성이 5, 고분 1, 토기출토지 1, 사찰 1개소이다. 연기지역도 논산지역과 마찬가지로 왕도의 방어에 중요한 지리적 위치에 있어 산성이 많이 분포하고 있다는 특징이 있다. 산성의 분포는 조치원읍 1, 동면 1, 전의면 4, 남면 2 등이다.

청양은 모두 44개소가 조사되고 있으며, 이 가운데 고분이 32개소로 73%, 산성이 10개소로 23%, 요지가 2개소로 4.5% 정도를 차지하고 있다. 유적의 지역별 분포를 보면, 화성면 9, 청양읍 9, 운곡면 6, 정산면 6, 목면 5, 비봉면 5, 청남면 2, 장평면 1, 대치면 1개소 등이다.

3) 서북해안지역

서북해안지역은 백제가 대중국 교역을 하는데 있어서 중요한 교역로의 기능을 하였을 뿐만 아니라 대외활동의 창구역할을 하는 지역이었거나 해안지대로 통하는 길목에 위치하고 있는 지역이다. 이들 지역으로는 예산·홍성·서산·당진·태안 등을 들 수 있다.

예산은 모두 27개소의 문화재가 조사되었는데, 이 가운데 고분이 9개소, 산성이 11개소, 유물산포지 5개소, 요지 1개소, 기타 사면석불 1구 등이다. 예산지역의 경우에도 산성이 많이 분포하고 있다는 특징을 들 수 있다. 분포를 보면, 대흥면 7, 신양면 4, 광시면 3, 고덕면 4, 덕산면 2, 예산읍 2, 봉산면 4개소, 응봉면 1개소 등이다.

서산은 모두 16개소가 확인되었는데, 고분 8개소, 산성 5개소, 토기산포지 1개소, 사지 1개소, 마애불 1개소 등이다. 지역별 분포는 운산면 3, 대산읍 2, 지곡면 3, 고북면 2, 팔봉면 3, 해미면 1, 서산시 1개소, 인지면 1개소 등이다. 태안은 모두 11개소이며, 그 가운데 고분 7, 산성 3, 마애불 1개소이다. 분포는 태안읍 3, 남면 1, 근흥면 4, 소원면 1, 원북면 2개소 등이다.

당진은 모두 5개소가 확인되고 있는데, 고분이 1개소, 산성이 4개소이다. 분포

는 면천면 2, 합덕읍 1, 순성면 1, 신평면 1 등이다. 홍성은 모두 7개소인데, 산성이 6개소이며, 기타 고분 1개소이다. 지역별 분포는 장곡면 3, 결성면 2, 홍성읍 1, 광천읍 1개소 등이다. 당진과 홍성 지역은 조사된 문화재의 수가 적는데 이는 조사의 미흡에 기인한 것으로 생각된다.

충남의 서해안 서북부 지역은 당시 중국과 근거리라는 지리적 위치로 인해 중국문물을 수입하는 창구로서의 기능을 담당하였다. 그로 인해 이들 지역에는 지방문화로 이해하기 어려운 뛰어난 불교문화재가 남아있다. 서산 운산의 磨崖三尊佛은 중앙과 매우 밀접한 관계 속에서 조성된 것으로 볼 수 있으며, 태안의 마애삼존불, 6세기 후반의 백제불상으로 중요한 예산의 화전리 四面石佛 등도 같은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다.

4) 기타지역

백제시대 충남지역은 왕도가 2곳에 위치하고 있었던 관계로 문화재도 이들 지역을 중심으로 주로 분포되어 있다. 그 외에는 왕도와 관련하여 지역적 특성에 따라 문화재가 분포하고 있는데, 지역적인 특성이 뚜렷하게 부각되지 않는 지역도 있다. 그 지역으로는 천안·아산·서천·보령·금산 등을 들 수 있다. 물론 그들 지역이 백제시대에 중요하지 않았다는 것은 아니다. 각 지역별로 중요성을 지니고 있지만 왕도였던 공주·부여와의 지리적 관계나 중요 문화재의 분포 등과 관련하여 편의상 지역구분을 한 것이다.

천안에서는 현재까지 30개소가 확인되었는데, 고분이 13개소로 43.3%, 산성은 16개소로 53.3, 요지 1개소 등이다. 지역별 분포를 보면, 병천면 1, 북면 2, 풍세면 2, 성거면 1, 성남면 4, 창당동 2, 수신면 2, 광덕면 1, 목천면 5, 용곡동 1, 불당동 1, 직산면 2, 동면 5, 백석동 1개소이다.

아산은 5개소가 확인되고 있으나 모두 산성이다. 분포는 신창면, 염치면, 음봉면, 영인면, 배방면에 각각 1개소씩 분포하고 있다. 천안과 아산지역은 백제 한성시기 초에 백제의 영역화가 이루어진 것으로 기록에 나타나고 있으며, 웅진천도 이후는 대고구려와의 관계에서 국방상 중요한 지리적 위치에 있었다. 따라서 산성유적이 많은 수를 차지하고 있다.

보령은 35개소가 조사되었는데, 고분 23, 산성 10, 요지 1, 사지 1개소 등이다. 보령의 경우에도 다른 지역과 마찬가지로 고분유적이 가장 많은 수를 차지하고 있는데, 전체 유적 가운데 71%를 점하고 있다. 지역별 분포를 보면, 주산면 8, 웅천읍 5, 주포면 4, 청라면 3, 주교면 3, 미산면 3, 성주면 2, 남포면 2, 오천면 1,

화산동 1, 동대동 1, 명천동 1, 내향동 1개소 등이다.

서천은 모두 37개소가 확인되었는데, 이 가운데 고분이 27개소로 73%, 산성 9개소로 24%, 요지 1개소로 3% 정도를 점하고 있다. 지역별 분포를 보면 비인면 9, 서천읍 8, 중천면 6, 마서면 6, 화양면 3, 문산면 2, 시초면 1, 장항읍 1, 판교면 1개소 등이다.

금산에서는 35개소가 확인되고 있는데, 산성이 11개소로 31.5%, 고분 3, 주거지 2, 기타 유물산포지가 19개소로 54%를 차지하고 있다. 유적 가운데 54%를 차지하고 있는 유물산포지는 발굴조사 등 정밀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아 그 성격을 알 수 없으며, 대개 고분 내지는 주거지일 가능성이 높지만 유적이 확인되지 않는 경우도 있다. 또한 그 시기도 분명하지 못한 경우가 많아서 문화재의 범주에 포함시켜 설명하는데 일정한 한계가 있다. 지역별로 살펴보면, 제원면 10, 추부면 8, 군북면 7, 금성면 5, 진산면 2, 복수면 1, 금산읍 1, 남이면 1개소 등이다.

그런데 충남지역 백제 문화재의 지역별 현황을 보면 각 시·군마다 현격한 차이가 있는데, 예를 들면 부여 138, 공주 110, 연기군 8, 당진군 5, 아산시 5개소 등이다. 이와 같이 문화재의 수에 있어 편차를 보이는 것은 1차적으로 지역적 중요성에 따른 것이지만 그 이외에도 조사와도 밀접한 관계가 있다. 즉, 문화재의 수가 적은 지역은 아직 체계적인 지표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은 지역들이며, 앞으로의 조사에 의해 그 수는 크게 증가할 수 있다.

3. 백제 문화재의 특성분석

1) 지역별 특성분석

문화재의 중요성은 단순히 통계상의 多少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문화재가 지닌 歷史・文化的 性格에 있다. 따라서 그 시대의 歷史像과 文化像을 복원하는데 필요한 자료는 문화재로서의 가치를 지니고 있다. 또한 이들 문화재는 그 문화재가 형성된 시기의 역사상・문화상을 규명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자료라는 점에서 체계적인 보존관리가 필요하다.

다만 이들 문화재는 질과 양에 있어서 다양하므로 모든 문화재에 대한 특성분석이 쉽지 않다. 또한 모든 문화재를 함께 다룰 경우 그 특성을 파악해 내는데 어려움이 많다. 그런데 문화재의 경우 歷史・文化的 가치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중요 문화재로 지정하여 관리하는 것이 일반적이므로 지정문화재를 중심으로 각 지역별 문화재의 특성을 파악하는 것이 가능하다.

문화재의 지정은 일정한 대상에 대하여 보존을 목적으로 재산권에 공법상 제한을 가하기 위하여 행하는 공용제한이다.¹¹⁾ 문화재는 역사상·학술상·예술상·관상상 가치가 있고 인류생활을 이해할 수 있는 모든 것을 가리키며, 지하자원을 포함한 자연자원과 함께 경승지와 같은 자연·지리적 조건, 일상 생활자료, 그리고 과거의 문화적 유산 등 국토의 모든 자연 및 인문, 지리적 환경 등을 포괄적으로 포함한다. 이 가운데 특히 중요성이 커서 국가적으로 보존하고 관리할 필요성이 있는 문화재의 경우 국가에서 지정·관리하고 있는데, 이를 국가지정 문화재라고 한다. 국가지정 문화재는 문화재보호법 제4조, 제5조, 제6조, 제7조의 규정에 따라 ‘문화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정한 문화재로 국보·보물·중요무형문화재·사적·명승·사적 및 명승·천연기념물 및 중요민속자료 등 8개 유형으로 구분된다.

본 장에서는 백제시대 역사·문화상을 밝히는데 필요한 중요 문화재를 중심으로 검토하기로 하겠다. 이를 위해 우선 각 문화재를 지정주체에 따라 국가지정문화재와 도지정 및 일반문화재로 구분하고, 이를 각 시·군별로 나누어 특성분석을 시도하겠다. 다만 지정되지 않은 경우일지라도 필요한 경우 대상에 포함시키기로 한다.

(1) 국가지정 문화재

충청남도의 國家指定文化財를 보면, 國寶 28, 寶物 87, 史蹟 42, 史蹟 및 名勝 1, 天然記念物 15, 重要無形文化財 7, 重要民俗資料 22 등 모두 202점이다. 이들 重要文化財 가운데 백제시대 문화재는 國寶 28점 가운데 18점, 寶物 87점 가운데 9점, 史蹟 41점 가운데 24점, 史蹟과 名勝 1점 등 모두 55점인데, 國寶와 史蹟의 경우 백제시대 문화재가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어 그 중요성을 알 수 있다.

그런데 이들 중요문화재의 지정별 특성을 보면, 백제시대 왕도가 위치하였던 공주와 부여 지역의 문화재가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외에 불교 문화재와 산성, 고분 등이 중요 문화재로 지정되고 있다. 다음은 이를 권역별로 나누어 지역별 특성을 살펴보기로 한다.

11) 정문교, 『문화재행정과 정책』, 2000, 27쪽.

① 왕도지역

가. 공주시

왕도지역으로는 공주와 부여가 있다. 우선, 公州지역에 분포하고 있는 國家指定文化財를 보면, 국보가 13점을 차지하고 있어 충남지역 소재 국보 가운데 가장 많은 수를 점하고 있다. 그런데 이들 국보 13점은 모두 國立公州博物館에 전시되어 있다는 특징이 있다. 특히 이들 13점 가운데 의당 출토의 금동보살입상 1점을 제외한 12점은 모두 宋山里王陵群에 위치하고 있는 武寧王陵에서 출토된 유물들로 무령왕 및 왕비와 관련된 유물들이다. 무령왕릉은 1971년 7월 5일에 발견·조사되었는데, 출토된 유물은 모두 108종 2,906점에 이르며, 백제문화의 정수를 보여주는 많은 유물들을 포함하고 있다. 특히 2매의 지석은 삼국시대 고분 가운데 유일하게 피장자와 축조연대를 밝혀주는 자료가 되고 있어 백제사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고대사를 밝히는데 귀중한 자료가 되고 있다.

寶物은 3점이 있는데, 2점은 반죽동 대통사지와 관련된 유물로 모두 불교관련 문화재이다. 이 중 2점은 國立公州博物館에 전시되고 있으며, 1점은 반죽동 사지에 위치하고 있다. 반죽동 대통사지는 「大通」銘의 기와편이 출토되어 성왕 4년(526)에 창건된 사찰임을 알 수 있다. 대통사에 대해서는 『삼국유사』 흥법조에 “大通元年丁未 爲梁帝創寺如熊川州 名大通寺”라는 기록이 있어 고고유적과 문헌의 관계를 살필 수 있다.

사적은 2곳인데, 公山城과 宋山里王陵群이다. 공산성은 웅진시대 왕도가 위치했던 곳으로 지정되고 있으며, 송산리왕릉군은 무령왕릉이 위치하고 있는 등 웅진시대 왕릉군이었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공주지역 중요문화재는 거의 대부분 공주가 백제의 왕도였던 시기에 형성된 것임을 알 수 있다. 이들 문화재의 종류를 보면 다음과 같다.

연번	명 칭	소 재 지	지 정 별
1	무녕왕릉출토 금제관식(왕), 1쌍	중동 284-1 국립공주박물관	국보 154호
2	무녕왕릉출토 금제관식(왕비), 1쌍	중동 284-1 "	국보 155호
3	무녕왕릉출토 금제십엽형이식(왕)	중동 284-1 "	국보 156호
4	무녕왕릉출토 금제수하부이식(왕비)	중동 284-1 "	국보 157호
5	무녕왕릉출토 금제경식(왕비), 2점	중동 284-1 "	국보 158호
6	무녕왕릉출토 금제뒤꽂이, 1점	중동 284-1 "	국보 159호
7	무녕왕릉출토 금제팔찌(왕비), 1쌍	중동 284-1 "	국보 160호
8	무녕왕릉출토 청동신수경	중동 284-1 "	국보 161호
9	무녕왕릉출토 석수	중동 284-1 "	국보 162호
10	무녕왕릉출토 지식	중동 284-1 "	국보 163호
11	무녕왕릉출토 두침	중동 284-1 "	국보 165호
12	무녕왕릉출토 족좌(왕)	중동 284-1 "	국보 164호
13	의당 금동보살입상	중동 284-1 국립공주박물관	국보 제247호
14	중동 석조	중동 284-1 국립공주박물관	보물 제148호
15	반죽동 석조	중동 284-1 국립공주박물관	보물 제149호
16	반죽동 당간지주	공주시 반죽동	보물 제150호
17	공산성	공주신 산성동, 금성동, 옥룡동	사적 제12호
18	송산리고분군	공주시 금성동	사적 제13호

앞의 표에서 알 수 있듯이 공주지역 국가문화재의 특징은 무령왕릉 출토품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는 점이다. 또한 이들 문화재는 모두 국립공주박물관에 보관·전시되고 있어 국가에서 직접 관리하고 있다.

나. 부여군

부여는 538년부터 660년까지 백제의 마지막 왕도가 위치했던 곳이다. 그 결과 국가지정문화재가 충남지역에서 가장 많이 분포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그 유형도 다양하다. 부여군의 국가지정 중요문화재는 모두 30점인데, 이 가운데 국보 5점, 보물 5점, 사적 19점, 사적과 명승 1점 등이다. 부여지역 중요 문화재의 특징적인 점은 공주와 마찬가지로 대부분 왕도가 존속하였던 사비시대에 형성되었다는 점이다. 또한 그 분포도 당시 왕도였던 현재의 부여읍내 일원에 위치하고 있는데, 30점 가운데 26점이 왕도내부 또는 가까이에 위치하고 있으며, 나머지 4점도 왕도와 밀접한 관련을 가진 유적이다. 특히 이들 중요문화재 가운데 국보와 보물은 정립사지 5층탑 1점을 제외하면 모두 국립부여박물관에 보관·전시되고 있다.

부여지역 국가지정문화재의 종류를 보면 다음과 같다.

연번	명칭	소재지	지정명
1	정림사지5층석탑	부여군 부여읍 동남리 255	국보 제9호
2	금동미륵보살반가상	국립부여박물관	국보 제83호
3	백제금동대향로	국립부여박물관	국보 제287호
4	백제창왕명석조사리감	국립부여박물관	국보 제288호
5	금동관세음보살입상	국립부여박물관	국보 제293호
6	당유인원기공비	국립부여박물관	보물 제21호
7	부여 석조	국립부여박물관	보물 제194호
8	금동석가여래입상	국립부여박물관	보물 제196호
9	군수리 석조여래입상	국립부여박물관	보물 제329호
10	군수리 금동미륵보살입상	국립부여박물관	보물 제330호
11	성흥산성	임천면 군사리	사적 제4호
12	부소산성	부여읍 쌍북리,관북리,구아리,구교리	사적 제5호
13	능산리고분군	부여읍 능산리	사적 제14호
14	청마산성	부여읍 능산리, 용정리, 가탐리, 송곡리 일원	사적 제34호
15	군수리사지	부여읍 군수리	사적 제44호
16	나성	부여읍 염창리, 능산리, 가탐리, 석목리 일원	사적 제58호
17	청산성	부여읍 쌍북리	사적 제59호
18	석성산성	석성면 현내리	사적 제89호
19	쌍북리요지	부여읍 쌍북리	사적 제99호
20	궁남지	부여읍 동남리	사적 135호
21	증산성	규암면 신성리	사적 제156호
22	정림사지	부여읍 동남리	사적 제301호
23	정암리와요지	장암면 정암리	사적 제373호
24	능안골고분군	부여읍 능산리	사적 제420호
25	화지산 일원 유적	부여읍 동남리	사적 제425호
26	왕흥사지	규암면 신리	사적 제427호
27	관북리백제유적	부여읍 관북리	사적 제428호
28	능산리사지	부여읍 능산리	사적 제434호
29	금강사지	은산면 금공리	사적 제435호
30	구드래 일원	부여읍 구교리	사적및명승 제6호

문화재의 성격을 보면, 국보·보물의 경우 당나라 장군 유인원의 공적을 기린 ‘당유인원기공비’를 제외한 9점이 모두 불교관련 문화재이다. 그리고 그 외에는 사적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데, 유적은 산성이 7, 사지 5, 기타 왕도관련 유적지 등이다. 부여지역 문화재 가운데 유적지가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는 점은 사비시대 백제가 지닌 역사성에 기인한다고 볼 수 있다. 부여지역은 660년 백제가

멸망할 당시 전장터로 변하였으며, 이후 3년간에 걸친 부흥운동기에 크고 작은 전투가 많이 벌어졌던 곳이다. 따라서 이 과정에서 부여지역은 폐허로 변하였으며, 또한 패망국으로서 왕도에 대한 인위적인 훼손이 이루어졌을 것이다. 그 결과 지상문화재는 거의 남아있지 않고 대부분 건물터 등 매장문화재의 형태로 잔존하고 있다.

부여의 경우 이 외에 중요무형문화재로 은산별신제(제9호)가 있다. 은산별신제는 마을의 병마를 물리치기 위해 패전한 백제의 장군과 병사들의 무덤을 만들고 위령제를 지냈던 데서 유래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으며, 부흥장이었던 복신과 도침이 모셔지고 있다. 은산별신제는 매년 음력 정월에 행해지고 있다.

② 왕도 주변지역

가. 논산시

논산지역 백제시대 문화재의 성격은 크게 2유형으로 분류되는데, 산성과 고분이 그것이다. 논산지역은 사비시대 지방제도인 5방 가운데 동방에 해당되며, 신라와의 국경지대였다. 이로 인해 신라의 침입을 방지하기 위해 산성이 많이 축조되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고분군도 많이 분포하고 있는데, 주로 산성 주변에 많이 분포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서로 밀접한 관계가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지리적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국가지정문화재는 1점에 불과하며, 그 현황은 다음과 같다.

번호	명칭	소재지	지정명
1	노성산성	노성면 송당리	사적 제393호

국가문화재로 지정된 것은 노성산성 1곳으로 사적으로 지정되어 있다. 그런데 논산지역은 백제멸망기 최대의 격전지였던 황산벌이 연산에 위치하고 있어 그 역사적 의미가 매우 큰 지역이다. 황산벌전투는 계백과 5천결사대의 충의정신이 깃들어있는 전투로 백제사에 있어서 뿐만 아니라 후대의 역사적 귀감이 되고 있다.

나. 연기군·청양군

연기군은 웅진시대 왕도였던 공주지역의 바로 북편에 위치하고 있어 왕도 방어와 밀접한 관계에 있었다. 그로 인해 현재 산성이 많이 남아 있다. 그렇지만 아직 국가문화재로 지정된 것은 없다. 다만 백제시대 사찰인 비암사가 위치하고

있으며, 백제가 멸망한 이후 재지세력에 의해 만들어진 것으로 보이는 비암사 출토 각종 금동불상이 남아있어 당시 연기지역의 위상을 짐작하게 할 뿐이다.

청양군의 경우에도 다수의 산성이 존재하고 있지만 국가문화재로 지정된 것은 없다.

③ 충남 서북해안지역

가. 서산시

서산시는 지리적으로 충남의 서북해안지대에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백제시대 서해를 통한 대외진출에 있어 유리한 위치를 점하고 있었다. 특히 대중국 교통을 위한 통로역할을 하였기 때문에 선진문물의 수입창구로서의 기능을 하였다. 그로 인해 서산지역에는 많은 백제시대 문화재가 분포하였을 것으로 추정된다. 그러나 대부분 매장문화재로 존재하기 때문에 현재 밝혀진 사례는 그리 많은 편은 아니다. 서산지역 중요문화재로는 백제의 미소로 널리 알려진 서산마애삼존불이 있으며, 유적으로는 백제시대에 창건된 보원사지가 있다. 그렇지만 아직 이들 문화재의 조성배경, 역사적 성격 등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지 않다. 보원사지에 대한 체계적인 발굴조사가 이루어진다면 보다 많은 역사상들이 밝혀질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그리고 주변에는 백제시대 고분, 산성 등이 다수 분포하고 있으므로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연구가 필요하다.

번호	명 칭	소 재 지	지 정 명
1	마애삼존불	서산시 운산면 용현리	국보 제84호
2	보원사지	서산시 운산면 용현리	사적 제316호

나. 예산군

충남지역 백제시대 문화재의 분포와 관련하여 공주, 부여 다음으로 주목되는 지역은 예산이다. 예산에는 보물 제794호인 화전리 사면석불과 사적 제90호인 임존성이 위치하고 있다. 예산은 백제 사비시기 5방성 가운데 서방성이 위치하였을 가능성이 제일 높은 지역 가운데 하나이다. 또한 지리적으로 삼교천을 따라 중국과 통교하고, 고구려 진출을 위한 교두보로서의 위치에 있어 일찍부터 중요시되었던 지역이기도 하다. 화전리 사면석불은 이러한 예산의 지리적 위치를 나타내주는 문화재 가운데 하나이다. 또한 임존성은 지방통치제도인 5방 가운데 서방성이 있었던 곳으로 비정되는 등 지방통치를 위한 중심성였으며, 백제 부흥운동의 주요 거점성 가운데 하나로 중시되고 있다. 따라서 예산지역 백제 문화재는 백제시대 지방통치제도를 비롯해 부흥운동기의 백제사를 이해하는데 중요하다.

번호	명 칭	소 재 지	지 정 명
1	화전리 사면석불	예산군 봉산면 화전리	보물 제794호
2	대흥 임존성	예산군 대흥면 상중리 일원	사적 제90호

다. 태안군

충남 서북부 해안지역이 백제의 서해안 진출 및 대중국 교통과 관련하여 중시되었음은 서산과 예산의 문화유적을 통해 확인된다. 이와 관련하여 또 하나 빼놓을 수 없는 것이 태안의 백화산 중턱에 있는 마애삼존불이다. 태안의 마애삼존불은 백제시대 뿐만 아니라 삼국시대 마애불 가운데 제일 시기가 이른 것으로 알려져 있다. 마애불의 조각은 서산마애삼존불에 비해 조악하지만 시기적으로 앞설 뿐만 아니라 그 형태도 특이하다. 조성 이유는 분명하지 않지만 서해를 향해하는 선박의 안녕을 기원하기 위한 목적이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이 점은 태안지역이 서해항로에서 중요한 위치에 있었음을 보여준다.

번호	명 칭	소 재 지	지 정 명
1	마애삼존불	태안읍 동문리	보물 제432호

라. 기타

이들 지역 외에 홍성·당진 등에는 아직 국가지정 문화재가 없다. 그렇지만 이들 지역은 웅진·사비시기에 서해진출 뿐만 아니라 대고구려와의 관계에서 지리적으로 중요한 위치에 있었으며, 비록 중요문화재로 지정되지는 않았지만 다수의 백제시대 문화재들이 분포하고 있어 앞으로 중요문화재가 조사·발굴될 가능성이 남아 있다.

④ 기타지역

보령시는 서해지역에 위치하고 있으면서 서북부지역과는 다른 지리적 위치에 있다. 보령시에는 백제시대의 역사와 문화적 특징을 보여주는 문화재로 주목되는 것이 아직은 없다. 다만 백제시대 초창된 오합사가 현재의 성주사지에 위치하고 있었으며, 발굴조사를 통해 백제시대 가람의 존재가 확인되었다. 오합사는 법왕이 전쟁에서 사망한 군인들의 영혼을 위로하기 위한 호국사찰로 창건한 것으로 추정된다. 그러나 현재 남아있는 문화재는 대부분 통일신라시대에 조성된 것들이다.

번호	명 칭	소 재 지	지 정 명
1	성주사지	보령시 성주면 성주리	사적 제307호

국가지정 문화재가 없는 시·군도 다수 있다. 이들 시·군 지역으로는 천안시·아산시·서천군·금산군 등을 들 수 있다. 이 중 천안과 아산은 매우 이른 시기에 백제의 영역으로 편제되었던 것으로 보인다. 『삼국사기』백제본기에 의하면 온조왕 36년에 아산지역에 탕정성이 축조되었으며, 특히 위례산성은 백제의 초도지로도 전해지고 있는 등 충남에서 가장 이른 시기에 영역화가 이루어졌음을 알 수 있다. 이 외에 서천군과 금산군은 백제의 수도가 공주로 천도하면서 실질적인 영역화가 이루어졌다고 볼 수 있다. 다만 이들 지역에 백제시대의 중요 문화재들이 분포하고 있지 않은 것은 아직 학술조사가 미흡한데 그 원인이 있으며, 또한 왕도의 중심에서 벗어난 지역이었다는 점도 한 원인으로 추정된다.

이상에서 충남지역에 소재하고 있는 국가지정 문화재에 대하여 살펴보았다. 그 결과 이들 중요문화재는 공주와 부여에 집중적으로 분포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국가지정 문화재 55점 가운데 이들 2지역에 분포하고 있는 문화재의 수가 48점으로 87%를 차지하고 있다. 이와 같이 편차가 심한 이유는 이들 지역이 일정기간 왕도로 기능하였기 때문이다. 따라서 공주·부여에 분포하고 있는 문화재는 이러한 시대적 특성을 반영하는 것들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특히 공주의 경우에는 국보 13점 가운데 무령왕릉 출토품이 12점으로 절대다수를 차지하고 있다. 부여는 사지 및 사찰관련 문화재, 관방유적·고분 등이 대다수를 차지하고, 그 외에 왕궁관련 문화재가 일부를 차지하고 있다. 따라서 공주와 부여지역은 왕도로서의 특성을 잘 보여주고 있다고 하겠다.

공주·부여를 제외하면 중요 문화재가 적는데, 이는 상대적으로 다른 지역에 대한 관심의 부족에서 기인하는 점도 있다. 즉, 이들 지역 이외의 경우 조사가 부진하거나 문화재의 가치가 제대로 밝혀지지 못한데 기인하는 경우가 있는 것이다. 앞으로 학술적인 연구 및 고고학적인 성과를 통해 중요 문화재의 지정도 늘어날 것이다.

(2) 도지정 및 일반 문화재

도지정 및 일반문화재는 국가지정 문화재로 지정되지 않은 문화재 가운데 보존가치가 있다고 인정되는 것을 문화재보호법 제5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해 지정된 것으로 유형문화재, 무형문화재, 기념물 및 민속자료 등 4개 유형으로 구분된다. 도에서 지정하여 관리하는 문화재의 경우 비록 문화재적 가치는 국가지정 문화재보다 떨어지지만 지역적 특색을 강하게 보여주는 경우가 많아 지역사 연구

에 있어 중요한 학술적 가치를 지닌 경우가 많다. 충청남도의 도지정 문화재는 문화재자료를 포함하여 615점(도지정문화재 325, 문화재자료 290점)인데, 이 가운데 백제시대 문화재는 49점으로 약 8%를 차지하고 있다.

다음은 충남지역에 분포하는 도지정 문화재의 분포특성에 대하여 살펴보기로 하겠다.

① 왕도지역

가. 공주시

공주시의 도지정 및 일반문화재는 모두 9점인데 현황은 다음과 같다.

번호	명 칭	소 재 지	지 정 명
1	신관동석실고분	신관동 14	기념물 제7호
2	남혈사지	금학동 93	기념물 제35호
3	수원사지	옥룡동 111외	기념물 제36호
4	서혈사지	웅진동 207-3	기념물 제37호
5	주미사지	주미동 567외	기념물 제38호
6	구룡사지	반포면 상신리 389외	기념물 제39호
7	공산성 연지	금성동 58	기념물 제42호
8	옥녀봉산성	옥룡동 산2-1	기념물 제99호
9	정지산 백제유적	금성동 산1외	기념물 제147호

공주시의 도지정 및 일반문화재는 국가지정 문화재와 마찬가지로 대부분 백제시대 왕도였던 시내일원에 분포하고 있으며, 특징은 사지가 많다는 점이다. 이들 사지가 중요 문화재로 지정된 것은 웅진시기 왕도 안에 위치하고 있어 백제시대의 사지일 것으로 추정되었기 때문이다. 그런데 이들 사지를 조사한 결과 뚜렷한 백제시대 유물이나 유구가 드러나지 않는 경우가 많아 아직 그 성격을 분명히 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다. 예를 들면, 주미사지의 경우 1970년 조사시 통일신라시대의 유구·유물만 확인되었으며, 구룡사지는 고려시대 유구가 확인되었다. 수원사지 역시 발굴결과 백제시대 유적은 확인되지 않았으나 『삼국유사』 권3의 미륵선화조에 진자와 관련된 설화가 전해지고 있어 6세기 후반에 수원사의 존재가 기록에 나타나고 있다. 따라서 백제시대부터 사찰이 있었을 것으로 추정되지만 관련 유적은 확인되지 않았다. 다만 이들 조사가 부분적인 발굴에 한정된 경우가 많으므로 지속적인 조사를 통한 성격규명이 필요하다.

신관동 석실고분과 정지산유적은 개발과정에서 발굴조사를 통해 그 가치가 밝혀진 유적으로 중요한 학술적 가치를 지니고 있다. 특히 정지산유적은 제사유적으로 송산리왕릉군과 관련된 빈전일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는 등 백제시대 장례

문화를 이해할 수 있는 유적으로 주목된다.

나. 부여군

부여군은 모두 17점의 도지정 문화재가 분포하고 있다. 국가지정 문화재와 마찬가지로 부여가 공주보다 왕도의 존속시기가 길었기 때문에 도지정 문화재의 경우에도 많은 수를 차지하고 있다. 문화재의 현황을 보면 다음과 같다.

번 호	명 칭	소 재 지	지 정 명
1	사택지적비	국립부여박물관	유형문화재 제101호
2	호암사지	규암면 호암리 156-2외	기념물 제32호
3	임강사지	부여읍 현북리 51외	기념물 제34호
4	쌍북리북요지	부여읍 쌍북리 641외	기념물 제41호
5	태양리 백제석실고분	구룡면 태양리 산28-1	기념물 제45호
6	용정리사지	부여읍 용정리 33외	기념물 제48호
7	천정대	규암면 호암리 산5	기념물 제49호
8	동남리사지	부여읍 동남리 211-1외	기념물 제50호
9	동남리 전천왕사지	부여읍 동남리 산 34-1외	기념물 제53호
10	중정리 소룡골 백제건물지	부여읍 중정리 405-12외	기념물 제86호
11	지선리고분군	외산면 지선리 산 20외	기념물 제87호
12	구아리 백제유적	부여읍 구아리 64외	기념물 제88호
13	은산 당산성	은산면 은산리	기념물 제152호
14	군창지	부여읍 쌍북리 산4	기념물 제109호(문자)
15	낙화암	부여읍 쌍북리 산4	기념물 제110호
16	중정리건물지	부여읍 중정리 산 479	기념물 제54호
17	팔각정	부여읍 쌍북리 646-10	문화재자료 제103호

문화재의 유형을 보면, 17점 가운데 1점만이 유물, 즉 동산문화재이며, 나머지는 모두 유적지이다. 유적의 성격은 사지가 5개소로 많은 수를 차지하고 있으며, 건물지 4, 고분 2, 산성, 기타 특정한 목적의 시설지가 있다. 사지는 5개소 가운데 호암사지를 제외한 4개소가 발굴조사되어 그 성격을 어느 정도 알 수 있다. 천정대와 낙화암은 상징성을 지닌 문화재로 의자왕대의 정치상황을 이해할 수 있는 유적이다.

② 왕도 주변지역

가. 논산시

논산시는 현재 6개소의 문화재가 지정되어 있는데, 현황은 다음과 같다.

번호	명칭	소재지	지정명
1	황산성	연산면 표정리 산20	기념물 제56호
2	계백장군유적 전승지	부적면 신평리 산4	기념물 제74호
3	황화산성	논산시 등화동 산12외	기념물 제92호
4	표정리고분군	연산면 표정리 58-2	기념물 제94호
5	육곡리고분군	가야곡면 육곡리 6-1	기념물 제95호
6	외성산성	부적면 외성리 산16-2	기념물 제277호(문자)

논산지역 문화재의 특성은 지리적인 위치로 인해 산성, 그리고 이와 관련된 고분유적이 많다는 점이다. 그렇지만 아직 체계적인 발굴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아 그 축조시점이나 현황 등에 대해서는 잘 알 수 없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그리고 논산지역은 백제멸망기 신라 5만군과 결전을 벌인 황산벌이 위치하고 있다. 황산벌전투는 신라의 백제정벌 의욕을 저지할 수 있는 중요한 전투였기 때문에 계백이 이끄는 5천결사대는 죽음을 무릅쓰고 결사항전하였으나 결국 수적인 열세를 극복하지 못하고 패배하였다. 이 전투에서 계백이 지휘하는 오천결사대는 장렬하게 최후를 마쳤으며, 계백 자신도 전사하였다. 황산벌전투에는 국가 존망의 위기에 충의와 절의를 바친 숭고한 정신이 깃들여 있다. 따라서 백제사뿐만 아니라 우리 역사상에 있어 상징적 의미가 매우 크다는 점에서 중요한 위치를 점하고 있지만 아직 이를 국가적인 차원에서 연구하고 계승하려는 노력이 미흡한 실정이다.

이와 같이 논산지역은 백제시대 그 지리적 위치로 인해 중요성이 매우 높은 지역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 이들 유적의 역사·문화적 성격에 대한 구명작업이 부족하다.

나. 연기군

연기군은 공주의 북쪽에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웅진시대 왕도의 방어를 위해 지리적으로 중요한 지역이었다. 이러한 당시의 상황을 말해주듯 연기지역에는 산성이 많이 분포하고 있다. 그렇지만 문화재로 지정된 유적은 적으며, 그 현황은 다음과 같다.

번호	명칭	소재지	지정명
1	운주산성	전동면 청성리 산90외	기념물 제79호
2	연기 이성	전동면 송성리 산26	기념물 제77호

이 가운데 운주산성은 지표조사와 시굴조사를 거쳐 일부 지역에 대한 발굴조사를 실시하였지만 아직 초축시기는 불분명하다. 지속적인 조사가 필요하며, 다른 유적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특히 산성의 경우 발굴조사를 하지 않으면 유적의 성격이나 축조시기, 축조방법 등을 파악할 수 없기 때문에 정비·복원, 또는 학술적 자료로의 활용에 한계가 있다.

다. 청양군

청양군은 대부분 산악지대로 이루어져 있지만 사비시기 백제가 서북해안지대로 진출하는 길목에 해당한다. 따라서 청양지역은 왕도 사비의 북방지역을 방비하는데 있어서 중요한 지리적 위치에 해당하며, 지정문화재도 이러한 역사적 상황을 반영하고 있다.

번호	명칭	소재지	지정명
1	우산성	청양읍 읍내리 4-2외	기념물 제81호
2	두릉산성	정산면 백곡리	기념물 제156호

현재 2개의 산성이 지방문화재로 지정되어 있는데, 이와 같이 외형적으로 드러나는 유적을 제외하면 확인된 문화재가 적은 편이다. 또한 이들 유적의 경우에도 정밀지표조사나 발굴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아 유적의 정확한 현황이나 성격, 학술적 의의 등에 대해서는 거의 알려진 바가 없다.

③ 충남 서북해안지역

충남 서북해안지역은 백제가 대중국 통교 및 대고구려 진출을 하는데 유리한 지리적 위치에 해당한다. 한편 이러한 지정학적 위치는 외부로부터의 영향도 크게 받는다. 따라서 이러한 지역에는 대외관계 속에서 형성된 문화요소가 많이 남아 있으며, 또한 방어나 거점을 위한 산성이 많이 축조되고 있다.

가. 예산군

예산지역은 백제가 웅진·사비시기에 충남 서북해안지역으로 진출하는데 있어 길목에 해당하는 곳이다. 예산에는 사면석불을 비롯해 임존성 등 중요문화재가 다수 분포하고 있어 백제시대 예산지역의 위상을 보여주고 있다. 그렇지만 예산군에서 지방문화재로 지정된 것은 예산산성 1개소밖에 없어 지리적 중요성에 비해 그 수가 많지 않을 뿐만 아니라 조사도 미흡한 실정이다.

번호	명칭	소재지	지정명
1	예산산성	예산읍 산성리 482	기념물 제30호

나. 홍성군

홍성지역은 서해안을 끼고 있어 대외교류에 유리한 위치에 있었는데, 신금성에서 출토된 중국 西晉代의 錢文土器片은 이러한 지리적 성격을 잘 보여주는 유물이다. 그러나 백제시대에 이 지역은 중심에서 벗어난 외곽지대에 해당하기 때문에 중요한 유적이나 유물은 조사되고 있지 않다. 다만 신금성과 장곡산성 2개소가 백제시대 축조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 가운데 신금성은 조사를 통해 초축시기가 백제로 밝혀졌으나 백제시대 보다는 통일신라시대에 주로 사용된 성이다.

번호	명칭	소재지	지정명
1	신금성	결성면 금곡리 228-1	기념물 제149호
2	장곡산성	장곡면 산성리 산28-2	문화재자료 제360호

다. 태안군

태안군은 백화산성 1개소만이 지정되어 있다. 백화산성은 백화산에 축조되어 있는데, 이 산의 중턱에는 7세기 초에 조성된 것으로 비정되는 마애삼존불이 위치하고 있어 백제시대에 매우 중시된 지역이었음을 알 수 있다. 백화산성은 지표조사가 실시되어 산성의 전체적인 현황은 파악되었으나 아직 발굴조사 등 보다 정밀한 조사는 진행되지 않았다. 지표조사 결과 축성시기는 백제시대까지 소급될 가능성이 매우 높아졌으나 아직 단정을 하기에는 자료가 미흡한 형편이다.

번호	명칭	소재지	지정명
1	백화산성	태안읍 동남리	기념물 제212호

이 외에 당진과 서산지역은 지방문화재로 지정된 것이 없다. 그러나 이들 지역은 백제가 대중국교역 및 서해진출에 있어 지리적으로 중요한 위치에 있었기 때문에 관련 문화재가 존재했을 가능성은 높다. 서산지역에 존재하는 보원사지·마애삼존불 등은 이 지역의 위상을 대변해 주는 좋은 문화재들이다.

④ 기타지역

기타 지역으로는 천안·아산·서천·보령·금산 등 웅진·사비시대 왕도지역과는 멀리 떨어진 외곽지역에 해당한다. 물론 왕도와 멀리 떨어진 외곽이라고 하

여 중요성이 낮은 것은 아니다. 예를 들면 천안·아산 지역은 대고구려와의 접경 지대로 전략적으로 중요한 위치에 있었다. 다만 왕도의 중심에서 멀리 떨어져 있다는 지리적 위치에 의해 구분한 것뿐이다.

가. 천안시

먼저 천안지역의 도지정 문화재로는 다음이 있다.

번호	명칭	소재지	지정명
1	직산 사산성	직산면 군동리	기념물 제104호
2	백석동토성	천안시 백석동	기념물 제106호
3	성거산 위례성	천안시 북면 운룡리	기념물 제148호
4	세성산성	천안시 성남면 화성리	기념물 제105호
5	흑성산성	천안시 목천면 구교리	기념물 364호(문자)

천안지역은 백제가 475년 한강유역을 상실하고 웅진으로 천도한 이후 육로를 통해 북방으로 진출하는 길목에 해당된다. 또한 고구려의 남진을 저지하는 최전방으로 전략적으로 요충지였다. 현재 천안지역에서 조사되는 백제시대 유적으로는 백제 초기의 유적이 많은 수를 차지하고 있으나 이들 대부분의 유적은 개발 과정에서 조사되고 있어 조사후 없어지는 경우가 많다. 그리고 지리상의 위치로 인해 산성유적이 많이 남아있는데, 백제시대 중요문화재 5점이 모두 산성이다. 이 외에도 일봉산성·월봉산성·봉서산성 등 백제시대에 축조된 것으로 알려진 산성이 다수 존재하고 있다.

산성은 기본적으로 방어를 위해 축조되므로 천안지역 중요문화재에서 산성이 대부분을 차지한다는 점은 이 지역이 군사상으로 중요한 위치에 있었음을 의미한다. 이 가운데 백석동토성은 개발과정에서 조사되어 현재 보존되고 있으며, 이외에 사산성과 위례성에 대한 조사가 이루어졌다. 다만 이들 조사가 대부분 기초적인 현황조사에 한정되고 있으며, 지속적인 조사나 연구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 문화재의 성격과 의의에 대한 구명은 매우 미흡한 실정이다.

나. 아산시

아산지역은 아산만을 통해 대중국 통교 또는 대고구려 진출을 위한 중요한 지리적 위치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백제유적의 조사 예가 많지 않다. 그 이유는 이들 지역에 대한 정밀조사가 아직 미흡하기 때문이다. 현재 백제시대 중요문화재로 조사된 것은 배방산성과 학성산성 2개소밖에 없다.

번호	명 칭	소재지	지정명
1	배방산성	배방면 신흥리 산19외	기념물 제67호
2	학성산성	아산시 용화동 283-3	문화재자료 제24호

그러나 이들 산성의 경우에도 정밀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아 그 성격에 대해서는 분명하게 알 수 없다. 또한 영인산성과 같이 백제시대 지리적으로 중요했던 지역에 위치하고 있는 산성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다. 금산군

금산군은 지리적으로 신라로 통하는 접경지대에 위치하고 있다. 따라서 군사적으로 중요한 지역이었다. 그 결과 금산지역에는 많은 산성이 남아있으나 아직 조사가 미흡하여 실상을 파악할 수 없다. 현재 백제시대에 축조된 것으로 알려진 산성으로는 백령산성이 있다.

번호	명칭	소재지	지정명
1	백령산성	남이면 건천리 산1외	기념물 제83호

그러나 백령산성의 경우에도 정밀한 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아 그 정확한 축조시기 및 구조, 성격 등에 대해서는 파악할 수 없으며, 그 외 대부분의 유적이 지표조사 상에서 확인되었을 뿐이다.

라. 서천군

서천은 금강 하구에 위치하고 있어 금강을 통해 서해로 진출입하는 관문의 역할을 하는 곳이다. 따라서 이와 관련된 유적·유물이 분포할 가능성이 높은 지역이다. 그러나 현재 백제시대 유적으로 알려진 것으로는 남산성 1개소밖에 없다. 남산성은 2001년도에 발굴조사가 이루어져 초축시기를 비롯한 증개축 상황을 부분적으로 확인할 수 있었다. 다만 성곽 전체에 대한 구조, 정확한 축조시기 등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보다 세밀한 연차발굴이 필요하다.

번호	명칭	소재지	지정명
1	남산성	서천읍 남산리 산22-1외	기념물 제96호

이외에 보령시의 경우에는 지방문화재로 지정된 사례가 없다.

도지정 및 일반 문화재의 경우 문화재적 가치에 의해 지정은 되어 있으나 중

합적인 학술조사나 발굴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가 대부분이며, 체계적인 관리를 위한 기본계획조차 수립되어 있지 않은 경우가 많다. 따라서 정밀조사를 통해 기존에 알려진 것과는 다른 역사적 성격을 드러내는 경우가 종종 있다.

일례로 건지산성(사적 제60호)의 경우 기존에 백제시대 산성으로 알려져 왔으며, 특히 부흥운동의 거점성 가운데 하나인 주류성으로 비정되어 사적으로 지정·관리되어 왔었다. 그러나 발굴조사 결과 고려시대에 축성된 것으로 밝혀졌다. 그로 인해 기존에 백제시대 산성으로 비정하여 정비계획을 수립했으나 고려시대 산성으로 판명됨에 따라 기존의 계획이 전면적으로 수정될 수밖에 없었다. 유적의 경우 정밀한 학술조사가 선행되어야만 그 유적에 대한 역사·문화적 성격을 구명할 수 있으며, 그를 토대로 올바른 정비·복원 및 활용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따라서 각 시·군의 문화재는 지정 및 정비계획 수립에 앞서 학술조사를 통해 문화재의 성격을 정확하게 파악하는 것이 선행되어야 한다.

2) 유형별 특성분석

충남지역에 분포하고 있는 백제 문화재를 유형별로 나누어 보면, 가장 많은 수를 차지하는 것이 고분이며, 그 다음으로 성곽, 불교유적(사지)가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다. 그 외에는 왕궁관련 유적, 가마터, 그리고 성격이 불분명한 유물산포지가 있다. 유물산포지는 가장 많은 수를 차지하고 있는데, 대개는 고분지역이거나 또는 건물지 등이 분포할 가능성이 높다. 그러나 정식 발굴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아 유적의 성격을 알 수 없는 경우가 대부분이며, 부분적으로 파악된다고 하더라도 역사·문화적 가치 등은 발굴조사 등을 통해서만 규명될 수 있다. 따라서 본 검토에서 유물산포지는 제외하기로 하겠다.

(1) 성곽 : 성곽은 여러 유형이 있는데, 백제시대 성곽의 경우 왕도와 관련된 성과 산성 등으로 구분해 볼 수 있다.

왕도관련 성으로는 왕성과 배후산성, 그리고 왕도를 보호하기 위해 축조한 나성이 있다. 충남지역에는 왕도였던 공주와 부여에 이와 관련된 유적이 남아있는데, 웅진시기 왕성으로 비정되는 공산성과 사비시기 왕성의 배후 산성인 부소산성, 왕도를 둘러싼 나성 등이 있다.

산성은 충남 대부분의 지역에 골고루 분포하고 있으며, 그 수도 헤아리기 어려울 정도로 많다. 산성의 기능은 크게 두 가지로 구분해 볼 수 있다. 첫째, 백제는

사비시기 지방통치제도로 方郡城制를 실시하였는데, 성이 지방 행정단위의 治所로서의 기능을 하였다. 백제의 지방통치조직은 멸망시 5方 37郡 200城이었다. 따라서 이들 행정단위의 중심 치소인 성이 각지에 존재하였을 것이다. 둘째, 외적의 방비를 위해 축조한 방어성의 기능을 하였다. 이 경우에는 국경지대에 설치한 산성과 수도 방어를 위해 왕도의 주변에 설치한 산성으로 다시 구분해 볼 수 있다. 국경지대의 산성으로는 천안·아산·금산지역에 위치한 대부분의 성들과 서해안의 교통로에 위치한 성들을 들 수 있으며, 수도방비를 위한 산성으로는 왕도였던 공주·부여의 인근지역인 논산·연기·청양 등에 분포하고 있는 산성들을 들 수 있다.

그런데 현재 治所로서의 기능을 가진 성과 방어성에 대한 구조상, 또는 기능상 차이점은 알 수 없으며, 단지 지리적 위치에 따라 기능상의 차이를 추정해 볼 수 있다. 즉, 국경지대를 중심으로 분포한 경우에는 주목적이 외적의 방비에 있었을 것이며, 공주와 부여 등 도성 주변에 위치한 산성은 도성방어를 위해 축조한 산성이었다. 그리고 각 지방의 치소로서의 성은 행정구역별로 중심지역에 분포하였을 것이나 현재까지 밝혀진 내용은 매우 적어 그 실체를 설명하는데 어려움이 있다. 따라서 앞으로 산성에 대한 체계적인 조사를 실시할 경우 산성의 구조와 함께 지방통치제도를 구명할 수 있는 많은 자료를 얻을 수 있을 것이다.

(2) 고분 : 고분은 백제인들의 사후세계에 대한 인식상태를 알 수 있는 유적이며, 고분에서 출토되는 다양한 유물은 당시의 공예수준을 비롯해 생활양식을 보여준다는 점에서 매우 중요한 문화재이다. 또한 우리민족은 전통적으로 시신을 매장하는 습속이 있어 다양하고 많은 분묘유적이 남아있다. 그런데 현재 남아있는 대부분의 고분은 대개 지배자의 무덤이라는 한계가 있다. 대표적인 것으로는 웅진·사비시대 왕들의 무덤인 공주 송산리왕릉군과 부여 능산리왕릉군이 있으며, 이외에 현재 조사된 고분군으로 염창리고분군, 능안골고분군 등이 대규모의 집단 분묘군으로 알려져 있다. 이 외에도 현재 각종 개발과정에서 조사된 고분의 경우 그 수를 헤아리기 어려울 정도로 많다. 뿐만 아니라 유물산포지로 알려져 있는 대부분의 유적은 고분유적일 가능성이 높다.

고분유적은 각 지역의 재지세력을 비롯하여 중앙과 지방과의 관계를 연구하는데 있어 가장 기초적인 자료라는 점에서 매우 중요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규모 개발사업이 이루어지는 경우에 한하여 발굴조사가 실시되기 때문에 자료의 획득에 어려움이 많다. 대표적인 경우가 논산지역에 분포하고 있는 다수의 고분

유적인데, 예를 들면 표정리고분군의 경우 논산지역 재지세력의 존재양태를 비롯하여 지역적 성격을 구명할 수 있는 좋은 자료임에도 불구하고 극히 일부만 조사가 이루어져 있는 상태이다.

이와 같이 고분유적은 백제시대의 물질문화를 연구하는데 있어 기초자료를 제공하고 있으며, 매장풍속을 비롯해 재지세력 문제, 지역의 문화적 특성을 구명할 수 있는 중요한 문화재이다.

그러나 대부분의 고분은 아직 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은 유적이 훨씬 더 많으며, 이들 고분은 현재도 각종 개발사업 과정에서 파괴가 이루어지고 있거나 도굴의 위험에 노출되어 있다. 따라서 각 지역의 중요 고분유적에 대해서는 좀더 체계적인 계획을 세워 학술조사를 실시할 필요가 있다.

(3) 불교유적(사지) : 불교유적으로는 사지가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으며, 이외에 마애불 등이 있다. 백제시대 불교는 성왕대 와서 크게 발전을 한다. 따라서 성왕이 사비로 천도하면서 왕도 내에는 많은 사찰이 조영되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중국의 역사서인 『周書』의 백제전에 “승려가 있고 사탑이 많다”고 기록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왕도 내에 많은 사찰들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이후 위덕왕은 관산성에서 돌아가신 부왕을 위해 능사를 창건하였다. 특히 법왕과 무왕 등은 불법을 숭상하였는데, 왕흥사를 비롯해 많은 사찰을 조영하였다. 현재 부여읍 내 및 주변에 분포하고 있는 많은 사지들은 이러한 당시의 역사상을 반영하고 있는 유적들이라고 할 수 있다.

사찰유적은 당시 정신문화를 이해하는데 있어서 중요할 뿐만 아니라 사지에서 출토되는 각종 건축부재(기와, 전돌 등)와 공예품들은 백제시대 건축 및 공예기술 등을 연구할 수 있는 귀중한 자료들이다.

백제시대 사찰은 주로 왕도였던 공주와 부여지역을 중심으로 분포하고 있다. 대표적인 사지로 정림사지를 들 수 있는데, 현재 5층석탑과 석조불좌상이 남아있다. 5층석탑은 미륵사지석탑과 함께 백제석탑의 정형성과 세련미를 보여주는 현존하는 가장 오래된 석탑 가운데 하나이다. 또한 사지에서 출토된 유물 중 활석제삼존불은 백제의 세련된 조각기술을 보여주며, 도용은 중국과의 문화교류를 살펴볼 수 있는 귀중한 자료이다. 그리고 왕흥사지는 『삼국사기』, 『삼국유사』 등의 문헌에 기록이 보이고 있어 문헌자료와 고고자료의 비교를 통한 백제사 연구라는 측면에서 좋은 유적이다.

그렇지만 사지의 경우 중요문화재로 지정된 사례가 많음에도 불구하고 아직

전체적인 발굴조사가 이루어진 사지는 그리 많지 않다. 특히 지정문화재의 경우에도 발굴조사 등이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문화재로 지정된 경우가 많다. 예를 들어 동남리건물지의 경우 일제시대에 이루어진 부분적인 조사를 통해 사지로 알려져 왔으나 1992·1993년의 조사에서 사찰유적이라기 보다는 특수한 용도의 건물지였을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공주의 경우 백제시대 사지로 추정되는 곳은 동혈사지, 서혈사지, 남혈사지, 주미사지, 수원사지, 구룡사지 등이 있으나 이 가운데 백제와당과 「西穴寺」 명기와편이 출토된 서혈사지를 제외하고는 백제시대 유적으로 확정할 만한 유물이 출토되지 않았으며, 아직 이들 유적에 대한 학술적 연구도 미흡한 실정이다.

그 외에는 서산의 보원사지, 보령 성주사지의 오합사, 연기의 비암사 등이 알려져 있을 뿐 왕도 이외의 지역에서는 백제사찰이 확인되는 사례가 많지 않다.

마애불로는 예산의 사면석불, 태안의 마애삼존불 그리고 ‘백제의 미소’로 불리는 서산의 마애삼존불이 있어 백제 불교공예의 정수를 보여주고 있다.

(4) 왕궁관련 유적 : 충남에는 웅진·사비시기의 왕도가 위치하고 있었다. 따라서 이들 지역에는 왕도 관련 각종 시설이 조성되어 있었다. 웅진시기(475~538년) 왕도였던 공주의 경우 현재 왕궁이 위치하였던 곳으로 비정되는 지역은 공산성 안의 광장이다. 이곳에서는 백제시대 건물지를 비롯해 우물지, 연못지 등이 확인되었다. 그러나 한편으로 공산성 내부는 왕궁이 위치하기에 매우 협소하기 때문에 공산성 남록에서 왕궁의 위치를 찾아야 한다는 견해도 제기되고 있어 왕궁유적을 찾기 위한 다각적인 발굴조사가 필요하다.

사비시기(538~660) 왕도였던 부여의 경우에는 공주보다 많은 유적이 남아있으며, 왕궁의 경우에도 비교적 그 위치가 분명하다. 왕궁은 부소산 남쪽에 위치하고 있었던 것으로 추정되고 있는데, 1980년대부터 연차적인 발굴조사가 이루어지고 있다. 이 과정에서 연못지, 건물지, 우물지, 도로유적, 배수시설 등이 조사되었다. 이들 유구는 모두 동일한 방향으로 배치되어 있어 백제시대 도시계획의 일면을 확인할 수 있다. 그러나 아직 왕궁의 위치를 확정지을 만한 유구는 확인되지 않아 앞으로 지속적인 조사가 필요하다. 특히 부여는 나성이 비교적 잘 남아있어 왕도의 범위 및 구조를 파악하는데 좋은 자료를 제공하고 있다.

공주와 부여의 경우 왕도관련 시설을 포함해 왕궁의 위치를 찾기 위해서는 왕도 내부 전체에 대한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조사계획을 수립하여 연차적인 발굴조사가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5) 가마터 : 가마는 크게 기와가마와 토기가마로 구분할 수 있는데, 현재 충남지역에서 조사된 대부분의 가마는 기와가마이다. 이외에 벽돌 등을 굽는 가마가 있었을 것이나 대부분 기와 등과 함께 구웠던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가마에 대한 체계적인 조사가 이루어져 있지 않아 가마의 구조와 성격에 대한 파악은 매우 미흡한 편이다.

• 기와가마 : 백제시대 기와는 왕궁과 사찰, 관아 등 많은 건물에 사용되었을 것이기 때문에 비교적 많은 유적이 존재하였을 것이다. 그러나 현재까지 확인된 유적은 그리 많은 편이 아니다. 이는 가마가 지하에 축조되어 있어 아직 발견되지 않은 경우와 각종 개발로 인해 멸실되었기 때문으로 생각된다. 지금까지 알려진 유적으로는 부여 정암리, 부여 정동리, 청양 왕진리, 부여 규암면 신리, 부여 쌍북리, 부여 현북리, 부여 용정리, 공주시 이인면 검상리 등의 유적이 있다. 그러나 정식 학술조사가 이루어진 곳은 정암리와요지에 한정되며, 대부분은 일부만이 조사되어 그 구체적인 실상은 파악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 토기가마 : 부여지역에서 토기만 구웠던 가마가 조사된 예는 없으나 기와와 함께 활용된 가마는 조사되었다. 쌍북리요지와 정암리요지의 경우 기와와 함께 일부 요지에서 토기 생산이 병행되었다. 토기가마에 대한 조사는 토기 자체의 제작방법뿐만 아니라 물자의 공급체계 등을 연구할 수 있다는 점에서 중요하다.

(6) 기타 : 기타 유적으로는 건물지, 나루터, 낙화암, 천정대 등을 비롯해 많은 수의 유물산포지가 있다. 이들 유적은 학술조사가 체계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아 그 성격을 뚜렷하게 알 수 없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제3장 백제 문화재의 관리실태 분석

1. 백제 문화재 관리실태

문화재에 대한 관리는 주로 문화재 자체에 대한 정비 및 관리, 복원, 그리고 주변정비 등의 방식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이 가운데 특히 문화재가 위치하고 있는 토지의 매입이 문화재 관리를 위한 사전단계로 제일 중요하면서 기본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문화재관리에 있어서 예산이 가장 많이 투입되는 부분이 토지매입을 위한 예산지출이기도 하다.

백제 문화재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는 1977년경부터 시작되었다고 할 수 있다. 이 시기는 신라문화권 개발사업이 일단락되는 시기이기도 하며, 이후 백제 문화권에 대한 관심이 증가되었다. 그러나 당시 백제문화권의 영역, 성격 등에 대한 구체적인 연구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단지 문화재의 정비·보수 등에 치중되었으며, 그 대상도 주로 공주·부여·익산 등에 집중되었다. 참고로 제1차 백제문화권 문화재보수 현황을 보면 다음의 [표 2]와 같다.

[표 2] 제1차 백제문화권 문화재보수 현황

구분	사업대상	공사개요	예산액	연도별 투입액(단위:천원)		
				77년도	78년도	79년도
공주	송산리고분군	토지매입, 주차장 확장, 무령왕릉 정화	180,000	-	30,000	150,000
부여	부여박물관	토지매입, 담장, 석축설치	50,000	-	50,000	-
	부소산성	삼층사 정화, 담장공사(부여박물관 주위)	170,000	-	-	170,000
	정림사지	토지매입, 발굴조사, 능산리고분군 정화	130,000	-	-	130,000
익산	미륵사지	미륵사지 및 왕궁지 토지매입, 단위문화재 정화	532,500	-	232,500	300,000
계			1,062,500	-	312,500	750,000

[표 2]에서 보는 바와 같이 초기의 문화재 정비는 주로 잘 알려진 대표적인 유적 일부에 한정되었으며, 그 내용도 주로 토지매입 및 유적의 정비에 치중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렇지만 이를 시점으로 하여 1980년대 초에 들어와 백제문화권에 대한 본격적인 개발이 시작되었으며, 그 범위는 서울지역을 비롯하여 공주·부여·익산 등 백제시대 문화재가 집중적으로 분포되어 있는 지역을 중심으

로 하였다. 그러나 86아시안게임과 88올림픽을 개최하는 과정에서 古都整備事業이라는 명분아래 서울지역에 분포하고 있는 문화재에 대한 정비가 집중적으로 이루어졌으며, 88올림픽이 끝난 이후에 와서 공주·부여를 중심으로 정비가 이루어지게 되었다.

다음은 1982년부터 2001년까지 백제 문화재의 관리에 투자된 사업비의 연도별 현황이다.

[표 3] 백제문화권 연차별 개발사업비 현황(1982~2001년)

(단위 : 천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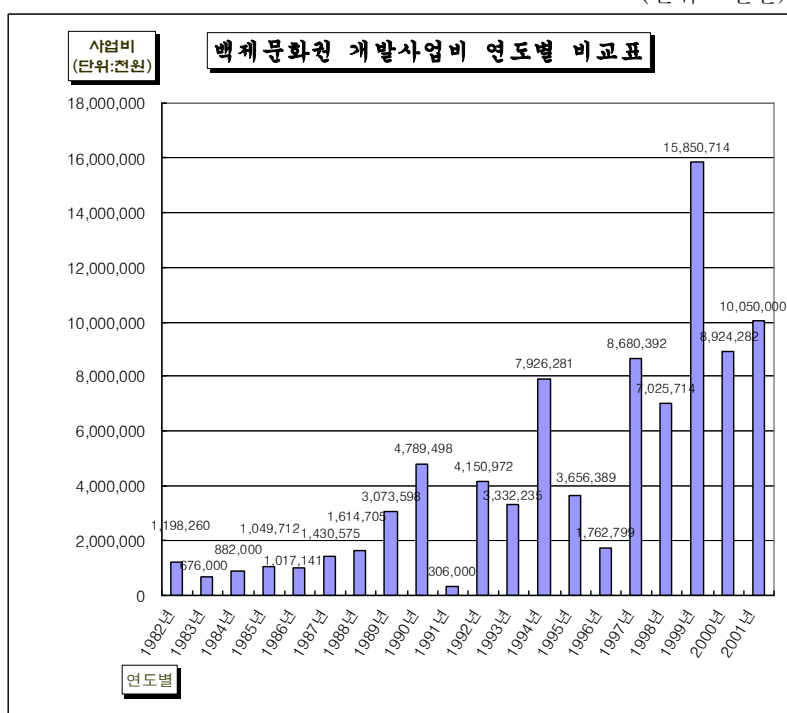
년도별	사업건수	사업비	백분율
총 계	265개사업	87,397,267	100.00%
1982년	15	1,198,260	1.37%
1983년	10	676,000	0.77%
1984년	9	882,000	1.01%
1985년	8	1,049,712	1.20%
1986년	7	1,017,141	1.16%
1987년	12	1,430,575	1.64%
1988년	7	1,614,705	1.85%
1989년	11	3,073,598	3.52%
1990년	15	4,789,498	5.48%
1991년	4	306,000	0.35%
1992년	18	4,150,972	4.75%
1993년	11	3,332,235	3.81%
1994년	17	7,926,281	9.07%
1995년	13	3,656,389	4.18%
1996년	7	1,762,799	2.02%
1997년	32	8,680,392	9.93%
1998년	12	7,025,714	8.04%
1999년	21	15,850,714	18.14%
2000년	20	8,924,282	10.21%
2001년	16	10,050,000	11.50%

앞의 [표 3]에서 보면 백제 문화재에 대한 예산은 1989년부터 본격적으로 투입되기 시작하여 불규칙적이지만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방향으로 나아갔다. 특히

1999년에는 일시에 대규모의 예산투자가 이루어지기도 하였다. 이는 백제역사재현단지의 조성과 관련이 있는 것이며, 조성사업이 완료되는 2005년까지는 지속적으로 많은 예산이 투입될 것으로 보인다. 그동안 백제문화권 사업이 투자된 예산의 연도별 증감현황을 그래프로 나타내면 [도표 1]과 같다.

[도표 1] 백제문화권 개발사업비 연도별 증감표(1982~2001년)

(단위 : 천원)



충청남도 문화재 예산의 사용내역을 보면, 백제 문화재에 투입하는 예산이 다른 시기의 문화재에 비해 많은 편이라고 할 수 있다. 이는 공주와 부여가 백제시대 일정기간 왕도로서 기능함으로서 이와 관련된 우수한 문화재가 다수 분포하고 있기 때문이다.

다음 [표 4]는 충청남도의 문화재 관련 예산 가운데 백제 문화재에 투입된 사업비를 비교한 것이다. 충청남도의 전체 중요문화재(국가지정 및 도지정) 가운데 백제 문화재의 비중은 202점 중 55점으로 27.2% 정도를 차지하고 있다. 그런데 중요문화재에 대한 본격적인 사업비가 투입되는 1980년대에는 충남 문화재예산의 50% 정도가 백제 문화재에 사용되었다. 이는 공주와 부여가 왕도였다는 역사성으로 인해 대외인식도가 높다는 점에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국보의 경

우에는 28점 가운데 18점으로 64%, 사적(사적 및 명승 포함)은 42점 가운데 25점으로 59.5%를 차지하고 있어 국가지정 문화재의 경우 백제 문화재가 차지하는 비중이 매우 높다. 특히 문화재 예산의 대부분이 투입되는 사적의 경우 백제시대 유적이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백제 문화재에 투입되는 예산이 상대적으로 많아진 것으로 보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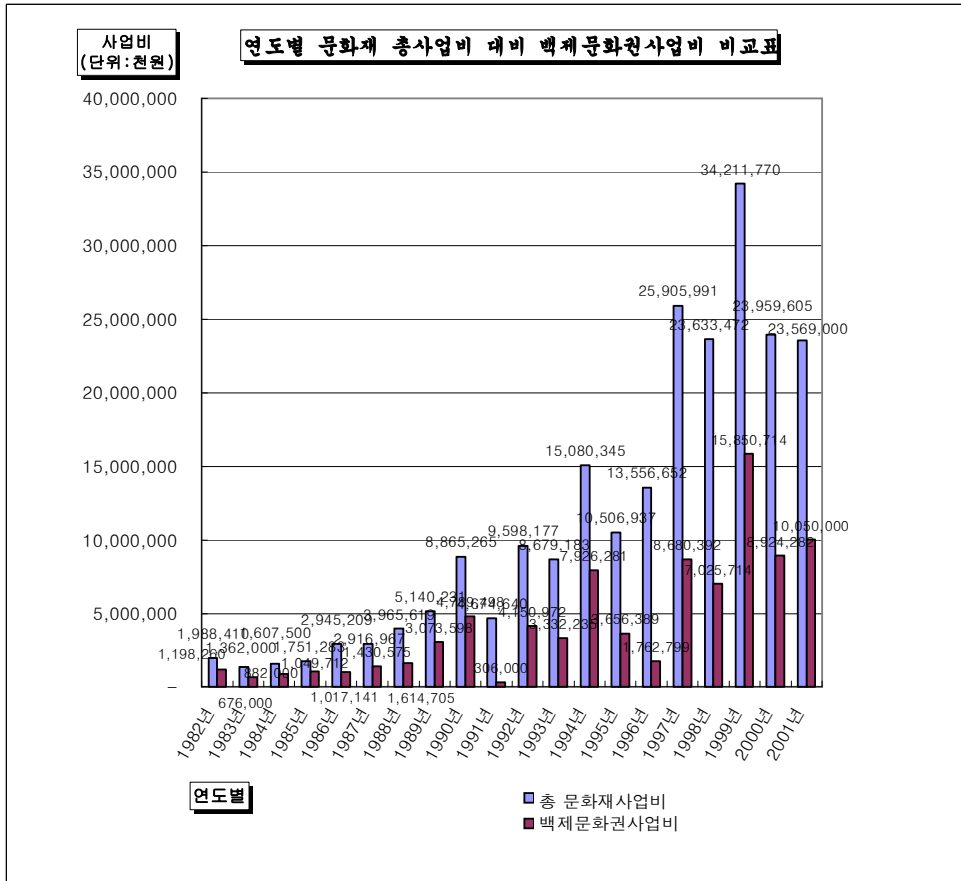
그렇지만 문화재는 그 지역의 역사와 문화를 복원하는 매체이자 정체성을 확보할 수 있는 자산이라는 점에서 특정시대에 한정하지 않고 모두 잘 보존되고 관리되어야 한다. 따라서 문화에 대한 인식이 점차 높아감에 따라 특정문화재에 대한 투자에서 벗어나 점차 대상이 다양해지고 있다. 다만, 백제문화권종합개발 계획에 의해 한시적으로 백제 문화재에 대한 투자가 증가하고 있으며, 이러한 현상은 백제문화권 개발이 종료될 때까지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표 4] 충청남도 문화재사업비 대비 백제문화권 사업비

(단위 : 천원)

년도별	총 팔 사 업		총(20년간)에 산액에 대한 백 분 율	유교유적 사업		총 사업비에 대한 백분율
	사업건수	계		사업건수	계	
총계	2221개 사업	223,918,256	100.0%	265개사업	87,397,267	39.03%
1982년	80	1,988,410	0.89%	15	1,198,260	60.26%
1983년	56	1,362,000	0.61%	10	676,000	49.63%
1984년	65	1,607,500	0.72%	9	882,000	54.87%
1985년	55	1,751,283	0.78%	8	1,049,712	59.94%
1986년	63	2,945,209	1.32%	7	1,017,141	34.54%
1987년	97	2,916,967	1.30%	12	1,430,575	49.04%
1988년	92	3,965,619	1.77%	7	1,614,705	40.72%
1989년	84	5,140,231	2.30%	11	3,073,598	59.79%
1990년	102	8,865,265	3.96%	15	4,789,498	54.03%
1991년	63	4,674,640	2.09%	4	306,000	6.55%
1992년	112	9,598,177	4.29%	18	4,150,972	43.25%
1993년	87	8,679,183	3.88%	11	3,332,235	38.39%
1994년	110	15,080,345	6.73%	17	7,926,281	52.56%
1995년	156	10,506,937	4.69%	13	3,656,389	34.80%
1996년	107	13,556,652	6.05%	7	1,762,799	13.00%
1997년	214	25,905,991	11.57%	32	8,680,392	33.51%
1998년	194	23,633,472	10.55%	12	7,025,714	29.73%
1999년	174	34,211,770	15.28%	21	15,850,714	46.33%
2000년	181	23,959,605	10.70%	20	8,924,282	37.25%
2001년	129	23,569,000	10.53%	16	10,050,000	42.64%

[도표 2] 백제문화권 사업비 비교표(1982~2001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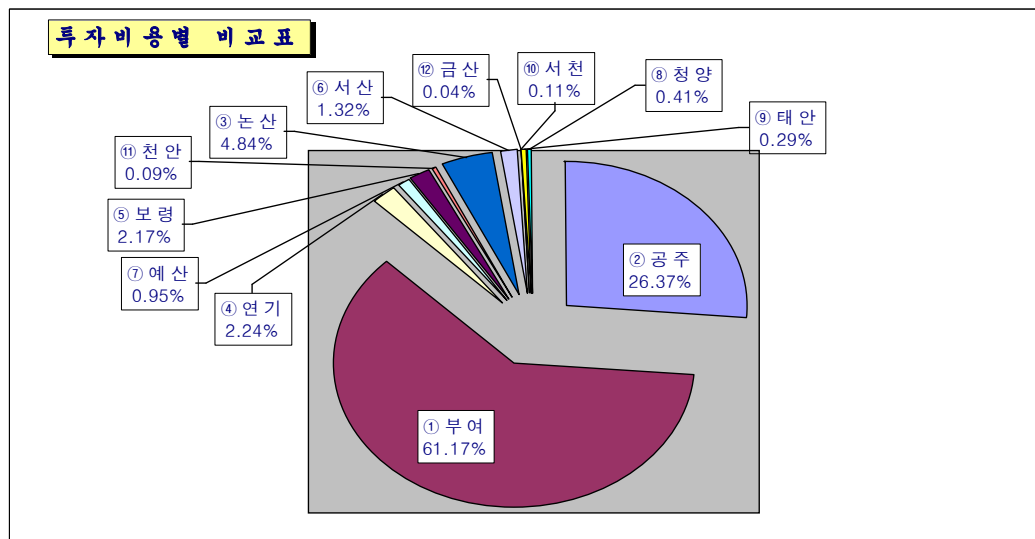


다음은 1980년대부터 2002년까지 충남지역 백제시대 문화재의 보존관리와 관련하여 투입된 경비와 내역을 통해 그 관리실태를 검토해 보기로 하겠다[부록 2]. 여기에서 분석의 대상으로 삼은 자료는 충청남도에서 파악하고 있는 개별 문화재에 대한 정비내역을 토대로 하였다. 따라서 각 시·군에서 개별적으로 유지·보수에 투입한 경비와 내용은 반영되지 않았다. 그렇지만 기존의 문화재 정비내용을 보면 주로 지정된 문화재를 중심으로 관리하고 있으며, 이 경우 국비와 도비, 시·군비가 반드시 병행하여 투입되기 때문에 문화재의 전체적인 관리실태를 파악하는 데는 큰 문제는 없을 것으로 판단된다.

[표 5] 충남지역 백제 문화재 정비 총괄표(1980~2002)

(단위 : 천원)

지역명	예산액				발굴비 (1차)	발굴비 (2차)
	계	국비	도비	군비		
합계	97,063,440	61,331,915	24,738,920	10,735,516	1,919,684	70,500
공주	25,724,329	17,215,360	6,864,009	1,644,960	816,490	70,500
부여	58,928,112	37,596,716	14,723,041	6,458,408	799,794	0
연기	2,233,000	1,091,500	585,750	555,750	0	0
예산	942,571	658,000	142,286	142,285	0	0
보령	2,162,541	1,461,700	332,422	368,420	303,400	0
천안	90,000	0	45,000	45,000	0	0
논산	4,824,249	2,012,839	1,532,135	1,279,275	0	0
서산	1,317,783	771,000	356,250	83,391	0	0
금산	36,000	0	18,000	18,000	0	0
서천	108,000	50,000	29,000	29,000	0	0
태안	285,713	187,000	49,357	49,356	0	0
청양	411,142	287,800	61,671	61,671	0	0



[표 6] 충남지역 각 시·군별 백제문화재 정비내역

<공주>

(단위 : 천원)

유적명	예산액					
	계	국비	도비	군비	발굴비 (1차)	발굴비 (2차)
14곳	25,724,329	17,215,360	6,864,009	1,644,960	476,890	70,500
공산성 (사적 12호)	11,851,554	8,634,700	3,216,854		199,960	27,500
송산리고분군 (사적 13호)	10,063,778	6,393,560	2,718,934	951,284		
무령왕릉 학술세미나	50,000		50,000			
동성왕릉지	400,000	200,000	100,000	100,000		
남혈사지 (지기 35호)	180,000	90,000	45,000	45,000	39,000	
구룡사지 (지기 39호)	821,000	410,500	205,250	205,250	63,300	43,000
대통사지	1,236,569	865,600	277,757	93,212		
반죽동 당간지주 (보물 150호)	301,428	211,000	45,214	45,214	35,630	
신관동 석실고분 (도지기 7호)	80,000	40,000	20,000	20,000		
수원사지 (도지기 36호)	180,000	90,000	45,000	45,000		
서혈사지 (지기 351호)	100,000	50,000	25,000	25,000		
주미사지 (도지기 38호)	250,000	125,000	62,500	62,500	111,000	
동혈사지	60,000	30,000	15,000	15,000		
제라회맹단지	150,000	75,000	37,500	37,500	28,000	

<부여>

(단위 : 천원)

유적명	예산액					
	계	국비	도비	군비	발굴비 (1차)	발굴비 (2차)
26곳	58,928,112	37,596,716	14,723,041	6,458,408	799,794	0
부소산성 (사적 5호)	13,345,111	9,487,967	3,680,716	176,428	54,000	

유적명	예산액					
	계	국비	도비	군비	발굴비 (1차)	발굴비 (2차)
정림사지 (사지 301호)	14,164,142	9,039,644	3,661,806	1,462,692	62,000	
능산리 고분군 (사적 14호)	1,618,741	1,239,990	378,751		19,800	
백제 고분군 (사적 14호)	249,857	207,000	42,857			
부여나성 (사적 58호)	4,988,941	3,396,298	913,198	542,355	402,316	
백제왕궁지 (사적 428호)	8,499,571	4,363,500	2,236,071	1,900,000	68,325	
구드래 일원 (사적명승 6호)	1,271,428	890,000	254,999	126,429		
화지산일원 유적 (사적 425호)	428,571	300,000	128,571			
팔충사 (비문화)	13,000		5,500	7,500		
궁남지 (사적 135호)	5,043,864	3,529,727	1,130,566	383,571	91,353	
동남리 전 이궁지	6,000		3,000	3,000		
성흥산성 (사적 4호)	611,426	428,000	149,141	34,285	32,000	
경암리 와요지 (사적 373호)	389,999	273,000	52,072	52,070		
구아리 백제유적 (도지기 88호)	1,512,000	756,000	378,000	378,000		
은산 별신제 (중무 9호)	714,600	357,300	178,650	178,650		
동남리 사지 (지기 50호)	566,000	323,000	151,500	91,500	70,000	
천왕사지 (사적 88호)	100,000	50,000	50,000			
왕흥사지 (도지기 33호)	3,540,000	1,770,000	885,000	885,000		
군수리 사지 (사적 44호)	468,571	328,000	98,143	42,428		
중정리 건물지 (도지기 54호)	210,000	105,000	52,500	52,500		
금강사지 (사적 435호)	50,000	25,000	12,500	12,500		
임강사지 (도지기 34호)	60,000	30,000	15,000	15,000		
호암사지 (도지기 32호)	50,000	25,000	12,500	12,500		
상항리 고분군 (비지정)	100,000	50,000	25,000	25,000		
능안골 고분군 (사적 420호)	920,000	616,000	227,000	77,000		
용정리 사지 (도지기 48호)	6,290	6,290				

<기타지역>

(단위 : 천원)

지역명	유적명	예 산 액				발굴비 (1차)	발굴비 (2차)
		계	국비	도비	군비		
연기	2곳	2,233,000	1,091,500	585,750	555,750	0	0
	비암사 (도지유 79호)	1,361,000	655,500	367,750	337,750		
	운주산성 (도지기79호)	872,000	436,000	218,000	218,000		
예산	2곳	942,571	658,000	142,286	142,285	0	0
	사면석불 (보물 794호)	94,000	64,000	15,000	15,000		
	임존성 (사적 90)	848,571	594,000	127,286	127,285		
보령	2곳	2,162,541	1,461,700	332,422	368,420	303,400	0
	성주사지 (사적 307호)	2,082,141	1,421,500	312,322	348,320	303,400	
	도미부인 사당 (향토유적)	80,400	40,200	20,100	20,100		
천안	1곳	90,000	0	45,000	45,000	0	0
	위례산성 (문자 262)	90,000		45,000	45,000	0	0
논산	3곳	4,824,249	2,012,839	1,532,135	1,279,275	0	0
	계백장군 유적 (도지기 74호)	4,270,000	1,660,000	1,410,000	1,200,000		
	노성산성 (사적 393호)	534,249	352,839	112,135	69,275		
	황화산성 (도지기 92)	20,000		10,000	10,000		
서산	2곳	1,317,783	771,000	356,250	83,391	0	0
	마애삼존불 (국보 84호)	42,071	25,000	8,536	8,535		
	보원사지 (보물 105호)	1,275,712	746,000	347,714	74,856		
금산	1곳	36,000	0	18,000	18,000	0	0
	장대리 고분군 (향토유적)	36,000		18,000	18,000		

지역명	유적명	예 산 액				발굴비 (1차)	발굴비 (2차)
		계	국비	도비	군비		
서천	2곳	108,000	50,000	29,000	29,000	0	0
	추정백제건물지 (비지정)	8,000		4,000	4,000		
	남산성 (도지기 96)	100,000	50,000	25,000	25,000		
태안	1곳	285,713	187,000	49,357	49,356	0	0
	태안 마애삼존불 (보물 432)	285,713	187,000	49,357	49,356	0	0
청양	1곳	411,142	287,800	61,671	61,671	0	0
	장곡사	411,142	287,800	61,671	61,671	0	0

2. 관리실태 분석

문화재의 관리는 지정주체와는 관계없이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담당하고 있다. 즉, 문화재가 위치하고 있는 각 시·군이 관리의 실질적인 주체가 된다. 따라서 문화재의 관리실태는 각 시·군별로 검토하는 것이 효율적이다. 그리고 문화재의 관리실태를 파악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으나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각 문화재에 투입된 투자비와 그 내용을 통해 파악하는 것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각각의 문화재에 대한 정비·보수에 투입된 투자비와 내용을 중심으로 검토하고, 그 시기는 문화재에 대한 투자가 본격적으로 이루어지기 시작하는 1980년부터 2002년까지로 한다. 다만 2002년은 연초에 세워진 예산내역을 통해 파악된 것으로 약간의 변동이 있을 수 있으나 큰 흐름에서 벗어나지 않으므로 함께 포함시켰다. 그리고 투입된 예산의 경우 국비를 포함해 도비, 시·군비로 구분되지만 이를 모두 합해서 검토하도록 하겠다.

1980년도부터 2002년(예정)까지 백제 문화재에 투입된 예산은 97,063,440천원이다. 백제 문화재에 투입된 예산을 각 시·군별로 보면, 부여가 61.17%로 가장 많으며, 그 다음이 공주로 26.37%, 논산이 4.84%, 연기 2.24%, 보령 2.17%, 서산 1.32%, 예산 0.95%, 청양 0.41%, 태안 0.29%, 서천 0.11%, 천안 0.09%, 금산 0.04% 등이며, 아산의 경우에는 현재까지 백제시대 문화재에 투자된 내역이 확인되지 않는다.

[표 5]를 통해 보면 백제 문화재의 보존·관리에 대한 투자가 지역적으로 매우 편중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즉, 백제시대 왕도였던 부여와 공주에 집중되어 있으며, 특히 왕도의 존속기간이 길었던 부여에 예산의 대부분이 집중되었다. 이는 현재 부여에 백제역사재현단지가 조성되고 있는 점과도 밀접한 관련이 있다.

다음은 각 시·군별 문화재의 관리현황을 단위문화재 중심으로 살펴보기로 하겠다.

1) 공주시

공주의 경우 가장 많은 예산이 투입된 문화재를 순서대로 보면, 공산성, 송산리왕릉군, 대통사지, 구룡사지, 반죽동 당간지주, 주미사지, 수원사지, 남혈사지, 제라회맹단지, 신관동 석실고분, 동혈사지 등의 순이다. 이 가운데 공산성과 송산리왕릉군에 투자된 예산이 거의 80%를 차지하고 있어 이들 2개의 유적을 중심으로 관리상황을 검토해 보기로 하겠다.

공산성은 웅진시기 왕도가 위치하였던 곳으로 지정되고 있다. 보존관리의 유형을 보면, 성곽의 보수 및 복원, 토지 및 가옥 매입, 도로정비, 건물보수, 발굴조사 등이다. 이들 내용을 보면 유적 자체의 관리에 대부분의 예산이 투자되고 있으며, 발굴조사 등 학술적인 연구에 소요된 예산은 전체의 3%를 약간 넘는 수준에 불과하다.

송산리왕릉군은 무령왕릉을 비롯해 웅진시기에 재위한 왕들의 무덤이 위치하고 있는 곳이다. 이 유적은 사적 13호로 지정되어 있다. 관리실태를 보면, 토지매입, 고분전시관 건립, 무령왕릉 보수, 무령왕릉 모형관 건립, 도로 및 유적 정비, 각종 편의시설 설치 등이며, 이 가운데 무령왕릉과 관련된 예산이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이들 2개의 유적을 제외한 다른 유적의 경우에는 대부분 토지매입과 발굴조사 등에 그치고 있으며, 지속적인 관리 및 활용계획은 전혀 이루어지고 있지 않다. 예를 들어, 구룡사지, 주미사지, 수원사지, 남혈사지, 동혈사지 등은 발굴조사가 이루어졌지만 후속 관리대책이 세워져있지 않다. 특히 이들 대부분의 사지는 발굴결과 백제시대 유적이 확인되지 않았는데, 백제시대 유적을 찾기 위한 지속적인 조사가 필요하다.

이들 이외에도 공주지역에는 많은 유적들이 확인되고 있는데, 대표적인 유적이 정지산유적이다. 정지산유적은 웅진시대 제사유적으로 추정되고 있는데, 발굴조사 후 보존조치가 취해졌으나 지속적인 관리가 이루어지고 있지 않아 유구가 훼손

손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는 중요 지정문화재를 중심으로 보존관리가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이며, 문화재 전체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대책의 부재로 인해 나타난 결과라고 하겠다.

2) 부여군

부여는 현재까지 27곳에 모두 58,928,112천원의 예산이 투입되어 충남지역 백제 문화재 정비에 투자된 전체 예산 가운데 61.17%를 차지하고 있다. 예산투자의 순위를 보면, 부소산성, 정림사지, 백제추정왕궁지, 궁남지, 부여나성, 왕흥사지, 능산리왕릉군, 구아리 백제유적, 구드래일원 등이며, 이들 9개소가 예산의 88% 정도를 차지하고 있다. 이 외에 백제역사재현단지 조성에도 연차적으로 많은 예산이 투입되고 있다.

먼저, 사적 5호인 부소산성은 부여지역에 투자된 예산 가운데 22.65%를 차지하고 있다. 관리실태를 보면, 토지 및 가옥 매입, 도로정비, 고건물 보수, 토성 보수, 각종 편의시설 설치 및 주변정비 등이다. 이 가운데 토지 및 가옥매입에 투입된 예산이 가장 많으며, 그 외에 유적의 정비에 많은 예산이 사용되었다. 그리고 상대적으로 발굴조사에 투자된 예산은 매우 적는데, 그나마 부소산성의 경우 중요 사적인 관계로 부여문화재연구소에서 자체 예산을 세워 연차발굴을 실시하고 있어 축조시기 및 구조 등이 점차 밝혀지고 있다. 또한 이를 토대로 정비·복원계획을 수립하여 체계적인 관리가 어느 정도 가능해졌다. 정림사지의 경우에도 전면발굴을 통해 유적의 성격, 구조 등을 파악한 후에 정비가 이루어졌다. 특히 정림사지의 경우 바로 옆에 불교전시관이 건립되어 유적뿐만 아니라 백제불교에 대한 종합적인 연구기능을 수행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 외에 나성, 궁남지, 추정왕궁지, 왕흥사 등 중요 사적에 대해서는 현재 연차적인 발굴조사가 이루어지고 있으며, 이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계획이 마련되고 있다.

그렇지만 이들 중요 문화재를 제외한 대부분의 유적들은 아직 체계적으로 관리되고 있지 않은 실정이다. 특히 『三國遺事』 등 문헌기록에 보이고 있는 천정대와 호암사지, 왕도방비의 최후 보루인 청마산성·청산성·증산성·당산성 등에 대해서는 정밀한 학술조사조차도 이루어져있지 않은 상태이다. 이들 유적을 포함하여 아직 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은 문화재에 대한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학술조사가 필요하다. 다행히 부여군의 경우 문화재종합정비기본계획이 수립되어 있어 장기적으로는 체계적인 보존관리를 위한 토대가 마련되었다고 할 수 있다. 그렇지만 이 계획도 중요문화재를 중심으로 정비계획이 수립된 것이므로 많은 비지

정문화재를 포함한 새롭게 조사되는 유적들에 대한 보존관리 대책이 필요하다.

3) 논산시

논산의 경우에는 계백장군 유적, 노성산성, 황화산성 등 3곳에 모두 4,824,249천원의 예산이 투입되었는데, 이 가운데 계백장군 유적에 88.5%가 투자되고 있다. 공주·부여의 경우 주로 사적을 중심으로 예산투자가 이루어지고 있는데, 논산의 경우에는 사적인 노성산성 보다는 도지정 기념물인 계백장군 유적에 보다 많은 예산이 투자되고 있어 역사적 특수성을 반영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런데 계백장군유적은 현재 묘소 1기만이 남아있기 때문에 주로 주변의 정화 및 박물관 건립 등에 대부분의 예산이 투자되고 있어 문화재의 보존관리 및 연구 등과는 직접적인 관계가 없는 부문에 많은 예산이 투입되고 있다. 계백과 관련해서는 오히려 황산벌전적지가 지닌 상징성이 매우 크다는 점과 주변으로는 모촌리산성, 산적리산성, 청동리산성, 황령산성을 비롯해 황산성 등 많은 문화재가 산재하고 있어 이에 대한 기초적인 학술조사를 통한 종합적인 관리·정비가 함께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아울러 계백관련 유적은 그 성격이 분명하게 규명되지 못한 부분이 남아 있으며, 오히려 정신사적인 측면에서의 보완이 필요하다. 따라서 하드웨어에 대한 투자와 함께 소프트웨어에 대한 투자 즉, 지속적인 학술조사 및 연구를 위한 방안이 마련될 필요가 있다. 현재 계백장군 유적지에 백제군사박물관을 신축하고 있는데, 단순한 유물의 전시에 그칠 것이 아니라 관련 유적에 대한 지속적인 연구 및 활용을 위한 기능을 확보하는 것이 더욱 중요하다.

이들 외에도 논산지역에는 귀중한 백제시대 유적이 많이 남아있음에도 불구하고 조사의 미흡 등으로 그 가치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는 유적들이 있다. 대표적인 유적이 표정리고분군과 육곡리고분군이다. 이들 고분군은 일부만이 조사되었을 뿐이며, 대부분은 아직도 훼손되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논산지역의 경우에는 문화재의 보존관리와 함께 유적에 대한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학술조사를 병행하여 실시할 필요가 있다.

4) 연기군

연기군은 충남 전체 예산의 2.24%를 차지하고 있는데, 현재까지 이들 예산은 모두 비암사와 운주산성에 투입되고 있다. 특히 비암사는 백제시대 창건되었으며, 이곳을 중심으로 통일신라시대에 백제유민들에 의해 계유명전씨아미타불삼존석상(국보 제106호), 기축명아미타여래제불보살석상(국보 제367호), 미륵보살반가

석상(보물 제368호) 등이 제작되었다. 이들 불상은 당시 이 지역 재지세력의 존재양태를 파악할 수 있는 귀중한 문화재이다. 이러한 역사성으로 인해 현재 비암사에 61%의 예산이 투입되고 있다. 투자내용은 주로 새로운 건물의 신축, 문화재 보수 등이며, 그 외에 조사 및 활용을 위한 예산은 거의 전무하다. 다만 비암사와 연기지역 향토사연구회 등에서 매년 백제대제를 지내면서 학술행사도 갖고 있어 비암사를 포함한 연기지역의 백제 역사·문화연구에 기여를 하고 있다.

운주산성의 경우 현재 부분적으로 발굴조사가 이루어졌으며, 성벽에 대한 복원작업을 진행 중에 있다. 그러나 아직 초축시기에 대해서는 확증할 만한 자료가 출토되지 않아 앞으로 복원사업과 함께 지속적인 발굴조사가 필요하다. 그리고 운주산성 이외에도 백제산성으로 알려진 이성산성·읍내리산성·진의리토성·당산성 등 많은 산성유적들이 있으나 아직 종합적인 학술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아 보존관리 및 활용계획 등을 세우는데 어려움이 예상된다.

5) 청양군

청양은 백제시대 유적으로 10개의 산성과 30여 개소의 고분군이 조사되었다. 그러나 이들 유적 가운데 국가지정문화재는 없으며, 우산성과 두릉산성 2점만이 도지정문화재로 관리되고 있다. 특히 이들 유적 가운데 발굴조사 등 학술조사가 이루어진 예가 없기 때문에 문화재적 가치나 의미 등은 아직 밝혀지고 있지 않은 실정이다. 청양은 백제 문화재 관리예산의 0.41%를 차지하고 있는데, 이 예산도 통일신라시대에 창건된 것으로 전해지는 장곡사를 중심으로 정비가 이루어져 왔다. 다만 2002년에 우산성에 대한 발굴조사가 계획되어 있어 앞으로 백제시대 문화재에 대한 보존관리가 이루어질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1986년 목면 본의리에서 반지하식 가마터가 조사되었는데, 이곳에서 복원 결과 높이 100cm, 폭 280cm의 도제불상대와 파편들이 발견되었다. 그러나 유적에 대한 정비 등의 후속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아 문화재로서의 활용가치는 반감되었다.

또한 최근 청양 장승리에서 우회도로를 개설하는 과정에서 백제시대에 조성된 수혈식석실분과 횡구식석실분 수십 기가 조사되었는데, 이를 통해 볼 때 아직 많은 백제유적이 남아있을 것으로 추정된다. 특히 두릉산성은 백제멸망기 부흥운동의 거점성으로 알려져 있다. 앞으로 지속적인 조사와 함께 확인된 문화재에 대한 체계적인 보존관리가 필요하다.

6) 서산시

서산은 1,317,783천원이 투입되어 전체 예산의 1.32%를 차지하고 있다. 서산지역은 보원사지와 마애삼존불 2곳에 대한 지속적인 정비·관리가 이루어지고 있는데, 대부분의 예산은 보원사지에 투입되고 있다. 투자내용을 보면 주로 토지매입에 한정되어 있고 전체적인 학술조사 등은 아직 이루어지고 있지 않다. 앞으로 종합적인 정비계획을 수립하여 체계적인 학술조사와 이를 토대로 한 정비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그리고 ‘백제의 미소’로 불려지고 있는 마애삼존불은 비교적 관리가 잘 이루어지고 있는 편이나 마애불이라는 특징 때문에 보존상에 어려움이 있다. 특히 암반의 풍화 및 박락 등으로 인한 훼손의 우려가 상존하고 있기 때문에 마애불 자체에 대한 보존계획이 수립되어야 하며, 이와 함께 주변지역에 대한 보존·정비계획의 수립이 필요하다. 또한 여미리에서 백제시대 토광묘를 비롯해 수혈식석곽분, 횡혈식석실분 등 다수의 고분이 발굴조사되어 백제시대 고분유적이 상당수 분포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이 외에 부산성 등 산성유적도 다수 분포하고 있으나 아직 이들 비지정문화재에 대해서는 체계적인 조사가 이루어지고 있지 않으며, 또한 계획적인 예산투자나 관리는 미흡한 실정이다.

7) 예산군

예산지역 백제문화재의 관리에 투자된 예산은 0.95%를 차지하고 있다. 예산에는 보물 1점과 사적 1개소가 위치하고 있는데, 사면석불과 임존성이다. 보존관리도 이들 문화재에 대부분 투입된 것이며, 이중 임존성에 90%가 투자되었다. 내용을 보면, 전체 투입예산 848,571천원 가운데 지표조사비 811,80천원을 제외한 767,391천원인 90% 이상이 성곽 보수에 투입되었다. 그러나 임존성의 경우 지표조사만 실시되었을 뿐 정식 발굴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아 정비 및 복원을 위한 자료가 아직 충분하게 확보되었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성급한 성곽의 복원보다는 복원자료에 대한 충분한 확보를 위한 정밀학술조사를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이를 토대로 체계적인 정비계획을 수립한 이후 복원을 진행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리고 사면석불의 경우 석재의 보존과 주변 경관에 대한 정비가 함께 이루어져야 한다.

이 외에도 예산산성을 비롯한 9개의 산성이 확인되고 있으며, 만사리고분군 등 9개소에서 고분이 확인되었다. 그러나 이들 대부분의 유적은 그 위치 및 성격만 확인되었을 뿐 정밀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아 구체적인 현황과 고고학적 의의 등

에 대해서는 알 수 없으며, 또한 보존관리를 위한 별도의 계획도 없다.

8) 태안군

태안은 백제시대 문화재로 알려진 유적이 적은 편인데, 이 가운데 대표적인 문화재인 마애삼존불에 대한 보존관리만이 이루어지고 있는 형편이다. 현재까지 투입된 예산은 285,713천원으로 0.29%를 차지하고 있다. 관리내용은 보호각 개축 및 주변정비에 그치고 있다. 그런데 마애불의 경우 암벽 자체의 풍화에 의한 훼손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암벽의 풍화를 방지하기 위한 보존대책이 필요하다.

그리고 축성시기가 백제시대까지 소급될 수 있는 백화산성에 대한 지표조사가 2002년에 처음 이루어졌으며, 앞으로 지속적인 예산투자가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된다. 다만 이들 외에도 산성 2개소 및 고분군 8개소가 확인되었으나 이들에 대한 보존관리는 이루어지고 있지 않다.

9) 보령시

보령시는 성주사지와 도미부인 사당 2곳에 대한 정비가 이루어지고 있다. 예산은 2,162,541천원으로 2.17%를 차지한다. 이 가운데 백제시대 초창되었으며, 통일신라시대 선문 9산의 하나였던 성주사지에 대부분의 예산이 투입되었다. 사업내용을 보면 토지와 가옥의 매입에 대부분의 예산이 소요되었고, 그 외에 가옥철거, 발굴조사, 석조물 보수 등이다. 성주사지는 전체적인 발굴조사를 통해 그 구조 등이 어느 정도 밝혀졌으며, 그 결과를 토대로 정비가 이루어졌다. 따라서 문화재를 체계적으로 관리함에 있어 모범적인 사례 가운데 하나라고 할 수 있다. 다만, 정비과정에서 전문가의 자문을 제대로 수용하지 않아 조사결과가 정비에 그대로 반영되지 않았다는 문제점이 지적되고 있다. 그리고 사역 중심지만 조사·정비되었기 때문에 사역 확인을 위한 추가 발굴조사 및 주변정비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아울러 인근에 전시관을 세워 출토유물에 대한 전시와 연구 및 사회교육을 담당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

도미부인 사당은 전설을 토대로 정비한 것으로 상징적 의미 이외에는 문화재적인 의의는 없다는 점에서 일정한 한계를 수반하고 있다. 그렇지만 문화는 물질문화 뿐만 아니라 정신문화까지 포함하고 있다는 점에서 효율적인 활용방안이 마련될 필요가 있다.

10) 서천군

서천군에는 108,000천원의 예산이 투입되어 0.11%를 차지하고 있다. 문화재로는 추정백제건물지와 남산성에 대해서만 예산투자가 이루어졌다. 그 내용을 보면, 추정백제건물지의 경우 1985년에 발굴조사가 이루어졌으며, 남산성은 2000년도에 발굴조사를 실시하였다. 추정백제건물지는 발굴조사만 실시되었을 뿐 비지정문화재로 남아 있으며, 이후 관리방안이 마련되어 있지 않은 상황이다. 남산성은 발굴조사 후 아직 종합적인 정비계획이 마련되고 있지 않다. 이 외에도 8개소의 산성과 27개소의 고분군, 1개소의 와요지가 확인되고 있는데, 이들에 대한 별도의 관리방안도 없다.

11) 천안시

천안지역은 初都地로 알려진 위례산성이 위치하고 있는 등 충남에서 가장 일찍 백제의 영역에 포함된 지역이다. 따라서 백제의 초기문화에 해당하는 원삼국시대 문화가 잘 남아있는 지역 가운데 하나이다. 천안은 각종 개발과정에서 많은 유적들이 조사되었으며, 그 학술적 가치도 매우 높게 평가되고 있다. 그러나 아직 이들 유적에 대한 체계적인 보존관리가 이루어지고 있지 않다. 백제시대 유적으로 확인된 것으로는 15개소의 산성과 15개소의 고분군이 있는데, 이 가운데 위례산성을 비롯해 사산성, 백석동토성 등에 대한 학술조사가 이루어진 것이 고작이다. 현재 천안지역은 각종 대규모 개발사업으로 인해 매장문화재에 대한 조사가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으며, 이 과정에서 백제시대 문화재의 조사 사례도 증가하고 있다. 따라서 각종 개발사업과 관련된 문화재의 보존계획이 수립될 필요가 있으며, 이와 함께 기존에 확인된 유적들에 대한 체계적인 조사와 보존관리, 활용계획 등이 수립되어야 한다.

12) 금산군

금산지역은 삼국시대 지리적인 위치로 인해 백제 유적과 신라 유적이 함께 존재하고 있다. 이들 유적 가운데 장대리고분에 대한 발굴조사에 36,000천원이 투입되었지만 신라고분으로 확인되었다. 그 외에 구제발굴이 다수 이루어져 백제시대 문화재가 확인되었으나 개발과정에서 조사되었기 때문에 조사후 대부분 없어졌다. 따라서 현재 발굴된 백제시대 유적 가운데 보존된 백제시대 유적은 없다. 다만 산성 등 유형문화재의 경우 체계적인 조사 및 보존관리 계획이 마련 중에 있는데, 예를 들면 백령산성에 대한 복원을 위한 정밀지표조사 및 시굴조사계획

등이 그것이다. 그러나 아직 가시적인 성과는 없는 실정이다.

13) 기타지역

이들 지역 이외에 홍성·아산·당진 등은 중요문화재로 지정된 백제시대 문화재가 없어 그에 대한 투자 역시 없는 실정이다. 다만 이들 지역에서도 개발과정에서 구제발굴을 통해 백제시대의 매장유적은 확인되고 있지만 조사 후에 대부분 사라지고 있는 형편이다. 또한 지표조사 상에서 백제시대로 추정되는 산성 및 고분유적들이 다수 확인되고 있지만 아직 이에 대한 학술조사나 정비계획 등은 수립되고 있지 않다.

이제까지 문화재관리에 투입된 예산을 토대로 충남지역 백제 문화재의 관리실태를 살펴보았다. 그 결과 백제 문화재의 관리는 지역별·유적별 편차가 매우 큰 것으로 확인되었다. 결과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백제 문화재의 관리에 있어 지역적 편차가 매우 심하다는 점이다. 백제 문화재의 관리는 주로 백제시대 왕도가 위치하였던 공주와 부여를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특히 왕도로서의 존속기간이 길었던 부여에 예산의 대부분인 61.17%가 집중적으로 투자되고 있다.

둘째, 보존관리의 대상은 주로 국가지정문화재이며, 그 가운데서도 사적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그 외에 도지정문화재의 일부, 기타 특색있는 문화재의 극히 일부만이 정책적인 차원에서 예산투자가 이루어지고 있다.

셋째, 문화재 관리의 내용을 보면, 대부분 토지매입 및 복원, 주변정비, 건물복원 등이며, 유적의 정비에 필요한 기초자료의 수집이나 역사·문화적 성격과 의의 등을 구명하기 위한 지속적인 발굴조사 및 학술조사 등은 매우 미흡하다는 사실이다.

끝으로 유물산포지를 비롯한 미발굴 고분군 등 아직 문화재의 성격이 구명되지 않은 유적 등에 대해서는 보존 및 관리대책이 전혀 수립되어 있지 않다는 점이다. 이들 유물산포지 및 고분군의 경우 발굴조사 등이 이루어진다면 그 문화재적 가치가 재조명될 수 있는 여지가 얼마든지 있다는 점을 감안할 때 이들 유적에 대한 체계적인 발굴조사 및 관리대책이 수립될 필요가 있다.

따라서 충남지역 백제 문화재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는 앞에서 도출된 결과를 고려하여 종합적인 보존관리 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

3. 체계적 보존관리방안

1) 문화재정책 측면

문화재는 한번 훼손되면 다시는 복원할 수 없다는 점 때문에 문화재의 보호 및 보존을 위해 많은 정책적 대안이 제시되고 있다. 최근 문화재 보존정책의 중요성은 크게 4가지 측면에서 논의되고 있는 것 같다. 첫째는 전통문화, 문화재 및 문화적 유산의 보존과 개발을 통한 민족의 정체성 확보, 둘째는 국가가 보존·개발할 가치가 있는 공공재로서의 문화재의 관리와 운영을 통한 문화적 이익 및 가치 증대, 셋째는 문화재 향수 및 교육기회의 제공을 통한 문화적 욕구의 충족을 통한 문화복지의 실현, 넷째는 문화재는 국부 창출을 위한 창의성의 원천이라는 점 등이다.¹²⁾ 따라서 문화재 정책은 단지 문화재의 보호·보존만이 아니라 공공의 유산이라는 측면에서 접근하여야 한다.

이러한 논리는 충남의 백제 문화재에도 그대로 적용되는 문제이기도 하다. 특히 충남지역의 백제 문화재는 다른 지역에는 없는 독점적 위치를 지니고 있어 충남의 정체성을 확보하고 문화적 특성을 부각시킬 수 있는 훌륭한 자산이다. 따라서 충남의 백제 문화재를 체계적으로 보존관리하는 것은 충남의 정체성을 확립하고 문화적 위상을 높일 수 있는 한 방법이 된다고 할 수 있다.

충남지역에 분포하고 있는 백제시대 문화재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는 1977년부터 시작되었다고 할 수 있다. 그 동안 산발적으로 시행하였던 문화재 보수사업을 지역의 문화권으로 묶고, 주제별로 정리하여 계획적인 개발을 진행하게 되었다. 개발방향은 10개의 주제로 나누었는데, 호국위인유적·충효선현유적·중요국방유적·중요문화권·중요사적지·중요지정문화재·중요민속자료·천연기념물·고궁과 능원, 지방지정문화재 및 기타 향토자료 등이다. 충남지역의 백제 문화재는 백제문화권으로 묶어 경주문화권, 제주문화권, 가야문화권과 같이 편성하여 집중적인 투자의 여건이 마련되었다.

80년대에 들어와 문화재 정비방향은 단위 문화재의 보존관리에 그치지 않고 주변의 환경까지도 포함하여 정비하는 쪽으로 이행하였다.¹³⁾ 이것은 點의 문화재

12) 임승빈, 「문화재 보존관리 체계 개선방안」, 21세기 문화재 정책의 전망과 과제 학술세미나요지문, 한국행정연구원, 2002. 8. 29, 47~48쪽.

13) 세계 각국 문화유산의 보호와 보존에는 두 가지의 주요한 단계가 있다. 첫 단계는 정보의 수집을 통해 관련 유적과 지역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적절하게 기록하기 위한 것이다. 두 번째는 그러한 유적과 지역이 효과적으로 보호될 수 있도록 적절한 대책을 수립하는 것이다.(김승욱, 「문화유산의 보호와 보존-외국사례」, 『호남의 문화유산,

관리에서 面의 문화재 관리로 전환하는 계기가 되었으며, 단일 문화재에서 광역의 문화환경을 보존하는 적극적인 발전을 의미한다. 따라서 80년대 이후에는 하나의 구역을 묶어 정비하고자 하는 체계적인 계획을 수립하게 되었다.¹⁴⁾

충남지역 백제 문화재의 경우에도 이러한 방향에서 관리가 이루어져 왔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아직까지 지방차원에서 문화재에 대한 종합적인 관리방안은 마련되고 있지 않은 실정이며, 문화재청에서 수립한 문화재 정책에 따라 관리가 이루어지고 있는 현실이다. 현재 문화재청에서 수립한 『문화재 보존관리 중장기 계획』(문화재청, 2000)에 따르면 21세기 문화재 정책의 기본방향을 다음과 같이 정하고 있다.

구 분	정 책 방 향
정책 대상 측면	① 지정문화재 위주에서 비지정문화재까지 포함한 문화재 전체로 ② 발굴된 문화재 위주에서 미확인된 문화재까지 포함한 문화재 전체로 ③ 국내 문화재 위주에서 한민족공동체 문화재 전체로 ④ 문화유산 위주에서 문화유산과 자연유산 전체로 ⑤ 전통문화유산 위주에서 전통문화유산과 근현대문화유산 전체로
정책 기능 측면	① 현상보존 위주에서 체계적·예방적 보존으로 ② 보존 위주에서 보존과 활용의 조화로
정책 방법 측면	① 점 단위의 개별적 보존에서 면 단위의 포괄적 보존으로 ② 소극적 보존에서 개발과 보존의 조화를 꾀하는 적극적 보존으로 ③ 규제 위주의 강제적 보존에서 규제와 인센티브의 조화를 통한 자발적 보존으로 ④ 분산적 보존에서 정보화를 통한 통합적 보존으로 ⑤ 정부 중심에서 정부, 자치단체, 민간 협력으로

앞의 표에서 알 수 있듯이 중앙의 문화재 정책과 지방의 문화재 정책은 기본 원칙에서는 차이가 없다고 할 수 있다. 또한 중앙의 문화재 정책은 특정 시대의 문화재에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전시대의 문화재를 포괄하고 있다. 따라서 문화재 정책은 어느 한 시대의 문화재만을 위한 정책이라기 보다는 모든 문화재에 일반적으로 적용될 수 있는 내용이다. 그렇지만 실제 적용면에 있어서는 각 지역의 역사적 환경과 현실적 여건에 있어서 많은 차이점을 지니고 있어 지역 실정

그 보존과 활용』, 학연문화사, 1999, 132쪽)
14) 이강승, 「백제문화권 개발의 현황과 과제」, 『열린충남』 제3권 제4호, 1997, 14~15쪽.

이나 특정 시대의 문화재에 맞는 정책의 수립이 필요하다.

그런데 문화재청의 문화재 정책은 세계 각지에 존재하는 韓民族文化財 모든 것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 결과적으로 그 범위가 매우 광범위할 뿐만 아니라 내용도 일반적인 범주를 벗어날 수 없다. 따라서 충남지역에 분포하는 백제 문화재의 경우 문화재청의 기본방향을 토대로 지역의 실정에 맞는 효율적인 정책의 수립이 필요하다. 이는 충남지역 백제 문화재라는 시간상·공간상 특수성을 고려할 필요가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측면에서 볼 때 정책대상 측면에서는 ①·②, 정책기능 측면은 ①·②, 정책방법 측면은 ①·②·③·④·⑤의 항목이 백제 문화재의 관리정책과 관련하여 고려될 수 있을 것이며, 여기에 정책대상 측면에 ‘지역적 정체성을 살릴 수 있는 문화재’에 대한 항목과 ‘유형문화재 중심에서 무형문화재까지 포함’ 한다는 항목을, 정책방법 측면에 ‘백제의 고도인 공주와 부여는 고도특별관리지구로 지정하여 보존’한다는 항목을 추가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따라서 백제 문화재 정책에 있어 기본방향은 다음과 같이 정할 수 있다.

구 분	정 책 방 향
정책 대상 측면	① 지정문화재 위주에서 비지정문화재까지 포함한 문화재 전체로 ② 발굴된 문화재 위주에서 미확인된 문화재까지 포함한 문화재 전체로 ③ 유형문화재 중심에서 무형문화재까지 포함하여 ④ 지역적 정체성을 살릴 수 있는 문화재로
정책 기능 측면	① 현상보존 위주에서 체계적·예방적 보존으로 ② 보존 위주에서 보존과 활용의 조화로
정책 방법 측면	① 점 단위의 개별적 보존에서 면 단위의 포괄적 보존으로 ② 소극적 보존에서 개발과 보존의 조화를 꾀하는 적극적 보존으로 ③ 규제 위주의 강제적 보존에서 규제와 인센티브의 조화를 통한 자발적 보존으로 ④ 분산적 보존에서 정보화를 통한 통합적 보존으로 ⑤ 백제의 고도인 공주와 부여는 고도특별관리지구로 지정하여 보존 ⑥ 정부 중심에서 정부, 자치단체, 민간 협력으로

이제까지 충남지역의 백제시대 문화재에 대한 관리는 지정문화재를 중심으로 이루어져 왔으며, 특히 공주·부여지역에 집중되었다. 따라서 상대적으로 비지정 및 타 지역의 문화재에 대한 보존관리가 소홀하였으며, 그로 인해 백제시대 역사·문화상을 밝히고, 지역사 연구에 필요한 많은 자료들이 훼손되거나 방치되는 경우가 있다. 이러한 현상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체계적인 보존관리정책의 수립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현재 충남지역 백제 문화재의 관리실태를 토대로 그 문제점을 파악하여 개선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2) 문화재관리 측면

(1) 관리상의 문제점

앞에서 충남의 문화재 사업에 투입된 예산과 그 내용을 중심으로 백제 문화재의 관리실태를 분석하였다. 분석대상은 1982년부터 2002년까지 예산이 투입된 문화재를 중심으로 하였으며, 이를 토대로 도출된 관리상의 문제점은 다음과 같다.

① 백제 문화재의 관리에 있어서 예산의 지역편중이 매우 크다는 점이다. 예산의 대부분이 매년 공주와 부여에 집중되고 있으며, 특히 부여에 대한 투자가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② 백제 문화재의 관리가 유형별로는 지역과 관계없이 주로 사적(공산성, 부소산성 등) 위주로 이루어지고 있다.

③ 내용별로는 정비·복원, 토지·건축물 매입, 부대시설 건립, 발굴조사 등의 순이며, 기초자료 확보를 위한 조사·연구에 투자되는 예산이 매우 적다. 그 결과 정확한 정비·복원에 어려움이 있다.

④ 중요 문화재 일부를 제외한 대부분의 문화재가 보존관리를 위한 종합적인 정비계획 없이 투자가 이루어지고 있다. 그로 인해 중복된 예산투입으로 인한 낭비가 초래되고, 정비 후에도 그 효용성을 극대화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다.

⑤ 유물산포지 등 비지정문화재 및 매장문화재 등에 대한 사전 및 사후관리에 투입되는 예산이 부족하여 문화재의 훼손이 발생한다.

⑥ 백제 古都인 공주·부여의 체계적 보존관리를 위한 계획이 수립되어 있지 않다. 비록 “충남古都 옛모습 되살리기” 사업이 진행되고는 있으나 백제 문화재에 한정된 것이 아니며, 또한 도시 전체를 대상으로 한 것이 아니라 부분적인 계획에 그치고 있다. 따라서 공주와 부여가 古都의 모습을 간직하지 못한 채 무계획적인 개발로 인해 역사성을 상실해 가고 있다.

이와 같은 결론은 현재 이루어지고 있는 백제 문화재의 관리실태를 통해 파악된 내용들이다. 따라서 충남지역 백제 문화재의 체계적인 관리를 위해서는 이러한 점들을 고려한 보존관리계획의 수립이 필요하다.

(2) 문화재 관리정책의 방향

① 특정지역 중심에서 벗어나 주변지역과 연계된 계획 수립

백제 문화재의 보존관리는 주로 공주·부여에 분포하고 있는 중요 문화재를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이는 왕도가 정치·경제·문화의 중심지였기 때문에 이들 지역을 중심으로 많은 문화재들이 남아 있다는 점에 기인한다. 그러나 한 시대의 역사와 문화는 왕도뿐만 아니라 주변지역과의 유기적인 관계 속에서 형성된다. 예를 들면, 불교문화는 부여를 중심으로 예산·서산·태안 등을 권역으로 할 수 있으며, 관방체계는 왕도의 방비를 담당했던 주변 산성, 그리고 국경지대였던 천안, 논산 등의 산성과의 연계 등을 통해 이해할 수 있다. 이들 문화재가 비록 중요도 면에서는 떨어지더라도 각 지방에 산재하고 있는 문화재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는 보존관리대책을 상호 연계시켜 수립할 필요가 있다.

현재 진행되고 있는 백제문화권 종합정비사업의 경우 공주·부여가 중심이며, 문화재의 정비·보수도 이들 지역에 위치하고 있는 유적·유물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이러한 현상은 결국 지방에 잔존하고 있는 문화재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를 어렵게 하며, 결국 지방의 특징적인 문화재의 훼손을 초래할 수밖에 없다. 따라서 충남지역에 산재하고 있는 백제 문화재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서는 공주·부여 중심의 관리정책에서 탈피하여 전체적인 측면에서 관리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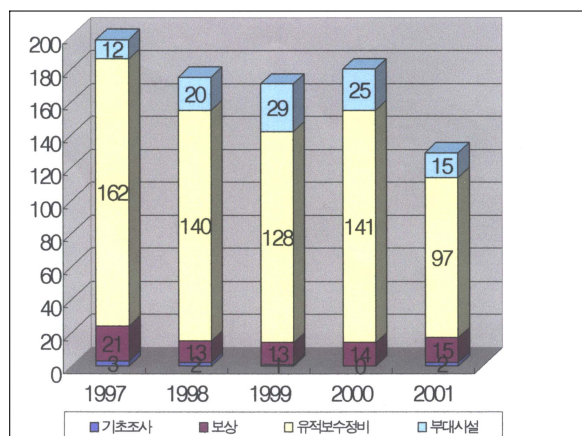
② 기초자료 확보를 위한 종합적인 학술조사 실시

현재 문화재의 관리에 투입되는 예산을 내용별로 살펴보면 정비·복원, 토지·건축물 매입, 부대시설 건립, 발굴조사 등의 순이다. 즉, 대부분의 예산이 경직성 경비에 투입되고 있다. 그렇지만 문화재의 체계적인 관리를 위해서는 문화재 자체에 대한 종합적인 학술조사가 선행되어야 한다. 이는 해당 문화재의 성격이나 역사성 등이 정확하게 파악되어야만 그에 대한 효율적인 관리방안이 도출될 수 있기 때문이다.

현재 충남지역 백제 문화재의 관리실태를 보면, 대부분의 경우 현상을 유지하고 보존하는데 주안점이 두어져 있다. 참고로 1997년부터 2001까지 5년간 충청남도의 문화재 정비에 투자된 전체예산 가운데 문화재 조사에 소요된 비용을 보면 아래의 그래프와 같다. 즉, 예산의 대부분이 유적의 보수정비에 투자되고 있으며, 기초조사에는 극히 일부만이 사용되었음을 알 수 있다. 이는 비록 전체 문화재에

투입된 예산을 대상으로 작성한 것이지만 백제 문화재의 경우에도 이러한 상황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다. 따라서 일부 문화재를 제외한 대부분의 경우 당시의 역사·문화상을 복원하기 위한 연구자료로 활용하는데 어려움이 있다. 그렇지만 문헌자료가 극히 적은 백제시대의 경우 당시에 남겨진 문화유산의 중요성은 더욱 크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이들 문화재에 대한 보존관리와 함께 학술적인 연구가 반드시 병행되어야 한다. 문화재에 대한 종합적인 연구는 당시의 역사·문화상을 밝히는 작업일 뿐만 아니라 문화재의 특성을 파악함으로써 대상 문화재의 성격에 맞도록 보존 또는 복원하는데 필요한 기초자료를 제공해 주고, 이를 통해 문화재의 정비·복원이 정확하게 이루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 매우 중요하다. 성곽의 경우 지정은 되어 있으나 아직 기초적인 조사조차도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가 대부분이며, 그로 인해 기존에 알려진 것과 조사결과가 전혀 다르게 나타나는 경우도 있다. 따라서 문화재의 정비를 위해서는 사전에 충분한 기초자료의 확보를 위한 종합적인 학술조사 계획이 수립되어야 한다.

[도표 3] 충청남도 문화재정비 투자비(1997~2001)



③ 종합적인 정비계획 수립

문화재의 일회적인 보존관리에서 탈피하여 지속적인 관리가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해서는 종합적인 정비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현재 문화재종합정비 기본계획이 수립된 지역은 부여군이 유일하며, 서산시가 계획을 수립 중에 있다. 이외에 단위 유적별 정비계획이 수립된 문화재로는 부여의 정암리와요지, 논산의 계백장군유적전승지, 부소산성 등이 있으며, 그 이외에는 종합적인 기본계획 없이

예산의 확보여부에 따라 수시로 정비가 이루어지고 있는 실정이다. 그 결과 예산의 비효율적 투자 또는 잘못된 정비·복원이 이루어지거나 정비 후에도 그 효용성이 반감되는 경우가 있다.

④ 사전·사후관리체계 마련

문화재의 원형을 훼손하지 않기 위해서는 사전관리 및 사후관리 체계가 마련되어야 한다. 문화재는 한번 훼손되면 원상대로 복구하는 것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훼손을 사전에 방지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문화재에 대한 관리가 예방적 차원에서 이루어져야 하며, 또한 정비 후에도 철저한 사후관리가 필요하다. 문화재의 훼손은 화재, 도난을 비롯해 도괴 등으로 인하여 수시로 발생하고 있다. 일례로 무령왕릉의 경우 사전관리의 부실로 인해 누수 등이 진행되었으며, 그 결과 영구폐쇄 조치가 내려지기도 하였다. 정지산 백제유적의 경우에는 발굴조사 후 그 중요성으로 인해 보존되고 있으나 사후관리가 미흡하게 이루어지고 있어 유구뿐만 아니라 주변환경이 훼손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사례는 이미 중요 문화재로 지정되어 관리되고 있는 상당수의 문화재에서도 나타나고 있으며, 특히 개발과정에서 발굴된 유적의 경우에는 대부분 훼손되거나 보존조치가 내려진 경우에도 사후관리상에 많은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다.

⑤ 비지정문화재에 대한 관리체계 수립

백제시대 문화재의 경우 대부분 지정된 문화재 중심으로 관리가 이루어지고 있으나 비지정문화재에 대한 관리도 병행하여 이루어져야 한다. 이는 아직 지정되지는 않았지만 학술적으로 중요한 문화재가 있으며, 비지정문화재의 경우 지정문화재보다 훼손이 심각하게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매장문화재에 대한 관리가 체계적으로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예를 들어 부여 염창리에서 조사된 백제시대 고분군인 염창리 고분군의 경우 도로개설 과정에서 조사되어 보존조치가 취해졌으나 관리의 부실로 인해 심하게 훼손된 사례가 있으며, 공주 정지산유적의 경우도 마찬가지이다. 이와 같이 매장문화재의 경우 조사 후 관리상의 부실로 인해 훼손이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으며, 비지정문화재의 경우 그 정도가 특히 심하다고 할 수 있다. 이외에 유물산포지의 경우 그 지역에 대한 대규모의 개발이 이루어지지 않게 되면 발굴조사 등의 기회가 주어지지 않기 때문에 유적의 성격이나 잔존현황 등을 파악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소규모의 각종 개발이나 경작 등으로 인해 滅失되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비지정문화재를 비롯한 유물산포지

등에 대한 관리를 위한 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 이러한 일은 개인이나 민간기구에서 수행하기 어렵기 때문에 관련 공공기관에서 위탁관리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할 필요가 있다.

⑥ 왕도지구 특별관리계획 수립

충남에는 다른 지역에 없는 고유한 문화재가 있는데 그것이 바로 백제시대 왕도관련 문화재이다. 이들 문화재는 충남의 정체성을 살리고, 문화관광자원으로 활용하는데 있어서 가장 경쟁력을 지닌 문화자원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런데 현재 공주·부여지역에 산재되어 있는 문화재는 전체적인 차원에서 관리가 이루어지고 있을 뿐 古都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별도의 계획이 수립되어 있지 않다. 그 결과 古都에 위치하고 있는 문화재도 다른 지역의 문화재와 마찬가지로 단위 문화재별 보존관리가 이루어지고 있으며, 주변경관 또는 古都 자체에 대한 관리는 거의 이루어지고 있지 못하다. 현재 공주나 부여지역을 보면 古都로서의 이미지를 전혀 느낄 수 없는 지경에 와 있다. 이러한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지금부터라도 공주와 부여에 대한 별도의 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현재 “충남 古都 옛모습 되살리기” 사업¹⁵⁾이 진행되고는 있으나 특정 문화재, 또는 특정구역에 한정하여 실시되고 있으며, 古都環境에 대한 보존관리계획에까지는 이르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공주와 부여의 왕도지구에 대해서는 별도의 보존관리계획이 수립되어야 한다.

⑦ 연구시설 및 연구인력 확보

현재 백제문화재의 체계적인 관리와 활용을 위해 많은 사업들이 진행되고 있다. 대표적인 사업으로는 백제역사재현단지 조성사업을 들 수 있으며, 그 외에 백제의 집, 백제군사박물관, 정림사지전시관, 능안골 고분전시관 등 각종 시설물의 조성이 그것이다. 그러나 이들 계획은 문화유산의 활용이라는 측면에서 문화관광 활성화를 위한 관련 시설물인 대부분 하드웨어적인 전시관·박물관 등의 건축에 초점이 맞춰져있을 뿐 그 내부를 채울 소프트웨어에 대한 구체적 계획이나 해당 문화재 또는 유적에 대한 기초조사 및 연구 등의 기능은 매우 미약한 실정이다. 따라서 이들 사업의 완성도를 높이고 소프트웨어의 지속적인 연구개발을 위해서는 전시자료의 확보 및 연구기능의 강화가 이루어져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연구시설 및 인력의 확보가 선결되어야 한다.

15) 충청남도, 『충남 古都 옛모습 되살리기』, 2001, 185~226쪽.

제4장 백제 문화재의 활용방안

1. 백제 역사·문화 복원을 위한 자료

백제사는 문헌기록이 매우 소략할 뿐만 아니라 남아있는 자료의 경우에도 자료의 신빙성 문제로 인하여 백제의 역사와 문화를 복원하는데 많은 한계를 지니고 있다. 따라서 역사시대임에도 불구하고 백제사의 올바른 구명과 복원을 위해서는 남아있는 유적·유물에 대한 연구와 함께 새로운 자료의 발굴이 필요하다. 그러나 기존의 문화재정책은 문화재의 관리·정비에 초점이 맞춰져 있으며, 기초조사 및 연구 등은 소홀히 하였을 뿐만 아니라 그 필요성조차도 거의 논의되지 않았다.

현재 백제사 연구에 있어서 기본적인 자료는 크게 2유형으로 나누어볼 수 있다. 첫째는 문헌자료인데, 『삼국사기』·『삼국유사』, 중국정사에 수록된 백제관계 기록, 금석문 등이 있다. 둘째는 유적·유물이다. 유적·유물은 대부분 발굴조사를 통해 확인되는데, 발굴조사의 과정을 거쳐야만 학술적인 자료로 사용할 수 있다. 그런데 문헌자료의 경우 기존에 알려진 사료 이외에 새로운 자료가 발견될 여지는 거의 없다고 하겠다. 그렇지만 유적·유물의 경우 지속적인 발굴조사가 이루어지면서 새로운 자료가 계속 축적되고 있다.

또한 금석문은 발굴조사를 통해 확인되는 경우가 많다. 예를 들면, 지석을 비롯해 목간, 명문와, 명문전 등은 기록자료이지만 대부분 발굴을 통해 나타난 자료라는 점에서 백제사를 연구하는데 있어 문화재의 중요성은 매우 높다고 하겠다.

충남지역 문화재 가운데 백제의 역사와 문화를 복원하기 위한 자료로 활용이 가능한 것은 발굴조사를 통해 그 성격이 밝혀진 경우에 한정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따라서 문화유적은 계획적이고 체계적인 발굴조사가 전제되지 않는 정비·복원은 문화재의 활용에 있어 한계를 지닐 수밖에 없다. 이는 백제시대 문화재의 경우에도 예외가 아니다.

다음은 각 유적과 유물이 지닌 특성과 성격을 통해 백제의 역사와 문화를 복원하는데 어떻게 활용될 수 있는가에 대하여 살펴보기로 하겠다. 이를 위해서는 유적을 특성별로 분류하여 검토하는 것이 필요하다. 예를 들면, 유적의 경우 도성유적, 성곽, 사찰지, 고분, 주거지 등의 분류에 의한 검토, 유물의 경우 금석문, 목간, 토기, 불상, 마구류, 금속공예품, 기와류 등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 이러한 분류를 통해 백제의 역사·문화상을 복원하는 방안을 생각해 보기로 한다.

1) 유적을 통한 백제 역사·문화 연구

(1) 도성유적

충남지역 도성유적으로는 공산성과 부소산성, 나성이 있다. 이들 도성유적은 백제의 천도를 실증적으로 보여주는 대표적인 유적이며, 또한 다른 유적에 비해 축조 규모가 크고 그 중요성이 높다는 점에서 당시의 건축문화를 이해하는 척도가 된다. 따라서 도성유적에 대한 조사를 통해 시기별 역사변동 및 건축문화의 변화를 파악할 수 있을 것이다. 특히 도성유적에서 출토되는 유물은 당시 제일 뛰어난 공예품들이라는 점에서 백제 기술문화의 수준을 가늠할 수 있게 한다.

그러나 도성에 대한 체계적인 조사는 이제 시작에 불과할 정도이다. 공주의 경우 공산성이 1980년대부터 여러 차례 발굴조사가 실시되어 산성내의 유적에 대한 현황은 어느 정도 파악되었으나 시가지 일원에 대한 조사가 거의 전무하여 웅진시대 왕도의 위치 및 현황 등에 대해서는 거의 알지 못한다. 부여의 경우에도 부소산성에 대한 발굴조사는 상당부분 진행되어 그 구조 및 내부 시설은 어느 정도 파악되고 있으나 시가지 일원에 대한 조사는 특정 유적을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어 사비시대 도성에 대한 전체적인 현황파악은 아직 미흡한 실정이다. 발굴조사가 진척된다면 백제시대 도시계획을 비롯해 왕궁의 위치, 각 기관의 배치 등 都城制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을 비롯해 주변 국가간의 도성제에 대한 비교 연구가 가능할 것이다.

나성은 왕도를 보호하기 위해 외곽에 쌓은 성으로 약 8km에 달한다. 나성은 백제의 도성계획을 비롯해 왕도의 범위를 파악하는데 중요한 자료이며, 당시의 축성기법과 건축술을 알 수 있는 유적이다.

(2) 성곽

성곽의 종류에는 산성·평지성 등 여러 유형이 있는데, 백제의 경우 산성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현재까지 백제시대 평지성으로 조사된 유적은 없으므로 이 글에서는 산성만을 다루기로 한다. 백제는 산성의 나라라고 할 만큼 많은 산성을 축조하였다. 산성의 축조 목적은 크게 외적 방어를 위한 것과 지방의 治所로서의 기능이다. 현재 충남지역에는 많은 산성이 남아 있는데, 이를 통해 백제사의 일부를 복원할 수 있다. 먼저, 방어용 산성은 백제의 방어체계를 비롯해 시기별 국경선의 변천을 알 수 있으며, 治所로서의 산성은 백제 지방통치제도에 대한 연구를 가능하게 한다. 특히 사비시대 지방통치제도는 方郡城制였는데, 방에

는 중심성인 方城, 군에는 郡城, 그리고 최하위 행정단위인 성에도 치소로서의 城이 있었다.

충남지역에는 5방성 가운데 동방성과 서방성, 북방성이 위치하고 있었던 것으로 비정되고 있다. 북방성은 웅진성으로 지금의 공산성이다. 동방성은 득안성으로 논산 은진에 비정되고 있는데, 이 지역은 신라지역으로 진출하는데 관문의 역할을 하였기 때문에 매우 중요한 지리적 위치에 있다. 그리고 부흥운동기에는 1천 7십명의 부흥군이 이곳에서 죽음을 당하기도 하였다. 서방성은 예산지역 또는 서산지역에 비정되고 있는데 예산 대흥의 임존성이 서방성일 가능성이 높다. 또한 방 아래에는 지방통치조직으로 6~10개의 군이 있었으며, 그 아래 다시 5~6개의 성이 있었다. 그리고 이들 각 행정구역에는 치소로서 중심 성이 위치하고 있었다. 따라서 각 지역에 위치하고 있는 산성의 분포를 통해 백제 지방통치제도를 비롯해 이들 행정구역의 규모, 치소의 위치 등을 구명할 수 있다.

또한 산성은 축조시 대규모의 인력과 물자를 필요로 하기 때문에 축조시기와 관련하여 당시의 사회·경제상황을 이해하기 위한 방증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 그리고 石城의 경우 축조방법을 통해 백제인들의 석재 가공수준 및 기술수준을 알 수 있다. 이 외에 산성의 축조기법을 통해 삼국간 문화의 전파양상 및 특색 등을 비교할 수 있는 자료가 된다.

다만 아직까지 산성에 대해서는 체계적인 발굴조사가 이루어진 예가 적어 학술자료로 활용하는데 한계가 있다. 따라서 기존에 백제때 축조된 산성으로 알려졌다가 발굴을 통해 축조시기가 달라지는 경우도 있어 이를 학술자료로 활용하기 위해서는 먼저 정밀조사(시굴 및 발굴조사 등)가 선행되어야 한다.

예를 들면, 현재까지 논산지역에서 조사된 성곽은 모두 13개, 보루는 3곳이다. 그러나 축조시기가 백제시대로 확인된 것은 성곽 13개 가운데 5개뿐이며, 나머지는 대부분 시대미상으로 처리되고 있는데, 이는 유적에 대한 철저한 조사 즉, 발굴조사 등이 선행되어야만 축조시기 및 성격에 대한 이해가 가능하다는 사실을 보여준다.

(3) 사지

사지는 대부분 왕도를 중심으로 분포하고 있다. 현재는 모두 터만 남아 있으며, 석탑 및 연못, 초석, 기타 유물 등이 잔존하고 있어 사지였음을 알 수 있다. 불교는 백제시대 정신사에서 가장 중요한 위치를 점하고 있었으므로 백제의 정치사·문화사적인 측면에서 매우 중요하다. 그러나 백제 불교와 관련된 문헌자료

는 매우 적어 이를 통해 백제 불교사를 복원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렵다. 이를 보완할 수 있는 것이 사지에서 확인되는 유적과 유물이다. 유적을 통해 백제시대 가람배치, 특성과 축조시기 등을 살필 수 있으며, 여기서 출토되는 유물은 당시의 불교미술을 비롯해 불교의 전파, 물질문화의 발전정도를 파악할 수 있는 중요한 자료가 된다. 특히 백제 사지 가운데 중요한 것으로 익산의 미륵사지, 부여 왕흥사지와 정림사지, 능산리사지, 보령의 성주사지 등이 있다.

먼저 미륵사지는 무왕의 정치적 기반 및 왕권강화 등 정치사적인 측면에서 중요한 위치를 점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현재 남아있는 미륵사지 서탑은 당시의 건축양식을 연구하는 중요한 자료이다. 왕흥사지는 「왕흥사」명 기와가 출토되어 그 존재가 분명하게 알려진 유적으로 문헌기록 및 사비시기 정치상황을 이해하는데 있어 주목되는 유적이다. 왕흥사는 『삼국사기』 및 『삼국유사』에 기록이 보이고 있는데, 사비시대 불교와 왕권과의 관계를 연구하고, 백제사회에서 불교가 차지하는 비중을 알 수 있는 사찰유적이다. 정림사지는 왕도의 중심부에 위치한 사지로 그 역할과 기능이 매우 중요했을 것으로 짐작되며, 이곳에서 출토된 陶甁은 백제 불교문화의 對中交流를 보여주는 자료이다. 또한 정림사지 5층탑은 우리나라 탑이 목탑에서 석탑으로 옮겨가는 변화상을 보여줄 뿐만 아니라 건축양식을 살필 수 있는 자료이다. 그리고 직접적인 관련은 없으나 탑신부에 소정방이 새겨놓은 금석문은 백제 멸망기의 정국상황을 비롯해 백제사를 이해할 수 있는 하나의 자료가 되고 있다.

능산리사지는 1992년부터 발굴조사를 실시하였는데, 1993년에 공방지에서 금동대향로가 출토되었으며, 1995년에는 창왕명석조사리감이 출토되어 백제문화 및 백제사 연구에 획기적인 자료를 제공하였다. 특히 사리감의 명문은 성왕의 죽음 및 위덕왕 즉위시의 정국상황과 관련하여 많은 시사점을 주고 있다.

부여의 경우 국보·보물은 당나라 장군인 유인원의 공적을 기린 ‘당유인원기공비’를 제외한 9점이 모두 불교관련 문화재인데, 이는 중국사서에 보이는 “승려와 사탑이 매우 많다”는 문헌기록을 뒷받침할 만한 자료라고 하겠다.

이와 같이 현재 남아있는 백제 사지는 백제 불교를 비롯해 백제의 역사와 문화를 밝히는데 있어서 중요한 문화재라고 할 수 있다. 아직까지 제대로 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은 사지가 많이 있으나 앞으로 조사를 통해 보다 많은 자료가 확보될 수 있을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충남지역 사지에 대한 체계적인 조사 및 연구를 위한 계획이 수립되어야 한다.

(4) 고분

백제를 비롯해 신라·고구려의 경우에도 가장 많은 미술공예 자료가 출토되는 곳이 고분이다. 따라서 고분은 당시의 장례문화뿐만 아니라 공예 및 기술수준 등을 연구하는 寶庫라고 할 수 있다. 먼저 대표적인 것으로 웅진·사비시대 왕릉군인 송산리왕릉군과 능산리왕릉군을 들 수 있다. 그런데 아쉽게도 이들 왕릉군의 경우 대부분 후대에 도굴되어 유물이 거의 남아있지 않다. 다행히 무령왕릉(송산리 7호분)만은 도굴되지 않은 채 발견되어 많은 유물을 확보할 수 있었다. 여기에서 출토된 유물은 모두 108종 2,906점인데, 모두가 백제의 우수한 문화수준을 보여주는 것들이다. 이 가운데 특히 주목되는 유물은 무령왕과 왕비의 지석이다. 지석의 명문을 통해 고분의 피장자가 무령왕임을 알 수 있으며, 그의 사망연대(523년)를 통해 『삼국사기』 기록의 정확성을 입증할 수 있었다. 뿐만 아니라 무령왕릉은 전축분으로 중국 묘제의 반영이며, 유물 가운데 백자·청자를 비롯한 중국계 유물들이 다수 출토되어 중국과의 교류관계를 살필 수 있다. 이는 백제와 고구려·신라와의 관계에서도 마찬가지이다. 특히 정치적으로는 서로 대립적이었어도 문화적으로는 교류가 이루어진 사실들을 확인할 수 있는데, 이는 문헌자료가 설명하지 못하는 부분들을 유적·유물을 통해 구명할 수 있음을 보여준다. 따라서 고분에 대한 조사 및 연구는 墓葬制를 비롯해 백제의 대외교류, 미술공예수준, 나아가 문화수준 등을 밝혀내는데 있어서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이와 같이 고분이 백제사를 구명하는데 있어서 중요한 부분을 점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조사는 학술발굴보다는 주로 구제발굴을 통해 확인되고 있는 실정이다. 대표적인 예가 능안골고분군과 염창리고분군의 사례이다. 또한 아쉽게도 고분에 대한 조사 및 관리는 왕릉군을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을 뿐이며, 그 이외의 고분들에 대한 조사나 보존관리는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지 않다. 현재 고분군으로 알려진 유적이 충남 곳곳에 산재하고 있으나 지정된 문화재를 제외하고는 이들에 대한 보존관리는 거의 전무한 실정이다.

그러나 이들 고분은 백제인들의 장례의례 및 사후세계에 대한 관념을 보여줄 뿐만 아니라 고분의 양식과 축조방법 등을 통해 문화의 전파경로를 파악할 수 있다. 그리고 고분에서 출토되는 많은 금은세공품과 토기들은 그들의 물질생활과 생활방식에 대한 이해를 가능하게 한다. 또한 각 지역에 분포하고 있는 고분들은 재지세력 문제를 비롯해 중앙의 지방영역화 및 지방통치과정 등을 밝힐 수 있는 자료이기도 하다.

이와 같이 고분은 백제의 역사와 문화를 이해하는데 있어서 매우 귀중한 문화

재임에도 불구하고 대부분 구제발굴을 통해 유적이 조사되고 있다는 아쉬움이 있다. 아울러 아직도 많은 지역에서 도굴 등 부정적인 방법에 의해 훼손되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각 지역에 분포하고 있는 중요 고분군에 대해서는 계획적인 학술발굴을 통한 자료화가 시급히 요청된다.

(5) 주거지

주거지는 당시 사람들의 일상생활 모습을 복원할 수 있는 자료로 매우 중요하다. 그렇지만 현재 남아있는 것은 그 흔적과 일부 유물뿐이다. 주거지는 크게 지배계층의 주거지와 일반인들의 주거지로 구분할 수 있다. 대개 지배계층의 주거지는 지상가옥이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이는 사지 및 각 건물지에서 조사된 초석, 적심석, 기단석 등을 통해 확인된다. 그러나 일반인들의 경우에는 여전히 수혈주거지에서 생활하였음을 알 수 있다. 부소산성에서 조사된 수혈주거지를 비롯해 현재 충남을 비롯한 경기·전라도 지역 등에서 발굴조사되고 있는 여러 가지 유형의 수혈주거지를 통해 당시의 주거문화를 이해할 수 있다. 특히 다양한 주거지 형태 및 출토유물은 당시의 생활상을 비롯해 지역적 특색을 잘 보여준다. 따라서 각 지역별 문화상의 차이를 그대로 보여주는 것이 주거지라고 할 수 있다.

백제는 마한 54국을 통합하여 고대국가를 이루었으므로 통합 이전에는 각 지역에 수많은 小國들이 분포하고 있었다. 그 결과 각 지역에는 백제문화 이전의 토착문화가 존재하였으며, 그 문화적 요소는 주거지와 주거지에서 출토되는 유물을 통해 구명될 수 있다. 결국 주거지는 당시 사람들의 삶의 방식을 이해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지역별 문화특성을 이해할 수 있는 자료라는 점에서 각 지역별 정밀조사를 필요로 한다.

2) 유물을 통한 역사·문화 연구

이들 유적 이외에도 각 유적에서 출토되고 있는 유물들도 백제의 역사와 문화를 복원하는데 유용한 자료이다. 백제시대 유적에서 출토되고 있는 주요 유물로는 금석문, 목간, 토기, 불상, 마구류, 무기류, 금속공예품, 기와류 등을 들 수 있다. 이 가운데 금석문, 목간 등은 당대의 기록이라는 점에서 가장 중요한 연구자료가 되고 있다. 대표적인 것이 무령왕릉에서 출토된 2매의 지석, 능산리사지에서 출토된 창왕명사리감과 많은 목간 자료, 국립부여박물관 소장의 사택지적비, 궁남지 출토의 목간 등이며, 이외에도 각 유적에서 출토된 인명와, 명문전 등이 있다.

그 외에 토기, 불상, 금속공예품 등은 미술공예 및 기술수준 등을 연구하는 물질적 자료이다. 그리고 마구류와 무기류는 당시의 제철기술을 비롯해 무기체계 및 전투방식 등을 파악할 수 있는 중요한 자료이다. 각종 기와류는 현재 남아있는 지상 가옥이 없기 때문에 이를 통해 당시의 건축양식 및 기술수준, 공예상의 특징을 밝힐 수 있는 직접적인 연구자료이다. 따라서 유물은 백제시대 물질문화의 발전 정도뿐만 아니라 당시의 생활상을 연구하는 기본자료라는 점에서 체계적인 보존관리가 요구된다.

이상에서 검토해 본 바와 같이 백제 문화재를 통해 연구될 수 있는 내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백제시대의 생활상을 밝힐 수 있는 물질자료, 둘째, 백제시대 지방통치체제를 연구할 수 있는 기초자료, 셋째, 중앙과 지방과의 관계 구명을 위한 비교자료, 넷째, 삼국간의 문화교류를 밝힐 수 있는 자료, 다섯째, 문화의 대외전파 및 교류관계를 알 수 있는 자료이다.

이들 이외에도 고고·미술사적인 측면에서 모든 연구의 기본자료가 된다는 점에서 그 가치는 헤아릴 수 없다.

3) 설화·전설을 통한 역사·문화 연구

백제시대의 설화와 전설은 주로 부여를 중심으로 한 그 주변지역에서 많이 전해지고 있다. 또한 시기적으로는 백제 멸망기에 집중적으로 나타나며, 주로 백제 멸망과 관련된 내용이 대부분을 차지한다.

설화와 전설은 그 자체를 역사적 사실로 인정하기는 어렵다. 그러나 설화와 전설이 실제 역사사실이 전개되었던 지역과 그 인근에서 그들 나름대로의 ‘역사를 바라보는 안목과 해석’, 그리고 ‘역사에 대한 기대와 희망’ 등이 복잡하고 다양하게 착종되어 실제의 역사가 그들이 보고싶은 대로, 또는 원하는 대로 만들어진 것이다. 또한 어떤 이유로 기록되지 못한 역사가 민속상에서 일정하게 변모하면서 전해져 내려오기도 한다.¹⁶⁾ 따라서 설화와 전설은 그 지역민의 의식세계뿐만 아니라 문헌 및 고고자료와 함께 역사를 온전하게 복원할 수 있는 자료로 활용될 수 있다. 따라서 부여를 비롯한 주변지역에서 전해져 내려오는 설화와 전설에 대한 체계적 정리와 연구를 통해 잃어버린 백제사의 일부를 복원할 수 있을 것이다.

16) 이필영, 「민속상의 계백장군·충신·백제사」, 『백제 계백장군 및 팔충신 학술조사 보고서』, 충남발전연구원, 2000, 142쪽.

2. 문화관광자원으로의 활용

한 지역사회가 보유한 문화적 자산은 지역민들의 자긍심 고취와 그에 따른 사회통합, 지역발전의 동기유발 등 다양한 기능을 가진다. 특히 특정 문화자산이 타 지역에는 없어 그 지위가 독점적일 때 그 효용성은 더욱 크다. 충남의 경우 백제시대 문화유산은 그러한 의미에서 단연 우위를 점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한 체계적 보존과 효율적 활용은 지역 정체성을 확립하는데 있어서 뿐만 아니라 문화관광자원으로 활용할 수 있다는 점에서 매우 중요한 자산이라고 할 수 있다.

현재 문화재의 활용에서 가장 보편적인 방법이 관광자원으로서의 요소이다. 국내 대부분의 문화유적은 지방자치제 실시 이후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어떤 식으로든지 관광자원으로 활용하고 있고, 또 활용할 계획을 수립하고 있다. 그런데 이 과정에서 문화재의 중요성이 널리 알려지는 긍정적인 효과도 있지만 한편으로는 문화재의 원상이 훼손되는 부정적인 측면도 함께 나타나고 있어 신중하고 체계적인 계획의 수립이 요구된다.

현재 백제시대 문화재를 문화관광자원으로 활용하기 위한 방안이 다각적으로 모색되고 있는데, 대표적인 사업이 백제역사재현단지 조성사업이라고 할 수 있다. 이 외에도 유적의 복원을 통해 당시의 모습을 재현함으로써 전통문화에 대한 이해와 체험학습을 통한 문화관광 활성화를 도모하고 있다. 현재 문화재를 활용한 문화관광 자원화는 크게 다음과 같은 유형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 역사재현단지의 조성을 통한 역사문화 교육의 장으로 활용
- 유적·유물의 복원을 통한 관광자원화
- 주제별 관광루트 개발 및 각종 이벤트 행사(백제문화제 등)
- 문화재를 활용한 문화상품의 개발

백제 문화재를 통한 역사·문화 복원은 문화재의 유적별·유물별 특성과 성격에 대한 분류를 통해 가능하다. 그렇지만 문화재를 문화관광자원으로 활용하는데 있어서는 먼저 지역별로 분류하여 서로 연계, 활용하는 것이 보다 효과적이다. 특히 문화재의 특성을 분석하여 이를 권역별로 나누어 활용방안을 수립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본 절에서는 권역별로 각 시·군에 분포하고 있는 문화재의 특성을 검토하여 문화관광자원으로의 활용방안을 모색해 보기로 하겠다.

1) 권역별 문화관광자원

① 왕도지역

왕도는 고대사회에 있어서 정치·경제·문화의 중심지였기 때문에 한 국가의 가장 우수한 문화적 요소가 집중된 지역이다. 따라서 충남의 경우 백제의 문화적 특성을 가장 잘 보여줄 수 있는 곳이 공주와 부여이다.

가. 웅진시대의 백제문화

백제시대 충남지역이 최초로 주목을 받게 된 것은 웅진천도 이후이다. 따라서 공주지역에는 웅진시기의 문화재가 집중적으로 분포되어 있다. 공주지역의 문화재 가운데 공산성과 성내에 있는 각종 건축물, 송산리왕릉군과 무령왕릉을 비롯한 정지산유적·곰나루 등은 백제시대 공주의 모습과 성격을 이해하는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문화적 요소이다. 특히 곰나루설화는 우리나라 건국신화인 단군신화와 유사성을 함축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전국에 고루 분포하고 있는 곰 관련 설화 가운데 원형을 잘 보존하고 있다는 점에서 의의가 크며, 활용가치도 매우 높은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이 지역에는 설화전시관을 조성하여 각종 곰 관련 설화를 애니메이션으로 제작하여 전시하고, 정기적으로 연극제 등을 개최한다면 좋을 볼거리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공주는 백제 왕도로서의 이미지와 관련 유적을 금강이라는 자연경관과 연계하여 활용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리고 백제시대의 생활·문화상을 체험으로 느낄 수 있는 각종 이벤트의 개발이 함께 이루어진다면 더욱 효과적일 것이다. 현재 공산성 수문장교대식, 백제문화제 등이 정기적으로 개최되어 관광객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고 있는데, 보다 철저한 고증을 통해 실질적인 역사체험의 장이 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이 외에 공산성에서 송산리왕릉군까지의 이동하는데 있어 현재 차량을 이용하는데, 이를 도보 또는 마차 등을 이용할 수 있는 방안과 이동과정에서 백제 웅진시대의 문화를 이해할 수 있도록 각종 조형물을 설치하는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필요하다.

나. 사비시대의 백제문화

부여는 백제의 마지막 왕도가 위치하였다는 상징성으로 인해 문화관광을 위한 좋은 장소성을 지니고 있다. 우선 부여지역에 남아있는 대표적인 역사 유적·유물을 살펴보면, 왕도와 관련된 유적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데, 성곽(나성 및

산성)을 비롯해 왕궁유적이 대표적이다. 성곽유적으로는 나성과 부소산성을 포함한 주변의 청마산성·청산성·울성산성·증산성·금성산성·석성산성·성흥산성 등이 분포하고 있다. 이들 산성유적은 왕도의 관방체계를 파악하는데 좋은 자료이며, 사비시기 전쟁방식이나 건축문화를 이해할 수 있는 관광자원이다.

왕궁유적은 부소산 아래 현 부여문화재연구소가 위치하고 있는 지역이 그 중심으로 추정되고 있는데, 현재 유적의 성격을 확인하기 위한 발굴조사가 연차적으로 진행 중에 있다. 현재까지 조사된 유적으로는 건물터·도로·하수도·연못 및 석축시설 등이 있다.

다음은 왕도내의 중요 시설물을 찾아볼 수 있는데, 사찰유적이 가장 많으며(정림사지·동남리사지·군수리사지·왕흥사지·능산리사지·쌍북리사지 등), 그 외에 궁남지·능산리왕릉군·구드래나루터 등이 있어 당시의 도시경관을 이해할 수 있는 근거가 되고 있다. 이들 유적 가운데 왕궁 관련 유적은 아직 체계적인 조사가 미흡하여 관련 유적을 활용하는데 있어서는 어려움이 있을 수밖에 없다. 다만 현재까지 조사된 지역과 연차적 발굴을 통해 조사된 지역에 대해서는 정비 계획을 수립하고 있어 앞으로 문화관광자원으로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현재 부여의 古都 이미지를 알리는 데는 현존하고 있는 유적을 중심으로 하는 것이 바람직한데, 이들 유적 가운데 부소산성을 포함한 왕궁지유적·정림사지(정림사지 5층석탑)·궁남지·나성·군수리사지·동남리사지·구드래 지역이 지닌 역사성 등이 활용가치가 높은 백제시대 유적이다. 또한 부여의 고도 이미지를 높이기 위해서는 현재 건축되고 있는 건물들의 외관을 고건축 양식으로 할 수 있도록 규제해야 할 것이다.

이 외에도 역사성을 가진 것으로 천정대를 비롯하여 낙화암, 삼천궁녀 이야기 등 많은 설화와 전설이 있으며, 문학작품으로 정읍사·산유화가 등이 전해져 내려오고 있다. 이들 설화는 비록 실체가 없으나 주변유적과 연계하여 활용한다면 좋은 문화관광자원으로서의 가치를 지니고 있다.

특히 부여는 백제역사재현단지가 조성되고 있어 이를 부여지역 문화재와 연계한 구체적인 활용계획을 수립한다면 앞으로 문화관광 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생각된다.

② 왕도 주변지역

왕도가 정치·경제·문화의 중심지였다면 그 주변지역은 왕도를 운영하는 데

있어서 물자를 공급하고, 방어를 담당하는 기능을 지녔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왕도 주변지역은 이러한 역사성을 보여줄 수 있는 측면에서의 접근이 필요하다. 특히 이들 지역은 기능상 서로 유사하였기 때문에 비슷한 성격의 문화재를 연계하여 활용하는 것이 보다 효과적이다.

가. 논산의 관방유적과 황산벌전투

논산은 백제시대 동방성이 위치하고 있었으며, 신라로 진출하는데 있어 동쪽의 관문에 해당하는 위치에 있다. 이는 신라 김유신의 5만군이 논산으로 진격함에 따라 계백의 5천결사대와 연산 황산벌에서 전투가 벌어진 사실을 통해서도 확인된다. 따라서 논산지역에는 많은 산성이 분포하고 있으며, 이와 관련된 고분유적이 다수 남아있다. 이 외에 생활유적으로 1999년도에 조사된 논산 정지리유적, 성동면 원북리유적, 연무읍 마전리유적 등을 들 수 있다. 이들 유적 가운데 정지리유적은 생활유적으로 그 형성시기는 웅진시대로 편년될 수 있으며, 한성시기까지 소급되는 백제 유물이 출토되고 있다. 따라서 논산지역은 한성시대부터 백제의 영역으로 편입되어 있었음을 보여준다. 그리고 660년(의자왕 20) 나당연합군이 쳐들어오자 결사대 5천명을 뽑아 황산벌에서 싸우다가 장렬한 최후를 마친 계백의 묘가 부적면 충곡리에 있으며, 부여 지역을 제외하면 계백장군과 관련된 전설이 가장 많이 전해지고 있는 곳이기도 하다. 따라서 황산벌 전적지를 중심으로 분포하고 있는 관방유적과 계백장군묘, 군사박물관, 계백장군과 관련된 각종 설화 등을 연계한 테마관광루트 개발이 가능하다.

나. 연기의 관방유적과 비암사

연기지역은 지리적으로 북방에 위치하고 있어 육로를 통한 대북방 진출 및 고구려의 남진을 저지하는데 있어서 최후 보루기능을 담당하였다. 따라서 연기에는 운주산성, 이성산성, 읍내리산성, 진의리토성, 당산성 등 다수의 산성이 분포하고 있다. 이들 관방유적에 대한 답사루트를 개발하여 활용하고, 그 외에 백제시대에 창건된 사찰인 비암사와 연계하면 연기지역 백제문화 뿐만 아니라 백제 말기의 백제사 이해에 도움이 된다.

특히 비암사는 통일신라시대에 백제유민들에 의해 계유명전씨아미타불삼존석상(국보 제106호), 기축명아미타여래제불보살석상(국보 제367호), 미륵보살반가석상(보물 제368호) 등이 제작되어 당시 이 지역 재지세력의 존재양태를 파악할 수 있다. 그리고 정기적으로 매년 ‘백제대제’라고 하여 백제 역대 왕들에 대한 제를

올리고 있어 관광상품화의 가능성을 높이고 있다.

다. 청양의 관방유적

청양지역은 서북해안지대로 진출하는 길목에 해당한다. 따라서 산성이 많이 분포하고 있으며, 이와 함께 고분유적이 다수 조사되었다. 대표적인 산성으로는 우산성과 두릉산성이 있다. 이 외에도 백제 멸망후 좌평 정무가 부흥운동을 일으킨 곳으로 비정되는 정산의 계봉산성이 있어 사비도성의 관방체계 및 부흥운동기의 전적지에 대한 답사루트의 개발이 가능하다. 다만 아직 학술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아 성격에 대해서는 자세하게 알 수 없으며, 그 결과 현재로서는 문화관광자원으로 활용하는데 한계가 있다.

또한 문화재의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고분의 경우에도 대부분 지표상에서 조사된 것으로 문화관광자원으로 활용되기 위해서는 발굴조사 및 정비계획 등의 대책이 요구된다. 따라서 청양의 경우 백제시대 문화재를 문화관광자원으로 활용하기 위해서는 체계적인 학술조사가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③ 충남 서북부권 -백제 불교문화의 정수-

충남 서북부권은 지리적으로 대고구려 진출 및 대중국교역에 유리한 입지적 특징을 지니고 있다. 따라서 이와 관련된 테마별 관광자원의 개발이 필요하다. 이 지역은 각 시·군별 보유자원이 많지 않아 권역별 관광계획의 수립이 필요하다. 이와 관련하여 우선 주목되는 것이 불교문화재이다. 대표적인 불교문화재로는 예산의 사면석불, 태안의 마애삼존불, 서산의 마애삼존불, 보원사지 등을 들 수 있다. 이들은 뛰어난 불교미술로서의 가치뿐만 아니라 중국문물의 유입경로를 알 수 있는 중요한 문화재이기도 하다. 특히 서산의 마애삼존불은 ‘백제의 미소’로 알려진 뛰어난 문화적 가치를 지닌 것으로 인근의 보원사지 등과 함께 백제 불교미술의 정수를 체험할 수 있는 문화관광자원이다.

관광자원을 시·군별로 구분하여 검토하면 다음과 같다.

먼저, 예산지역을 대표하는 문화재로 사면석불과 임존성이 있으며, 이 외에는 기념물로 지정된 예산산성이 있다. 사면석불은 백제 유일의 사면석불로 백제시대 불교문화를 이해할 수 있는 좋은 자료이며, 수덕사 등 주변 불교문화재와 연계하여 활용될 수 있다. 임존성은 백제 부흥운동의 시발점으로 역사적 상징성을 지니고 있으므로 성곽에 대한 가치뿐만 아니라 백제부흥운동에 대한 학술적 연구와 병행하여 활용한다면 효과가 훨씬 증대될 것으로 보인다. 또한 주변의 예산산성,

상중리산성 등 많은 산성들과 연계한 고대인들의 관방체계에 대한 답사루트 개발이 필요하다. 이 외에도 많은 수의 고분유적이 있으나 아직 발굴조사 등이 이루어지지 않아 그 성격을 알 수 없기 때문에 활용하는데 한계가 있다.

홍성지역은 신금성과 장곡산성이 중요문화재로 지정되어 있다. 이들 성은 백제 시대에 축조된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이 가운데 신금성이 발굴되었다. 그러나 아직 역사적·고고학적 성격은 분명하지 못하며, 또한 정비가 이루어져있지 않다. 이 외에 주류성으로 지정되고 있는 학성산성을 비롯해 석성산성 등 다수의 산성과 고분군이 남아있다. 그러나 이들 유적은 아직 체계적인 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아 그 성격이나 문화적 가치 등에 대한 규명이 미흡하다. 따라서 아직 문화관광자원으로 활용하는데 있어서는 어려움이 있으며, 앞으로 학술조사를 통해 그 문화사적 의의가 충분히 규명되어야 할 것이다.

서산은 ‘백제의 미소’로 불리는 마애삼존불을 비롯해 보원사지 등 문화관광자원으로 활용하기에 훌륭한 문화재를 보유하고 있다. 특히 마애삼존불은 백제를 상징하는 대표적인 문화재라는 점에서 가치가 매우 높다. 이들 문화재는 인근 시·군의 불교문화재 및 백제시대 이외의 문화재와 연계하여 활용할 수 있다. 특히 보원사지가 위치하고 있는 상왕산에는 산성이 있는데, 이 지역에서는 이를 부흥운동의 거점성 가운데 하나인 주류성으로 지정하기도 한다. 이 외에도 부성산성을 비롯하여 여미리고분 등 다수의 산성과 고분유적이 분포하고 있다. 다만 여미리고분을 제외한 이들 대부분의 유적이 아직 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아 활용에 어려움이 있으나 유적을 정비하여 백제유적 답사루트를 개발하면 문화관광자원으로 충분한 활용가치가 있다. 현재 서산시가 문화재종합정비기본계획을 수립 중에 있으므로 백제 문화재를 이와 연계한다면 관광자원화가 가능할 것이다.

태안은 서해안 항로와 관련하여 중요한 지리적 위치에 있다. 그 결과 백화산에 마애삼존불을 조성하여 항해의 안전을 기원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태안에는 백제시대 유적이 많지 않으나 백화산 마애불을 중심으로 서산·예산지역 불교 문화재를 비롯해 빼어난 해안자원과 연계하여 계획을 수립하는 것이 필요하다. 아울러 충남 서북부권은 중국과의 교류에서 중요한 지리적 위치를 점하고 있었으며, 선진문화의 유입통로였다는 점에서 對中 文化交流를 위한 별도의 계획수립이 요구된다.

④ 기타 권역

기타 권역으로는 왕도를 중심으로 외곽에 위치하고 있는 지역을 포함시켰다.

그러나 외곽이라고는 하지만 문화적으로 외곽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며, 단지 왕도를 기준으로 멀리 떨어져 있다는 것뿐이다. 이들 각각의 지역은 역사문화적 의미를 지니고 있으며, 그에 따른 특징적인 문화자원을 보유하고 있다.

예를 들면, 서천의 경우 금강하류의 군사적 요충지로 금강을 통해 왕도로 진입하는데 있어서 관문의 위치에 해당한다. 따라서 방어를 위한 산성이 많이 분포하고 있다. 특히 부흥운동의 거점성이었던 주류성의 위치를 서천의 금강하구에서 구하는 견해가 있는데, 이와 같이 서천은 부흥운동기에 있어서도 중요한 역할을 한 지역이었다.

천안과 아산지역은 상당기간 동안 고구려와의 접경지대로 군사적 중요성이 높았기 때문에 관방유적이 다수 분포하고 있다. 특히 천안에 위치하고 있는 위례산성은 백제의 初都地로도 전해지고 있을 뿐만 아니라 이와 관련된 많은 전설이 남아있다. 천안 위례성이 백제 온조왕이 처음 도읍을 정했던 곳인가 하는 문제는 별도의 검토가 필요하지만 그것이 지닌 상징성은 매우 크다고 하겠다. 따라서 현재 천안지역에 남아있는 백제시대 유적, 예를 들면 백석동유적과 백석동토성, 북면의 위례산성, 직산 사산성, 목천의 흑성산성 등을 비롯하여 마한시대의 각종 유적과 연계한 문화관광 루트의 개발이 가능하다.

그리고 아산지역은 온조왕 36년 탕정성을 축조한 것으로 기록에 보이고 있는데, 현재 읍내리산성에 비정되고 있는 등 백제 초기의 문화유적이 남아있을 가능성이 매우 높은 지역이다. 또한 아산은 웅진·사비시기 고구려·신라 등과의 국경지대를 형성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와 관련된 많은 산성유적이 존재하였을 것이다. 따라서 천안과 아산을 연계한 백제초기의 문화와 웅진·사비시기의 관방유적을 이해할 수 있는 문화권으로의 설정과 함께 이를 활용한 관광자원화가 가능하다.

보령에는 신라말 선문 9산의 하나인 성주사가 위치하고 있는데, 이곳은 혜왕대 오합사가 창건된 곳이다. 발굴조사 결과 통일신라시대에 창건된 성주사지의 맨 아래 부분에서 백제시대의 사지가 확인되었다. 비록 현재 남아있는 대부분의 유적과 유물은 통일신라시대 이후에 조성된 것이지만 初創이 백제시대였다는 점에서 커다란 역사적 의미를 지니고 있다. 성주사지에는 불교박물관을 건립, 성주사에서 출토된 유물 등의 전시와 보령지역 불교문화에 대한 연구기능을 담당하도록 한다면 도미부인 설화와 함께 보령지역 백제문화 관광자원으로 충분히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2) 테마별 문화관광자원

백제문화재의 정비·복원 및 문화관광자원으로의 활용이라는 측면에서 이제까지 시행된 사업 가운데 대표적인 것이 현재 진행중인 백제역사재현단지 조성사업이라고 할 수 있다. 이 사업은 비록 충남을 비롯하여 전북지역까지 포괄하고 있으며, 충남지역의 경우 공주와 부여를 중심으로 하고 있다는 한계가 있지만 충남지역 백제 문화재가 공주와 부여를 중심으로 집중적으로 분포하고 있다는 특징을 볼 때 충남지역 백제 문화재 전체에 대한 정비 및 활용과 직접 연계되어 있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그 현황을 알아보고, 문제점에 대한 대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아울러 현재 시행되고 있는 백제문화재를 비롯해 테마별 관광자원화가 가능한 요소를 검토해 보기로 하겠다.

① 백제역사재현단지의 조성

가. 개발배경

백제 문화재는 1971년 무령왕릉의 발굴을 통해 그 역사적 가치가 재조명되었으며, 1980년대를 거치면서 신라 경주문화와 쌍벽을 이루는 백제문화에 대한 민족사적 차원의 관심과 복원 필요성이 대두되었다. 이 과정에서 백제문화권의 체계적인 발굴·보존·복원은 민족문화의 정체성을 재구성하는 필수작업일 뿐만 아니라 상대적으로 낙후된 충남 내륙을 관광 및 지역개발차원에서 활성화시킬 수 있는 유력한 대안으로 인식되었다. 이에 1990년 건설부에서 백제문화권 특정지역 개발기본계획 조사를 실시하고, 1991년 타당성조사를 실시, 1993년 백제문화권 특정지역을 지정하여 개발을 시작하였다.¹⁷⁾

나. 기대효과

- 신라문화와 함께 찬란했던 백제문화의 재현으로 민족문화의 계승 및 기반확충
- 관광휴양시설의 확충으로 관광객 증대도모
- 산업기반이 취약한 부여·공주지역에 토산품생산, 숙박업, 음식업 등 서비스업이 크게 발전되어 지역경제 활성화 도모

17) 충청남도, 『백제역사재현단지 조사연구보고서』, 1996.

다. 유적의 발굴·정비·복원계획

유적의 발굴·정비·복원계획은 공주·부여·익산지역을 합해 모두 13건에 달한다. 이 가운데 전북 익산지역 5건을 제외한 공주·부여지역에 한정하여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공주지역 : 공산성 정비, 석장리 유적정비, 송산리고분군, 공주박물관 이전
- 부여지역 : 부소산성 정비, 궁남지 정비, 정림사지 복원, 부여 나성 복원

라. 백제역사재현단지 조성

백제 문화재의 정비·복원과 관련하여 특징적인 것은 백제역사재현단지 조성 사업이다. 이는 기존의 문화재에 대한 정비·복원과 달리 백제의 역사와 문화를 재현하기 위한 목적으로 일정한 공간에 인위적으로 조성하여 백제역사의 산 교육장으로 활용하도록 하는 사업이다. 이를 위해 시설물로 역사재현촌과 연구교육촌을 조성하고 있다. 역사재현촌에는 민속박물관, 개국촌, 왕궁촌, 전통민속촌, 산업교역촌, 군사통신촌, 풍속종교촌, 장제묘지촌, 전통운동시설지, 휴게소, 주차장 등을 두고, 연구교육촌에는 한국전통문화학교, 예술인촌, 호텔 및 컨벤션센터 등을 조성하고 있다. 이 외에도 사업내용에는 관광·휴양·위락공간 확충계획을 비롯하여 도시환경정비계획, 교통망 확충계획 등이 포함되어 있다.

이러한 사업은 백제 역사의 재현 또는 문화재의 정비 등과는 무관하지만 백제 문화재의 활용이라는 측면에서 문화관광을 활성화시키는데 효과적인 측면을 가지고 있다. 다만 개발계획이 백제의 문화재를 발굴하고 정비·복원함으로써 잊혀진 백제문화를 재조명하는데 주안점을 두기보다는 관광위락단지 조성과 지역개발에 너무 치중하는 경향이 있다는 점이 문제로 지적될 수 있다.

마. 고려해야 할 사항

현재 추진 중에 있는 백제역사재현단지 조성사업에 있어서 몇 가지 고려해야 할 사항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백제문화권 개발사업에 있어서 문화유적의 조사·연구·정비에 보다 많은 투자를 해야 한다. 이는 문화재에 대한 체계적인 조사·연구 없이는 본질적인 가치를 찾아낼 수 없으며, 따라서 효율적인 활용도 어렵게 되기 때문이다.
- 현재 백제 문화재 정비가 공주와 부여 소재 백제시대 문화재를 중심으로 계획되어 있으며, 그 외에 청양, 보령 등 인근 지역의 문화재가 일부 포함되어 있다. 그런데 이들 이외에도 중요한 백제시대 문화재 예를 들면, 서산 마애불, 태안

마애불, 예산 임존성, 사면석불 등에 대해서도 함께 연계하여 정비가 이루어져야 한다. 따라서 권역에서는 벗어나 있을지라도 백제의 역사와 문화를 복원하는데 필요한 문화재에 대해서는 학술적 조사를 거쳐 사업대상에 포함시키는 것이 필요하다.

- 백제역사재현단지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한 지속적인 자료의 수집과 연구, 아이템의 개발이 필요하다. 백제의 역사·문화 내용은 고고학적인 발굴조사와 학계의 연구성과에 의해 계속 변화·증가하고 있다. 이들 새로운 연구성과를 사업계획에 수시로 반영시킴으로써 전시내용을 다양화하고, 질을 높일 수 있을 것이다.

② 백제문화제의 효율적 활용

백제의 전통문화를 재현하고 문화관광을 활성화하기 위한 목적으로 백제문화제가 매년 10월중에 공주와 부여에서 번갈아 가면서 개최되고 있다. 이는 지나간 백제문화의 의미를 되살려 현대의 문화와 접목시킴으로써 그 문화적 가치를 확대시키려는 노력이라고 할 수 있다. 행사는 3일간의 일정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왕의 행차, 왕비 및 공주행차, 농악대, 무령왕 행차, 백제시대 대표적인 왕의 설화 등으로 엮는 가장행렬을 실시하고 있으며, 농악이나 장고춤, 화관무 등의 놀이 등이 시연된다.

그러나 매년 개최내용이 비슷하며, 일부는 백제라는 시대적 상황에 부합되지 않는 내용이 있다. 이는 역사·문화에 대한 지속적 연구를 통한 고증 및 새로운 주제의 개발이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이다. 또한 문화제가 비록 공주와 부여에서 개최되고는 있으나 시기를 웅진·사비시기에 한정하지 말고 백제 전시대의 성격과 문화상을 보여줄 수 있도록 행사내용을 보다 다양화할 필요가 있으며, 매년 특정한 주제를 설정하여 보다 심도있는 문화제가 되도록 해야 한다.

③ 백제금동대향로에 담긴 내용의 현실화 -동물원 및 조각공원 조성계획 수립-가. 내용

중요 백제 문화재의 성격을 명확하게 분석하여 문화관광 상품화할 수 있는 자료를 축적할 수 있도록 한다. 예를 들면, 백제금동대향로의 경우 향로의 뚜껑에는 74곳의 봉우리와 인물상 16인, 동물상 39마리의 문양이 있다. 인물상에는 5인의 주악상과 산중의 신선상이 있으며, 39마리의 동물상에는 호랑이·사슴·코끼리·원숭이·멧돼지 등이 있다. 이 밖에도 6군데의 나무와 12군데의 바위, 시냇물 등이 조각되어 있다. 몸체에는 2명의 신선과 날개 달린 물고기를 비롯한 수중

생물, 물가의 생활과 밀접한 것으로 여겨지는 사슴과 학 등 26마리의 동물이 있다. 따라서 향로 전체에는 신선 18인, 동물 65마리가 표현되어 있다.

나. 활용

- 백제역사재현단지 안에 금동향로에 나타난 세계를 응용한 동물원을 조성함으로써 백제인들의 의식세계를 직접 체험할 수 있도록 한다.
- 향로에 나타난 연못·정원·산 등을 복원하여 백제인들의 자연관을 느끼고, 동물상, 주악상 등을 재현, 백제인들의 생활상에 대한 이해를 높일 수 있도록 한다. 동물의 경우 현재 구할 수 없는 것은 조각을 통해 나타낼 수 있도록 하며, 완함·배소·장적·거문고·북을 연주하는 5인의 주악상은 실물로 연주하도록 한다.
- 금동향로에 나타난 문양 이외에도 백제문화재에 표현된 많은 문양과 형태, 의미 등에 대한 분석을 통해 그 상징성을 도출, 현실화하는 방안을 마련하고, 이를 이용한 문화상품의 개발을 추진한다.

④ 테마별 관광루트의 개발

역사·문화에 대한 일반인들의 관심이 증대되면서 문화관광은 단위 문화재에 대한 感想的·好古的 관람에서 벗어나 특정한 주제를 지닌 답사형 문화관광이 늘어나고 있는 추세이다. 따라서 지역별 또는 유형별로 특정한 주제를 지닌 답사루트를 개발함으로써 문화관광을 활성화시킬 수 있을 것이다. 충남의 백제 문화재를 활용한 테마별 답사주제 가운데 우선 실시 가능한 것으로 다음과 같은 주제를 찾을 수 있다.

- 백제의 왕도를 찾아서 : 공주·부여의 왕도관련 유적·유물, 공주박물관, 부여박물관
- 백제인의 사후세계에 대한 이해 : 공주 송산리왕릉군(무령왕릉), 정지산유적, 부여 능산리왕릉군, 능안골고분군
- 백제의 관방유적 : 공산성, 부소산성, 청마산성, 청산성, 성흥산성, 황산성, 노성산성 등
- 백제불교의 전파경로를 찾아 : 예산 사면석불, 수덕사, 서산 마애삼존불, 보원사지, 태안 마애삼존불, 정림사지, 왕흥사지, 군수리사지, 능산리사지, 보령 성주사지, 연기 비암사
- 부흥운동 전적지를 찾아서 : 부여 금성산성, 연기 운주산성, 예산 임존성, 청

양 두릉산성 등

○ 백제의 전설을 찾아 : 부여 · 논산 지역 설화 · 전설

○ 백제 충의 · 절의정신의 산실, 황산벌전적지 : 연산 황산벌 및 주변 산성(청동리산성, 산직리산성, 황령산성, 모촌리산성, 황산성 등), 계백장군의 묘소, 충곡서원, 부여 충화면 일대

⑤ 각종 박물관 및 전시관의 활용

대개 역사성이 큰 유적지에는 각종 전시관이 세워지고 있다. 현재 정립사지 불교전시관, 논산의 백제군사박물관이 신축되고 있으며, 부여 능안골고분군 전시관, 부여 정암리와요지 전시관, 보령 성주사지 전시관 등의 계획이 수립되어 있다. 그런데 이들 전시관 및 박물관은 대부분 관련 문화재의 전시 및 보존관리에 한정되는 경우가 많다. 그 결과 관련 유물이 적을 경우 일반 사람들의 관심에서 쉽게 멀어지게 된다. 따라서 전시관 및 박물관의 전시내용을 풍부하게 하고, 질을 높이기 위해서는 지속적인 연구가 이루어져야 하며, 이를 위한 연구기능을 확보해야 한다.

또한 이들 이외에도 중요 유적에 전시관을 건립하여 유적에서 출토된 유물을 전시하거나 유적과 관련된 각종 시청각자료를 통해 유적지를 찾아오는 관광객들에게 보다 많은 자료와 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⑥ 기타 백제관련 민속행사의 활성화

현재 충남지역에는 백제와 관련된 많은 민속이 전해져 내려오고 있다. 부여에서는 이와 관련된 민속행사가 다수 행해지고 있는데, 이를 보다 활성화시켜 현존하고 있는 관련 문화재와 연계하여 관광상품화 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현재 행해지고 있는 행사를 보면 다음과 같다.

가. 은산별신제

별신제는 향토신에 대한 제사로 매년 음력 정월(6일간)에 행해지는데, 은산별신제는 백제부흥군의 장군인 복신과 도침을 비롯한 백제부흥군에 대한 위령제적 성격을 지닌다.

이것은 백제의 부흥운동 전적지와 연계할 수 있을 것이다.

나. 충화팔충제

백제말기 나당연합군에 대항하여 오천결사대와 함께 순절한 계백을 비롯하

여 복신·도침·성충·홍수·곡나진수·억례복류·혜오 등 8충신과 황산벌전투에서 전사한 무명 장졸들의 넋을 추모하는 제전의식으로 매년 10월초에 행해진다. 논산의 계백장군 관련유적, 부여 충화면 팔충리의 계백 및 팔충신 관련 유적 및 설화 등과 연계하여 활용할 수 있다.

다. 유왕산추모제

백제의 멸망으로 660년 8월 17일 의자왕과 세자, 대신, 백성 등 1,300여명이 포로가 되어 당나라로 끌려갈 때 금강변 유왕산에 백제 유민들이 모여 이들을 애타게 통곡하며 나라 잃은 설움을 애통해 하고 이국 땅에서의 무사함과 건강을 기원하는 추모행사로 매년 8월 16일~17일 2일간 행해진다.

라. 임천충혼제

백제 부흥운동 당시 가림성에서 나당연합군과 항전하다 산화한 수천의 무명 장졸들의 고혼을 위령하기 위해 성흥산에 충혼사를 건립하고 매년 4월 말에 충혼제를 거행한다. 성흥산성을 포함한 관방유적과 연계하여 문화관광 자원으로 활용할 수 있다.

제5장 결론 및 정책제언

1. 결 론

1) 문화재 관리적 측면

충남의 백제 문화재에 대한 관리실태를 분석한 결과 예산의 대부분이 토지매입과 주변정비, 유적보존을 위한 기본시설을 마련하는데 투입되었고, 문화재 정비를 위한 기본계획의 수립과 체계적인 연구에는 예산의 투자가 많지 않았음을 알 수 있다. 현재까지 이루어진 충남의 백제 문화재에 대한 관리실태를 토대로 결론을 도출하면 다음과 같다.

(1) 문화재의 체계적인 정비를 위해서는 해당 문화재에 대한 기초적인 조사·연구가 수반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현실적으로 이에 대한 예산배정이 매우 적다. 그 결과 정비·복원을 위한 기초자료가 불충분하며, 원형과 다르게 정비되거나 복원되는 사례가 발생한다.

(2) 현재 백제 문화재에 대한 정비는 古都圈(공주·부여)를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는데, 이를 권역별로 세분하여 그 이외의 지역에 분포하고 있는 백제 문화재에 대해서도 균형있게 정비가 이루어져야 한다. 뿐만 아니라 정비대상도 중요 문화재를 중심으로 하고 있어 자칫 잘못하면, 아직 발굴되지 않은 문화재 또는 그 가치를 인정받지 못한 문화재의 경우 망실될 우려가 상존하고 있다. 따라서 이제라도 백제 문화재의 현황과 성격을 정확하게 파악하여 현재의 관리상태 및 정비에 대한 정밀 진단을 실시한 후 종합적인 보존관리계획을 수립하는 것이 필요하다.

(3) 문화재의 관리에 있어서 정비와 복원이 우선시되는 경향이 있는데, 성급하게 개발계획을 수립하여 복원이 이루어질 경우 자칫 잘못하면 오히려 문화재를 훼손하게 된다. 따라서 사전에 정밀조사를 통해 충분한 기초자료를 축적한 이후에 신중하게 정비·복원계획을 수립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4) 대부분의 문화재관리가 예방적 차원에서 이루어지기보다는 사후관리 차원에서 이루어지고 있다. 문화재는 물건을 만들어내듯 다시 생산할 수 없으며, 다리를 놓거나 집을 짓는 것처럼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한번 훼손되면 다시는 재

생활 수 없으므로 훼손되기 이전에 사전관리가 철저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

2) 문화재 활용적 측면

현재 문화재의 관리는 주로 보존을 위한 정비에 치중해 왔으며, 이를 활용하기 위한 계획은 매우 미흡한 실정이다. 그러나 문화재는 그 지역의 정체성 확보와 지역민의 교육을 위한 소중한 자산일 뿐만 아니라 외지인에게는 문화관광을 위한 매력적인 흡입요인이라는 점에서 효율적인 활용계획도 함께 수립될 필요가 있다. 충남의 백제 문화재를 통한 활용적 측면을 보면 다음과 같다.

(1) 백제 역사·문화 복원을 위한 자료

- ① 백제시대의 경제·사회 생활상과 의식세계 등을 밝힐 수 있는 물적자료
- ② 백제시대 도성제도 및 지방통치제도를 연구할 수 있는 기초자료
- ③ 중앙과 지방과의 관계를 구명할 수 있는 비교자료
- ④ 삼국간의 문화교류를 밝힐 수 있는 자료
- ⑤ 문화의 대외전파 및 교류관계를 알 수 있는 자료

(2) 문화관광자원으로의 활용

- ① 백제역사문화의 재현을 통한 역사문화 교육의 장으로 활용 - 백제역사재현단지, 백제문화제, 웅진성 수문장교대식
- ② 유적·유물의 복원을 통한 관광자원화 - 공산성 정비, 무령왕릉 전시관, 각종 산성 정비·복원, 사비나성 복원, 정림사지 전시관, 능안골고분군 정비, 성주사지의 정비.
- ③ 주제별 관광루트 개발 및 각종 이벤트 행사
- ④ 문화재를 활용한 문화관광상품의 개발
- ⑤ 민속행사의 활성화 및 관련유적 발굴·정비

2. 정책제언

1) 문화재 관리적 측면

문화재는 한번 훼손되면 다시는 복원할 수 없다는 점에서 철저한 원형보존이 이루어져야 한다. 이는 백제 문화재의 경우에도 예외가 아니며, 따라서 문화재는

체계적으로 관리되고 보존되어야 한다.

(1) 백제 문화재 종합정비기본계획 수립

백제 문화재의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충청남도 백제 문화재에 대한 종합정비기본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충남지역에 잔존하고 있는 백제 문화재에 대한 정확한 현황분석을 토대로 문화재별 관리카드를 작성,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사전·사후관리가 이루어지도록 해야 한다. 특히 비지정문화재에 대한 별도의 관리계획도 수립하여야 한다.

(2) 주변 경관을 고려한 문화재 보존계획

향후 문화재 관리가 문화재만이 아닌 주변 역사문화경관에 대한 부분까지 확대되고 있는 점을 감안하여 경관보존계획도 함께 수립하여야 한다.

(3) 백제 문화재의 정확한 정비·복원을 위한 조사·연구기능 확보

현재 백제 문화재의 정비·복원은 각 시·군별로 다른 시기의 문화재와 함께 이루어지고 있다. 그 결과 정비·복원이라는 문화재 자체에 대한 원형보존 중심으로 관리가 이루어질 뿐 백제시대라는 역사·문화적 특성에 맞는 보존관리가 미흡하다. 따라서 충남의 백제 문화재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정비·복원하기 위해서는 백제 문화재를 전담하여 관리하고 조사·연구할 수 있는 기능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이러한 기능은 앞으로 설립예정인 충남 역사문화연구원이나 또는 백제역사재현단지에 건립중인 백제역사민속박물관에서 담당할 수 있도록 하면 좋을 것이다.

(4) 고도관리 특별법 제정 및 전담기구 설치

백제의 古都인 공주와 부여에 대한 체계적 관리를 위해서는 고도관리를 위한 특별법의 제정과 전담기구의 설치가 시급하다. 현재 ‘古都 옛모습 되살리기’ 사업이 시행되고 있지만 이를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법적 근거나 전담기구가 없는 상태에서 기존의 문화재 관리와 같은 수준에서 이루어지고 있어 차별성을 드러내기가 어렵다. 따라서 古都 관리를 위한 특별법과 별도의 전담기구를 두어 관련자료에 대한 충분한 수집 및 분석, 연구를 통해 古都의 역사·문화적 성격에 맞는 정비·복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

2) 문화재 활용적 측면

문화재는 지역의 정체성과 자긍심 함양을 위한 자산일 뿐만 아니라 현대적 활용을 통해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자원이기도 하다. 특히 특정 문화자산이 타 지역에는 없어 그 지위가 독점적일 때 그 효용성이 더욱 크다는 점에서 충남의 백제시대 문화재는 단연 우위를 점하고 있으며, 또한 경쟁력을 지니고 있다. 따라서 문화재의 활용을 위한 적절한 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

(1) 백제 문화재의 역사·문화적 성격 구명을 위한 연구기능 확보

백제 문화재는 백제 역사·문화 복원을 위한 중요한 자료로서 이를 체계적으로 보존관리하기 위해서는 문화재의 성격에 대한 정확한 이해가 선행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 백제 문화재를 통한 백제 역사·문화 연구를 담당할 수 있는 기능이 확보되어야 한다. 현재 중요 유적지의 경우 각종 전시관이나 박물관이 세워지고 있는데, 단순한 전시기능만이 아닌 연구기능을 충분히 확보하여 문화재가 지닌 가치를 구명함으로써 그 활용가치를 높일 수 있다.

(2) 고도문화권을 축으로 한 관광체계 구축 및 권역별 관광루트 개발

- 충남의 백제 문화재가 집중 분포되어 있는 古都文化圈(공주·부여)을 백제 문화관광의 중심으로 삼아 각 지역별 문화권을 유기적으로 연계한 관광체계 구축.
- 충남지역 백제 문화재 분포지역에 대한 권역설정과 함께 권역별 주제설정을 통한 테마형 문화관광루트 개발. 이를 위해 웅진도읍권(공주, 연기), 사비도읍권(부여, 논산, 청양 등), 불교문화권(서산, 태안, 예산 등), 부흥운동 관련유적(예산, 서천, 청양, 연기 등), 황산벌전적지와 계백(논산) 등 시기별 또는 주제별에 따른 권역별 세부계획의 수립이 필요하다. 이때 권역별 관광루트는 종합적인 관광교통 체계와의 연계성을 고려하여 개발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3) 다른 시기의 문화재 및 자연자원과 연계개발

문화관광 활성화를 위해 백제시대 문화재뿐만 아니라 주변에 분포하고 있는 시기를 달리하는 문화재 및 자연자원과의 연계 개발을 통한 문화관광 자원화를 적극 도모할 필요가 있다. 예를 들면 공주의 경우 금강과 계룡산, 부여는 금강, 서해안권역은 해양자원 등과의 연계개발이 가능하다.

(4) 비지정문화재의 적극 개발 및 활용방안 모색

아직 중요성이 알려지지 않은 문화재들에 대한 정밀조사를 통해 학술자료 및 문화관광자원화 할 수 있도록 한다. 이를 위해 비지정문화재에 대한 체계적 관리와 조사를 위한 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

(5) 백제 문화재의 문양에 대한 현재적 해석을 통한 문화관광상품화

중요 백제 문화재의 성격을 명확하게 분석하여 문화관광상품화 할 수 있는 자료를 축적하도록 한다.

- 백제금동대향로의 경우 향로의 뚜껑에는 74곳의 봉우리와 인물상 18인, 동물상 65마리의 문양이 있으며, 인물상 중에는 5인의 주악상이 포함되어 있다.

- 이 외에도 외리출토의 문양전(산수산경문전, 산수봉황문전, 반룡문전, 봉황문전, 산경귀형문전, 연화귀형문전, 연화문전, 유운문전), 추정왕궁지 출토 인면문, 서산 마애삼존불, 금동반가사유상, 구아리출토 곰토제상, 무령왕릉 출토 석수, 유리제 동자상, 각종 금은세공품 및 토기류 등이 있다.

- 이들 문화재는 그 형태를 비롯하여 문양, 상징성 등 많은 백제시대의 문화적 요소를 간직하고 있다. 따라서 이들이 함축하고 있는 의미를 찾아내어 현재화시킴으로써 문화관광상품화 할 수 있다.

(6) 백제관련 민속행사를 활성화시켜 현존하고 있는 관련 문화재와 연계한 관광상품화 및 적극적인 소재 개발.

[참고문헌]

- 강봉원, 「미국의 문화재관리현황과 과제」, 『문화재관리-동서양의 현황과 과제』, 1997, 제40회 대학박물관협회 학술발표회 요지.
- 국립문화재연구소, 『21세기와 문화재연구』, 1999.
- 국립문화재연구소, 『문화재연구 발전계획 및 중장기 사업추진계획』, 2000.
- 김희정, 「문화관광 활성화 방안연구」, 1997, 중앙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문화재관리국, 『백제 고도문화권 문화유적 정비계획(안)』, 1979.
- 문화재관리국, 『백제 고도문화권 유적 조사자료』, 1979.
- 문화재관리국, 『동산문화재관리편람』, 1994.
- 문화재관리국, 『문화재관리연보』, 1-14호(1988-2001년)
- 문화재청, 『문화재 보존관리 중장기 계획』, 2000.
- 문화재청, 『문화재 보존관리 및 활용에 관한 기본계획』, 2002.
- 박동석, 「한국 문화재 행정체제의 발전 방향에 관한 연구」, 동국대학교 석사학위논문, 1996.
- 박준홍, 「관광자원으로서 문화재(유·무형)이용에 관한 연구」, 단국대학교 석사학위논문, 1990.
- 백제문화개발연구원, 『충남지역의 문화유적』 (제1집 천원군, 서천군, 보령군, 예산군, 연기군편), 1986.
- 백제문화개발연구원, 『충남지역의 문화유적』 (제2집 공주군편), 1988.
- 백제문화개발연구원, 『충남지역의 문화유적』 (제3집 부여군편), 1989.
- 백제문화개발연구원, 『충남지역의 문화유적』 (제4집 논산군편), 1990.
- 백제문화개발연구원, 『충남지역의 문화유적』 (제5집 아산·온양시편), 1991.
- 백제문화개발연구원, 『충남지역의 문화유적』 (제6집 당진군편), 1992.
- 백제문화개발연구원, 『충남지역의 문화유적』 (제7집 천안시·천안군편), 1993.
- 백제문화개발연구원, 『충남지역의 문화유적』 (제8집 청양군편), 1995.
- 백제문화개발연구원, 『충남지역의 문화유적』 (제9집 예산군편), 1995.
- 백제문화개발연구원, 『충남지역의 문화유적』 (제10집 서천군편), 1996.
- 백제문화개발연구원, 『충남지역의 문화유적』 (제11집 보령군편), 1997.
- 백제문화개발연구원, 『충남지역의 문화유적』 (제12집 천원군, 서천군, 보령군, 예산군, 연기군편), 1986.
- 서정석, 『충남지역 백제유적의 조사현황과 과제』, 충남발전연구원, 1999.
- 오장홍, 「문화재관리상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 경상북도를 중심으로」, 경북대학교 석사학위논문, 1996.

유네스코 한국위원회, 「지방자치시대의 문화유산 보호와 과제」, 1997.

유원재 편, 『백제의 역사와 문화』, 학연문화사, 1996.

윤용혁, 「백제문화권 개발과 충남발전」, 『열린충남』 창간호, 1995.

이강승, 「백제문화권개발의 현황과 과제」, 『열린충남』 제3권 제4호, 1997.

이남석, 「충남지역 백제유적의 연구현황과 과제」, 『열린충남』 제3권 제4호, 1997.

이원식, 「고도의 보존 및 개발촉진 방안 : 경주시」, 1998, 경북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임재해, 『지역문화와 문화산업』, 지식산업사, 2000.

전라남도·목포대학교박물관, 『전남의 고대유적 보존 및 활용방안』, 2000.

정문교, 『문화재행정과 정책』, 지식산업사, 2000.

최준구, 「문화관광자원개발에 관한 연구-보은군을 중심-」, 1996.

충남대학교 백제연구소, 『부여지구 유적조사 및 정비계획안』, 1979.

충청남도, 『문화유적총람』 (사찰편), 1990.

충청남도, 『문화유적총람』 (성곽·관아편), 1991.

충청남도, 『문화유적총람』 (금석문편), 1993.

충청남도·공주대학교박물관, 『문화유적분포지도 공주시』, 1998.

충청남도·공주대학교박물관, 『문화유적분포지도 태안군』, 2000.

충청남도·공주대학교박물관, 『문화유적분포지도 홍성군』, 2002.

충청남도·충남대학교박물관, 『문화유적분포지도 부여군』, 1998.

충청남도·충남발전연구원, 『문화유적분포지도 서산시』, 1998.

충청남도·충남발전연구원, 『문화유적분포지도 논산시』, 1999.

충청남도·충남발전연구원, 『문화유적분포지도 서천군』, 2000.

충청남도·충남발전연구원, 『문화유적분포지도 예산군』, 2001.

충청남도, 『백제역사재현단지조성 조사연구보고서』, 1996.

한국대학박물관협회, 『문화재관리-동서양의 현황과 과제』, 제40회 대학박물관협회 학술발표회 발표요지, 1997

학연문화사, 『문화재의 보존과 활용을 위한 한 중 일 국제학술 심포지엄』, 1998.(동국대학교 문화예술대학원)

한국고고학회, 『매장문화재 발굴전문기관 육성방안 연구결과 보고서』, 1997.

한국관광공사, 『한국문화유산 관광상품화방안』, 1996.

호남문화재연구원, 『호남의 문화유산, 그 보존과 활용』, 학연문화사, 1999.

부록 1. 충남의 시·군별 백제 문화재 현황

[표 1] 공주시

번호	유 적 명	소 재 지	비 고
1	검상동 와요지	검상동	
2	교동 유적	교동 176-1	
3	교촌리 고분군	교동	
4	공산성 수구문지	금성동 공산성내	
5	공산성 임류각지	금성동 공산성내	
6	공산성 추정왕궁지	금성동 공산성내	
7	공산성 추정왕궁지 연못	금성동 공산성내	
8	공산성 목곽고	금성동 공산성내	
9	공산성 굴건식 건물지	금성동 공산성내	
10	공산성 백제 건물지	금성동 공산성내	
11	공산성 서문지 후면 건물지	금성동 공산성내	
12	공산성 저장혈군	금성동 공산성내	
13	공산성 만하루지	금성동 공산성내	
14	공산성 영은사앞 백제연지	금성동 산11번지	
15	송산리 고분군	금성동 산78-1외 8필	사적 13호
16	무령왕릉	금성동	
17	송산리 6호 전축분	금성동	
18	송산리 1호 석축분	금성동	
19	송산리 2호 석축분	금성동	
20	송산리 3호 석축분	금성동	
21	송산리 4호 석축분	금성동	
22	송산리 파괴 석축분	금성동	
23	송산리 5호 석축분	금성동	
24	송산리 7호 석축분	금성동	
25	송산리 8호 석축분	금성동	
26	송산리 29호 석축분	금성동	
27	금성동 정지산 백제유적	금성동 산2-1 정지산	
28	금학동 남산 고분군	금학동	
29	금학동 우금치 고분군	금학동 주미동	
30	금학동 능치 고분군	금학동 신기동	
31	금학동 고분군	금학동	
32	반죽동 대통사지	반죽동 301외 1필	
33	반죽동 대통교 초석	반죽동	
34	봉정동 고분군	봉정동	
35	공산성	산성동 2외 207필	사적 12호
36	주미사지	주미동 567외	기념물 제38호
37	공산성 연지	금성동 58	기념물 제42호
38	정지산 백제유적	금성동 산1외	기념물 제147호

39	산성동 유적	산성동 산 166-24번지	
40	상왕동 고분	상왕 2동 큰골목	
41	신관동 석실고분	신관동 시목골 14	기념물 제7호
42	신관동 취리산 고분군	신관동 취리산	
43	신기동 능암사지	신기동	
44	신기동 고분군	신기동	
45	옥룡동 수원사지	옥룡동 111외 2필	기념물 제36호
46	옥룡동 수원사지 석탑지	옥룡동 수원골	
47	옥룡동 옥녀봉성	옥룡동 산 2-1	기념물 제99호
48	옥룡동 월성산 고분군	옥룡동 월성산	
49	옥룡동 보통골 고분군	옥룡동 보통골	
50	웅진동 서혈사지	웅진동 207-3	기념물 제37호
51	웅진동 고분군①	웅진동 610~4	
52	웅진동 고분군②	웅진동	
53	웅진동 고분군③	웅진동	
54	박산소 고분군	웅진동 610	
55	웅진동 곰나루	웅진동	
56	주미동 주미사지 석탑	주미동	
57	주미동 주미사지 석등대석	주미동	
58	오곡리 고분군	주미동 오곡리	
59	무녕왕릉출토 금제관식(왕), 1쌍	중동 284-1 국립공주박물관	국보 154호
60	무녕왕릉출토 금제관식(왕비), 1쌍	중동 284-1 "	국보 155호
61	무녕왕릉출토 금제심엽형이식(왕), 1쌍	중동 284-1 "	국보 156호
62	무녕왕릉출토 금제수하부이식(왕비), 2쌍	중동 284-1 "	국보 157호
63	무녕왕릉출토 금제경식(왕비), 2점	중동 284-1 "	국보 158호
64	무녕왕릉출토 금제뒤꽂이, 1점	중동 284-1 "	국보 159호
65	무녕왕릉출토 금제팔찌(왕비), 1쌍	중동 284-1 "	국보 160호
66	무녕왕릉출토 청동신수경	중동 284-1 "	국보 161호
67	무녕왕릉출토 석수	중동 284-1 "	국보 162호
68	무녕왕릉출토 지식	중동 284-1 "	국보 163호
69	무녕왕릉출토 두침	중동 284-1 "	국보 165호
70	무녕왕릉출토 족좌(왕)	중동 284-1 "	국보 164호
71	중동 석조	중동 284-1 국립공주박물관	보물 제148호
72	반죽동 석조	중동 284-1 "	보물 제149호
73	능암사지출토 금동여래입상	중동 284-1 "	
74	의당 금동보살입상	중동 284-1 "	국보 제247호
75	구룡사지	반포면 상신리 389외	기념물 제39호

76	구암리 고분군	이인면 구암리	
77	만수리 고분군	이인면 만수리	
78	목동리 이인산성	이인면 목동리	
79	산의리 유적	이인면 산의리	
80	용성리 산성	이이면 용성리 1구 누에머리	
81	남산리 고분군②	탄천면 남산리	
82	분강리 고분군	탄천면 분강리	
83	송학리 고분군	탄천면 송학리	
84	화정리 유적	탄천면 화정리	
85	신원사	계룡면 양화리	
86	중장리 고분	계룡면 중장리	
87	중장리 산성	계룡면 중장리 3구	
88	화은리 점골 고분군	계룡면 화은리 점골	
89	국곡리 고분군	반포면 국곡리	
90	봉암리 고분군	반포면 봉암리	
91	송곡리 외송 고분군	반포면 송곡리	
92	봉안리 고분군	장기면 봉안리	
93	송문리 사지	장기면 송문리	
94	은용리 산성①	장기면 은용리	
95	송정리 산성	의당면 송정리, 장기면 송문리	
96	오인리 산성	의당면 오인리, 우성면 반촌리	
97	월곡리 동혈사지	의당면 월곡리	
98	율정리 산성	의당면 율정리	
99	광정리 산성	정안면 광정리	
100	내촌리 유적(I)	정안면 내촌리	
101	단지리 산성	우성면 단지리	
102	대성리 고분군	우성면 대성리 안골	
103	동대리 고분군	우성면 동대리	
104	보흥리 박선달골 고분군	우성면 보흥리 산 41-1	
105	보흥리 안골 고분군	우성면 보흥리 안골	
106	보흥리 요지	우성면 보흥리 2구	
107	오동리 석실분	우성면 오동리	
108	옥성리 산성	우성면 옥성리 성머리	
109	산정리 신평산성	신평면 산정리	
110	산정리 고분군	신평면 산정리 오얏골	

[표 2] 부여군

번호	유 적 명	소 재 지	비 고
1	가증리 분터고분군	부여읍 가증리	
2	가증리 폐사지	부여읍 가증리	
3	가탑리사지	부여읍 가탑리 273-4	
4	부여나성	가탑리,염창리,석목리,능산리,동남리,군수리 일대	사적 제58호
5	전 백제왕궁지유적	부여읍 관북리 33번지외	도기념물 43호
6	부여 구교리 구드래 일원	부여읍 구교리 563번지 외	사적 및 명승 6호
7	구교리 학리 폐사지	부여읍 구교리 84	
8	구교리 폐사지	부여읍 구교리 84	
9	구교리 건물지	부여읍 구교리	
10	구아리 향교발 폐사지	부여읍 구아리	
11	구아리 백제유적	부여읍 구아리 64번지 외	
12	군수리사지	부여읍 군수리 19-1	사적 제44호
13	능산리 서고분군	부여읍 능산리	
14	능산리 동고분군	부여읍 능산리	
15	능산리고분군(왕릉)	부여읍 능산리 산15	사적 제14호
16	능산리 체마소 고분군	부여읍 능산리	
17	능산리 깨방죽골 고분군	부여읍 능산리	
18	능산리 능안골 고분군 2	부여읍 능산리 산36-14	도기념물 102호
19	능산리 능안골 고분군 1	부여읍 능산리	
20	능산리 산막골 고분군	부여읍 능산리	
21	능산리 오살미 고분군	부여읍 능산리	
22	능산리사지	부여읍 능산리 395-1	
23	동남리 전천왕사지	부여읍 동남리 산16-1	도기념물 53호
24	동남리 동산리사지	부여읍 동남리	
25	동남리요지	부여읍 동남리 635	
26	동남리사지	부여읍 동남리 211-1 외	도기념물 50호
27	화지산 서록 건물지	부여읍 동남리	
28	화지산 망해정	부여읍 동남리 산 44	
29	왕궁지	부여읍 동남리 117	사적 제135호
30	정림사지	부여읍 동남리	사적 제301호
31	정림사지 5층석탑	부여읍 동남리	국보 제9호
32	금성산성	부여읍 동남리	
33	상금리 보각골고분군 1	부여읍 상금리	
34	상금리 보각골고분군 2	부여읍 상금리	
35	석목리 폐사지	부여읍 석목리 7	

번호	유 적 명	소 재 지	비 고
36	석목리 관음사지	부여읍 석목리	
37	송곡리 증산골고분군	부여읍 송곡리	
38	송곡리 도장골고분군	부여읍 송곡리	
39	송곡리 가장골고분군	부여읍 송곡리	
40	송곡리 원적골고분군	부여읍 송곡리	
41	낙화암	부여읍 쌍북리	도문화재자료 108호
42	부소산성	부여읍 쌍북리 산4	사적 제5호
43	부소산 와적기단 건물지	부여읍 쌍북리	
44	부소산 수혈집자리	부여읍 쌍북리	
45	부소산 서복사지	부여읍 쌍북리	
46	부여 군창지	부여읍 쌍북리 산4	도 문화재자료 109호
47	부여 팔각정	부여읍 쌍북리 646-10	도 문화재자료 103호
48	쌍북리사지	부여읍 쌍북리	
49	쌍북리 북요지	부여읍 쌍북리 641번지 외	도 기념물 41호
50	쌍북리요지	부여읍 쌍북리 산30-14	사적 제99호
51	청산성	부여읍 쌍북리 6번지외	사적 제59호
52	청산성 화장묘	부여읍 쌍북리 전4번지	
53	쌍북리 건물지	부여읍 쌍북리	
54	쌍북리 폐사지	부여읍 쌍북리	
55	염창리 군돌골고분군	부여읍 염창리	
56	염창리 군돌골고분군(옹관)	부여읍 염창리 산8	
57	염창리 상염마을 고분군	부여읍 염창리	
58	염창리 옹관묘	부여읍 염창리	
59	염창리 도덕골 고분군	부여읍 염창리	
60	염창리 가마골 가마	염창리 가마골	
61	용정리 소룡골 백제건물지	부여읍 용정리 405-12	도기념물 86호
62	용정리 소룡골 와요지	부여읍 용정리 소룡골	
63	청마산성	부여읍 용정리	사적 제34호
64	청마산성 고분군1	부여읍 용정리	
65	청마산성 고분군2	부여읍 용정리	
66	청마산성 고분군3	부여읍 용정리	
67	용정리사지	부여읍 용정리	도기념물 48호
68	저석리 가장골고분군	부여읍 저석리	
69	저석리 오촌골고분군	부여읍 저석리	
70	주장산성	부여읍 정동리	

번호	유 적 명	소 재 지	비 고
71	정동리요지	부여읍 정동리	
72	정동리 가능골 고분군	부여읍 정동리	
73	정동리 밤골사지	부여읍 정동리 80	
74	중정리 건물지	부여읍 중정리 산479	도기념물 54호
75	중정리 당산 화장묘	부여읍 중정리	
76	중정리 당산 석곽묘	부여읍 중정리	
77	현북리 나말고분군	부여읍 현북2리	
78	현북리 회어티고분군	부여읍 현북리	
79	임강사지	부여읍 현북리	도기념물 34호
80	현북리 와요지	부여읍 현북리	
81	현북리 인강재고분군	부여읍 현북1리	
82	규암리 자온대	부여읍 규암리 147	
83	나북리고분군	규암면 나북1리 산21 일대	
84	반산성	규암면 반산리	
85	왕흥사지	규암면 신리 48번지 외	도기념물 33호
86	신리 울성산성	규암면 신리	
87	신리 와요지	규암면 신리	
88	신리 왕안리고분군	규암면 신리	
89	증산성	규암면 신성리 산 86번지	사적 제156호
90	신성리 사자봉산성	규암면 신성리	
91	외리사지	규암면 외리	
92	외리산성	규암면 외리	
93	진변리 부산성	규암면 진변리	
94	합정리고분군	규암면 합정리	
95	호암사지	규암면 호암리	도기념물 32호
96	천정대	규암면 호암리	도기념물 49호
97	가중리고분군	은산면 가중1리	
98	가중리 미녀봉산성	은산면 가중리	
99	금강사지	은산면 금곡리	사적 제435호
100	내지리고분군	은산면 내지리	
101	은산리 이중산성	은산면 은산리	
102	수신리 신근마을 고분군	외산면 수신리 신근마을	
103	지선리고분군	외산면 지선리	도기념물 87호
104	화성리 추정고분군	화성리 마전마을	

번호	유 적 명	소 재 지	비 고
105	구봉산성	구룡면 구봉리	
106	논치산성	구룡면 논치리	
107	태양리고분군	고룡면 태양리	도기념물 45호
108	현암리고분군	구룡면 현암2리	
109	북촌리산성	홍산면 북촌리	
110	봉산리고분군	옥산면 봉산리	
111	중앙리고분군	옥산면 중량리 산24	
112	학산리고분군	옥산면 학산리	
113	홍연리고분군	옥산면 홍연리	
114	회동리고분군	남면 회동리	
115	초왕리 누르개재산성	양화면 초왕리 누르개재	
116	초왕리고분군	양화면 초왕2리 새울부락	
117	가신리고분군	임천면 가신3리	
118	성흥산성 고분군	임천면 구교리 산12-1	
119	대조사	임천면 구교리 761	
120	구교리 동뜸고분군	임천면 구교1리 717	
121	성흥산성	임천면 군사리 산1-1	사적 제4호
122	두곡리고분군	임천면 두곡리 산37-1	
123	점리고분군	임천면 점리 안현마을	
124	탑산리고분군	임천면 탑산리 달산마을	
125	증산성	장암면 북고리 산1	사적 제156호
126	상황리 전백제왕릉	장암면 상황리 왕림마을	
127	상황리고분군	장암면 상황리 왕림마을	
128	석동리고분군	장암면 석동3리 공도마을	
129	원문리 이목치산성	장암면 원문리	
130	점상리고분군	장암면 점상리 양지뜸마을	
131	정암리고분군	장암면 정암리	
132	정암리와요지	장암면 정암리 산41번지	사적 제373호
133	지토리고분군	장암면 지토3리 태동마을	
134	하황리 시랭이산성	장암면 하황리	
135	사산리고분군	세도면 사산2리 목골마을	
136	화수리 토성산성	세도면 화수리	
137	석성산성	석성면 현내리 83번지	사적 제89호
138	세탑리고분군	초촌면 세탑리	

[表 3] 논산시

번호	유 적 명	위 치	비 고
1	표정리고분군1	연산면 표정리 상표정	기념물 제94호
2	표정리고분군2	연산면 표정리 1구	
3	표정리고분군3	연산면 표정리 1구 산 15번지	
4	표정리고분군4	연산면 표정리 하표정	
5	육곡리고분군1	가야곡면 육곡리 벼슬부락	기념물 제95호
6	육곡리고분군2	가야곡면 육곡리	
7	신흥리고분군1	양촌면 신흥리	
8	모촌리고분군	양촌면 모촌리	
9	덕암리고분군	연산면 덕암리 1구	
10	표정리고분군5	연산면 표정리	
11	지경리고분군	상월면 지경리 2구 왕우내마을 뒷산	
12	상도리고분군	상월면 상도리	
13	신충리고분군	상월면 신충리	
14	노치리고분군	노성면 노치리	
15	하도리고분군2	노성면 하도리 성채동	
16	하도리고분군2	노성면 하도리 1구 요동마을	
17	항월리고분군	광석면 항월리 유동마을	
18	병사리고분군	노성면 병사리	
19	송당리고분군	노성면 송당리 송당마을	
20	엄사리고분군	두마면 엄사리 신도안	
21	채광리고분군	양촌면 채광리	
22	산직리고분군	양촌면 산직리 승적골마을	
23	신흥리고분군2	양촌면 신흥리	
24	황산성	연산면 표정리	기념물 제56호
25	외성리산성	부적면 서외성리	기념물 제277호
26	청동리산성	연산면 청동리	
27	모촌리산성	양촌면 모촌리	
28	산직리산성	양촌면 산직리	
29	황화산성	논산읍 등화동 산 1	기념물 제92호
30	노성산성	노성면 송당리 산 1	사적 제393호
31	매화산성	가야곡면 양지리	
32	황령산성	양촌면 신암리 함박봉	
33	웅치산성	별곡면 금천리, 양촌면 산직리	
34	병사리요지	노성면 병사리	
35	달이산성	별곡면 수락리	
36	갈마산성	가야곡면 병암리	
37	계백장군 전승지	부적면 신평리 산4	기념물 제74호

[表 4] 연기군

번호	유 적 명	소 재 지	비 고
1	와촌리 토기출토지	조치원읍 와촌리	
2	갈산리고분군	동면 갈산리	
3	이성산성	전의면 신방리	기념물 제77호
4	운주산성	전의면 청송리	기념물 제79호
5	읍내리산성	전의면 읍내리	
6	진의리 토성	남면 진의리	
7	당산성	남면 연기리, 북통리	
8	비암사	전의면 다방리 서남	

[表 5] 홍성군

번호	유 적 명	소 재 지	비 고
1	백월산성	홍성군 홍성읍	
2	태봉산성	광천읍 담산리	
3	여양산성	장곡면 산성리	
4	학성산성	장곡면 산성리	
5	결성산성	결성면 읍내리 석당산	
6	석성산성	장곡면 산성리	
7	성호리고분군	결성면 성호리 산18-2	발굴조사(6세기전반)
8	신금성	결성면 금곡리 228-1	기념물 제149호
9	장곡산성	장곡면 산성리 산28-2	문자 제360호
10	월산리고분군	홍성읍 월산리	
11	남장리 토기산포지	홍성읍 남장리 구름나리	
12	송월리 영암고분군	홍성읍 송월리 영암	
13	송월리 송암고분군	홍성읍 송월리 송암	
14	신진리 토기산포지	광천읍 신진리	
15	운용리 운동고분군	광천읍 운용리 운동	
16	벽계리고분군	광천읍 벽계리 와중	
17	구정리 방죽골고분군	홍동면 구정리	
18	반교유물산포지	홍동면 신기리 반교	
19	옥계리2구 고분군	장곡면 옥계리 2구 제실마을	
20	성호리 후청동고분군	결성면 성호리 후청동	
21	독골 유물산포지	결성면 교항리 자은동 독골	
22	용동고분군	결성면 교항리 용동	
23	양곡리고분군	서부면 양곡리	
24	하대고분군	구항면 황곡리 하대	

[表 6] 청양군

번호	유 적 명	소재지	비 고
1	대박리고분군1	정산면 대박리범골	
2	대박리고분군2	정산면 대박리	
3	대박리고분군3	정산면 대박리	
4	본의리고분군	목면 본의리 동막	
5	안심리고분군	목면 안심리 마근동	
6	대평리고분군	목면 대평리 대평골	
7	지곡리고분군	목면 지곡리 중계실	
8	낙지리고분군	장평면 낙지리 소사천	
9	대흥리고분군	청남면 대흥리	
10	후덕리고분군	운곡면 후덕리	
11	광암리고분군1	운곡면 광암리 2구	
12	광암리고분군2	운곡면 광암리 2구 수령골	
13	광암리고분군3	운곡면 광암리 2구	
14	광암리고분군4	운곡면 광암리 고분터	
15	영양리고분군	운곡면 영양리 2구 양지편마을	
16	수석리고분군	대치면 수석리 독골	
17	강정리고분군	비봉면 강정리 갈망골	
18	사점리고분군	비봉면 사점리 사점	
19	방한리고분군	비봉면 방한리 배암실	
20	중목리고분군	비봉면 중목리 지국실	
21	구재리고분군	화성면 구재리 동두말	
22	광평리고분군	화성면 광평리	
23	화암리고분군1	화성면 화암리 공덕	
24	화암리고분군2	화성면 화암리 꽃피골	
25	화암리고분군3	화성면 화암리 새뜸	
26	학당리고분군	청양읍 학당리 여우실	
27	장승리고분군	화성면 장승리 산수골	
28	산정리고분군1	화성면 산정리 정자동	
29	산정리고분군2	화성면 산정리 산악골	
30	화강리고분군	화성면 화강리 멀미	
31	정좌리고분군	청양읍 정좌리 2구	
32	신왕리고분군	청양읍 신왕리	
33	덕성리산성	정산면 덕성리 1구 별초막	
34	두릉산성	정산면 백곡리	기념물 제156호
35	계봉산성	정산면 백곡리 계봉산	
36	백곡리산성	정산면 백곡리	
37	방한리산성	비봉면 방한리 태봉	
38	적루리산성	청양읍 적루리 제미재	

번호	유 적 명	위 치	비 고
39	군량리산성	청양읍 군량리 고군량들	
40	정좌리산성	청양읍 정좌리 1구	
41	태피산성	청양읍 적루리	
42	우산성	청양읍 읍내리 1구	기념물 제81호
43	본의리요지	목면 본의리 동막	
44	왕진리요지	청남면 왕진리 창현	

[表 7] 예산군

번호	유 적 명	위 치	비 고
1	만사리고분군	신양면 만사리	
2	황계리고분군	신양면 황계리 ‘다박골’	
3	노전리고분군	광시면 노전리 ‘안골’	
4	은사리고분군	광시면 은사리 ‘분도골’	
5	대야리고분군	대흥면 대야리 ‘대골’	
6	금곡리고분군	대흥면 금곡리 ‘세월’	
7	사동리고분군	덕산면 사동리 ‘사직동’	
8	신속리토성	대흥면 신속리	
9	상중리산성	대흥면 상중리	
10	임존성	대흥면 상중리 봉수산	사적 제90호
11	대천리산성	고덕면 대천리	
12	산성리산성	예산읍 산성리	
13	상장리산성	고덕면 상장리 ‘개자시’마을	
14	화전리 사면석불	봉산면 화전리	보물 제794호
15	예산산성	예산읍 산성리 482	기념물 제30호
16	서계양리 유물산포지	신양면 서계양리	
17	다박골고분군	신양면 황계리	
18	노전리 안골고분군	광시면 노전리 안골	
19	갈신리 토기산포지	대흥면 갈신리	
20	상중리 중단요지	대흥면 상중리	
21	노화리 유물산포지	웅봉면 노화리	
22	사동토성	덕산면 사동리	
23	금치리 유물산포지	봉산면 금치리	
24	소천태산성	봉산면 시동리	
25	대천태산성	봉산면 시동리	
26	금후산성	고덕면 대천리	
27	대천리 유물산포지	고덕면 대천리	

[表 8] 서산시

번호	유 적 명	위 치	비 고
1	보원사지	운산면 용현리	사적 제316호
2	마애삼존불	운산면 용현리	국보 제84호
3	명지고분군	대산읍 대로리 명지부락	
4	기은리고분군	대산읍 기은리 고양골	
5	금학리고분군	팔봉면 금학리 2구	
6	산성리고분군	지곡면 산성리 2구 첫다리	
7	여미리고분군	운산면 여미리 477-1	
8	신송리산성	고북면 신송리 봉화산	
9	반양리산성	해미면 반양리 성재산	
10	부성산성	지곡면 산성리 1구 부성산	
11	북주산성	서산시 부춘동 부춘산	
12	신정리토기 산포지	고북면 신정리 2구 윗황골	
13	애정리고분군	인지면 애정리 2구	
14	금학리고분군	팔봉면 금학리 2구	
15	진장리산성	팔봉면 진장리 2구	
16	산성리고분군	지곡면 산성리 2구(갈마실)	

[表 9] 당진군

번호	유 적 명	소 재 지	비 고
1	송학리 냉정골고분	면천면 송학리	
2	성동리산성	합덕읍 성동리	
3	당산성	순성면 본리	
4	운정리산성	신평면 운정리	
5	몽산성	면천면 성상리 몽산	

[表 10] 태안군

번호	유 적 명	소 재 지	비 고
1	태안 마애삼존불	태안읍 동문리 817-2	보물 제432호
2	장산리고분군	태안읍 장산리 원장산	
3	달산리산성	남면 달산리 테미재	
4	두야리 구수산성	근흥면 두야리	
5	두야리 용요고분군1	근흥면 두야리 용요	
6	두야리 용요고분군2	근흥면 두야리 용요	
7	수룡리 신춘말고분	근흥면 수룡리	
8	시목리고분군2	소원면 시목리 2구	
9	대기리 돌모루고분	원북면 대기리	
10	장대리고분군	원북면 장대리 1구 솔모루	
11	백화산성	태안읍 동문리	기념물 제212호

[表 11] 보령시

번호	유 적 명	위 치	비 고
1	보령리고분군	보령시 주포면 보령리 산 2번지	
2	장현리고분군	보령시 청라면 장현리	
3	노천리고분군	보령시 웅천읍 노천리 산 15-1번지	
4	구룡리고분군1	보령시 웅천읍 구룡리	
5	구룡리고분군2	보령시 웅천읍 구룡리 차돌뱅이	
6	유곡리고분군	보령시 주산면 유곡리(수곡)	
7	창암리고분군	보령시 주산면 창암리 남전	
8	신구리고분군1	보령시 주산면 신구리 구산	
9	신구리고분군2	보령시 주산면 신구리 죽내	
10	동대동고분군	보령시 동대동 원평	
11	명천동고분군	보령시 명천동 이천	
12	내향동고분군	보령시 내향동 내송	
13	관당리고분군	보령시 웅천읍 관당리	
14	송학리고분군1	보령시 주교면 송학리 1구(척골)	
15	송학리고분군2	보령시 주교면 송학리 1구 남산박골	
16	은포리고분군	보령시 주교면 은포2리 외평	
17	봉성리고분군	보령시 미산면 봉성리 하조	
18	대농리고분군	보령시 미산면 대농리 당골	
19	성주리고분군	보령시 성주면 성주5리	
20	황용리고분군	보령시 청라면 황용리 술당이	
21	창암리고분군	보령시 주산면 창암리	
22	갈현리고분군	보령시 오천면 갈현리	
23	화산동고분군	보령시 화산동 점촌	
24	창암리토성	보령시 주산면 창암리 월현	
25	소송리토성	보령시 남포면 소송리 내송	
26	황율리토성	보령시 주산면 황율리	
27	달산리토성	보령시 남포면 달산리	
28	삼곡리산성	보령시 주산면 삼곡리	
29	진당	보령시 청라면 장산리 · 주포면 보령리	
30	고남산성	보령시 주포면 봉당리(고남동)	
31	아현산성	보령시 주포면 연지리 아현	
32	대봉산성	보령시 주포면 세석리 봉사	
33	대천리산성	보령시 웅천읍 대천리	
34	천방유적	보령시 미산면 용수리	
35	성주사지	보령시 성주면 성주리	사적 제307호

[表 12] 천안시

번호	유 적 명	소 재 지	비 고
1	도원2리 고분군	병천면 도원 2리	
2	매송리고분군(2)	북면 매송리	
3	미죽리고분군	풍세면 미죽리	
4	삼곡리고분	성거읍 삼곡리	
5	대정리고분	성남면 대정리 초정마을	
6	용원리고분군	성남면 용원리 돌고개	
7	화성리고분	성남면 화성리	
8	청당동고분	천안시 청당동	
9	신평리 감절고분군	수신면 신평리 1구	
10	신평리 독골고분군	수신면 신평리 독골	
11	보산원리 1구 고분군	광덕면 보산원리 1구	
12	석천리 먹방고분	목천면 석천리 먹방마을	
13	서흥리 읍말고분	목천면 서흥리 2구 읍말	
14	청당동산성	천안시 청당동	
15	일봉산성	천안시 용곡동	
16	월봉산성	천안시 불당동	
17	사산성	직산면 군동리	기념물 제104호
18	위례산성	북면 운흥리	기념물 제148호
19	목천토성	목천면 남화리	
20	세성산성	성남면 화성리	기념물 제105호
21	두남리산성	풍세면 두남리	
22	광덕산성	동면 광덕리	
23	동성산성	동면 도원리	
24	화계리산성	동면 화계리	
25	서림산성	동면 수남리	
26	성산산성	직산면 관서리	
27	하장토성	동면 장송리	
28	덕전 1구 토기요지	목천면 덕전 1구	
29	백석동토성	천안시 백석동	기념물 제106호
30	흑성산성	목천면 구교리	문화재자료 제364호

[表 13] 아산시

번호	유 적 명	위 치	비 고
1	鶴城山城	아산시 신창면 읍내리 학성산	문화재자료 제24호
2	白岩里山城	아산신 엄치면 백암리	
3	水漢山城	아산신 음봉면 송촌리	
4	城内里山城	아산시 영인면 성내리	
5	배방산성	배방면 신흥리 산19 외	기념물 제67호

[表 14] 서천군

번호	유 적 명	위 치	비 고
1	옥포리고분군	서천군 화양면 옥포리 2구	
2	산천리고분군	서천군 종천면 산천리	
3	화산리고분군	서천군 종천면 화산리 수리넘어재	
4	종천리고분군	서천군 종천면 종천리 어랭이재	
5	칠지리고분군	서천군 비인면 칠지리 사동마을	
6	관리고분군	서천군 비인면 관리	
7	성내리고분군	서천군 비인면 성내리 관청	
8	신송리고분군	서천군 서천읍 신송리	
9	둔덕리고분	서천군 서천읍 둔덕리 둔데기	
10	당정리고분군	서천군 종천면 당정리 3구	
11	수암리고분군	서천군 문산면 수암리 애미정골	
12	풍정리고분군	서천군 시초면 풍정리 분터굴	
13	오석리고분군1	서천군 서천읍 오석리 기동마을	
14	오석리고분군2	서천군 서천읍 오석리 진재	
15	한성리고분군	서천군 마서면 한성리 마동	
16	덕암리고분군	서천군 마서면 덕암리 조고산	
17	계동리고분군	서천군 마서면 계동리 계룡	
18	창외리고분군	서천군 화양면 창외리	
19	장선리고분군	서천군 마서면 장선리 아포	
20	봉명리고분군	서천군 화양면 봉명리 신기	
21	이사리고분군	서천군 마서면 이사리 갑저울	
22	남당리고분군	서천군 비인면 남당리 통박골	
23	성북리고분군1	서천군 비인면 성북리 기럭재	
24	성북리고분군2	서천군 비인면 성북리 원덕굴	
25	두왕리고분군	서천군 서천읍 두왕리 돈담매	
26	옥산리고분군	서천군 장항읍 옥산리 가장피마을	
27	신송리고분군	서천군 서천읍 신송리 장마루	
28	성북리산성	비인면 성북리 새터말 뒷산	
29	월명산성	비인면 성내리 월명산	
30	장포리산성	비인면 성내리 월명산	
31	장구리산성	종천면 장구리 테피산	
32	한성리산성	마서면 한성리	
33	남산성	서천읍 남산리·마서면 봉남리	기념물 제96호
34	둔덕리산성	서천읍 둔덕리 테피산	
35	지원리산성	문산면 지원리 산 5	
36	산천리산성	종천면 산천리 회리산	
37	금덕리 와요지	서천군 판교면 금덕리 만덕부락	

[表 15] 금산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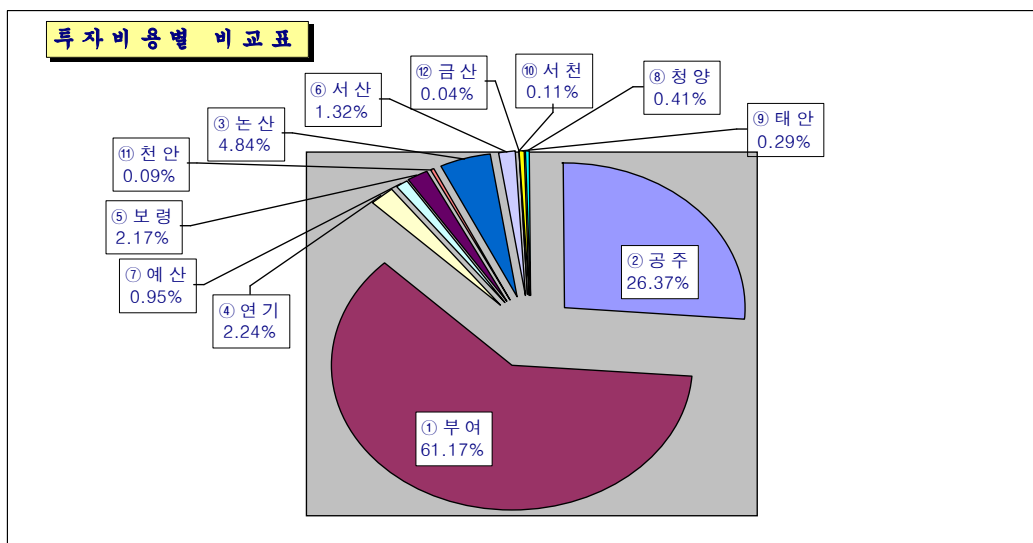
번호	유 적 명	소 재 지	비 고
1	진산성	진산면 읍내리	
2	곡남리산성	북수면 곡남리	
3	만악리산성	진산면 만악리	
4	계진리산성	금산읍 계진리	
5	금성산성	금성면 마수리	
6	핏재산성	금성면 마수리 핏재	
7	마전리산성	추부면 마전리 · 추정리 · 용지리	
8	천내리산성	제원면 천내리	
9	계원봉보루	금성면 마수리	
10	철마산보루	추부면 자모리	
11	백령산성	남이면 건천리	기념물 제83호
12	수당리고분	제원면 수당리	발굴조사
13	수당리주거지	제원면 수당리	발굴조사
14	신평리유물산포지	추부면 신평리 1구	
15	마전리유적	추부면 마전리	
16	추정리유물산포지1	추부면 추정리 1구	
17	추정리유물산포지2	추부면 추정리 1구	
18	추정리유물산포지3	추부면 추정리 1구	
19	추정리유물산포지4	추부면 추정리 1구	
20	내부리유물산포지1	군북면 내부리 2구	
21	내부리유물산포지2	군북면 내부리 2구 암두골	
22	내부리유물산포지3	군북면 내부리 2구 작은시두물골	
23	천을리유물산포지	군북면 천을리 이리리골	
24	용화리유물산포지1	군북면 용화리 1구 아랫말	
25	용화리유물산포지2	군북면 용화리 1구 아랫말	
26	천내리유물산포지	군북면 천내리 3구	
27	수당리유물산포지1	제원면 수당리 2구	
28	수당리유물산포지2	제원면 수당리 2구	
29	수당리유물산포지3	제원면 수당리 2구	
30	구역리유물산포지	제원면 구역리 2구	
31	대산리유물산포지	제원면 대산리	
32	명곡리유물산포지	제원면 명곡리 2구 바리실	
33	동곡리유물산포지	제원면 동곡리 재말	
34	상가리 석곽묘	금성면 상가리	
35	상가리 파괴분	금성면 상가리	

부록 2. 충남 백제문화재 정비현황

[표 1] 백제문화권 개발사업 총괄표(1980~2002년)

(단위 : 천원)

지역명	예산액				발굴비 (1차)	발굴비 (2차)
	계	국비	도비	군비		
합계	97,063,440	61,331,915	24,738,920	10,735,516	1,919,684	70,500
공주	25,724,329	17,215,360	6,864,009	1,644,960	816,490	70,500
부여	58,928,112	37,596,716	14,723,041	6,458,408	799,794	0
연기	2,233,000	1,091,500	585,750	555,750	0	0
예산	942,571	658,000	142,286	142,285	0	0
보령	2,162,541	1,461,700	332,422	368,420	303,400	0
천안	90,000	0	45,000	45,000	0	0
논산	4,824,249	2,012,839	1,532,135	1,279,275	0	0
서산	1,317,783	771,000	356,250	83,391	0	0
금산	36,000	0	18,000	18,000	0	0
서천	108,000	50,000	29,000	29,000	0	0
태안	285,713	187,000	49,357	49,356	0	0
청양	411,142	287,800	61,671	61,671	0	0



[표 2] 충남지역 각 시·군별 백제문화재 정비현황(1980~2002년)

(공주)

(단위 : 천원)

유적명	예산액					
	계	국비	도비	군비	발굴비 (1차)	발굴비 (2차)
14곳	25,724,329	17,215,360	6,864,009	1,644,960	476,890	70,500
공산성 (사적 12호)	11,851,554	8,634,700	3,216,854		199,960	27,500
송산리고분군 (사적 13호)	10,063,778	6,393,560	2,718,934	951,284		
무령왕릉 학술세미나	50,000		50,000			
동성왕릉지	400,000	200,000	100,000	100,000		
남혈사지 (지기 35호)	180,000	90,000	45,000	45,000	39,000	
구룡사지 (지기 39호)	821,000	410,500	205,250	205,250	63,300	43,000
대통사지	1,236,569	865,600	277,757	93,212		
반죽동 당간지주 (보물 150호)	301,428	211,000	45,214	45,214	35,630	
신관동 석실고분 (도지기 7호)	80,000	40,000	20,000	20,000		
수원사지 (도지기 36호)	180,000	90,000	45,000	45,000		
서혈사지 (지기 351호)	100,000	50,000	25,000	25,000		
주미사지 (도지기 38호)	250,000	125,000	62,500	62,500	111,000	
동혈사지	60,000	30,000	15,000	15,000		
제라회맹단지	150,000	75,000	37,500	37,500	28,000	

(부여)

(단위 : 천원)

유적명	예산액					
	계	국비	도비	군비	발굴비 (1차)	발굴비 (2차)
26곳	58,928,112	37,596,716	14,723,041	6,458,408	799,794	0
부소산성 (사적 5호)	13,345,111	9,487,967	3,680,716	176,428	54,000	

유적명	예 산 액					
	계	국비	도비	군비	발굴비 (1차)	발굴비 (2차)
정립사지 (사지 301호)	14,164,142	9,039,644	3,661,806	1,462,692	62,000	
능산리 고분군 (사적 14호)	1,618,741	1,239,990	378,751		19,800	
백제고분군 (사적 14호)	249,857	207,000	42,857			
부여나성 (사적 58호)	4,988,941	3,396,298	913,198	542,355	402,316	
백제왕궁지 (사적 428호)	8,499,571	4,363,500	2,236,071	1,900,000	68,325	
구드래 일원 (사적 명승 6호)	1,271,428	890,000	254,999	126,429		
화지산일원 유적 (사적 425호)	428,571	300,000	128,571			
팔충사 (비문화)	13,000		5,500	7,500		
궁남지 (사적 135호)	5,043,864	3,529,727	1,130,566	383,571	91,353	
동남리 전 이궁 지	6,000		3,000	3,000		
성흥산성 (사적 4호)	611,426	428,000	149,141	34,285	32,000	
정암리 와요지 (사적 373호)	389,999	273,000	52,072	52,070		
구아리 백제유적 (도지기 88호)	1,512,000	756,000	378,000	378,000		
은산 별신제 (중무 9호)	714,600	357,300	178,650	178,650		
동남리 사지 (지기 50호)	566,000	323,000	151,500	91,500	70,000	
천왕사지 (사적 88호)	100,000	50,000	50,000			
왕흥사지 (도지기 33호)	3,540,000	1,770,000	885,000	885,000		
군수리 사지 (사적 44호)	468,571	328,000	98,143	42,428		
중정리 건물지 (도지기 54호)	210,000	105,000	52,500	52,500		
금강사지 (사적 435호)	50,000	25,000	12,500	12,500		
임강사지 (도지기 34호)	60,000	30,000	15,000	15,000		
호암사지 (도지기 32호)	50,000	25,000	12,500	12,500		
상항리 고분군 (비지정)	100,000	50,000	25,000	25,000		
능안골 고분군 (사적 420호)	920,000	616,000	227,000	77,000		
용정리 사지 (도지기 48호)	6,290	6,290				

(기타지역)

(단위 : 천원)

지역명	유적명	예 산 액				발굴비 (1차)	발굴비 (2차)
		계	국비	도비	군비		
연기	2곳	2,233,000	1,091,500	585,750	555,750	0	0
	비암사 (도지유 79호)	1,361,000	655,500	367,750	337,750		
	운주산성 (도지기79호)	872,000	436,000	218,000	218,000		
예산	2곳	942,571	658,000	142,286	142,285	0	0
	사면석불 (보물 794호)	94,000	64,000	15,000	15,000		
	임존성 (사적 90)	848,571	594,000	127,286	127,285		
보령	2곳	2,162,541	1,461,700	332,422	368,420	303,400	0
	성주사지 (사적 307호)	2,082,141	1,421,500	312,322	348,320	303,400	
	도미부인 사당 (향토유적)	80,400	40,200	20,100	20,100		
천안	1곳	90,000	0	45,000	45,000	0	0
	위례산성 (문자 262)	90,000		45,000	45,000	0	0
논산	3곳	4,824,249	2,012,839	1,532,135	1,279,275	0	0
	계백장군 유적 (도지기 74호)	4,270,000	1,660,000	1,410,000	1,200,000		
	노성산성 (사적 393호)	534,249	352,839	112,135	69,275		
	황화산성 (도지기 92)	20,000		10,000	10,000		
서산	2곳	1,317,783	771,000	356,250	83,391	0	0
	마애삼존불 (국보 84호)	42,071	25,000	8,536	8,535		
	보원사지 (보물 105호)	1,275,712	746,000	347,714	74,856		
금산	1곳	36,000	0	18,000	18,000	0	0
	장대리 고분군 (향토유적)	36,000		18,000	18,000		

지역명	유적명	예 산 액					
		계	국비	도비	군비	발굴비 (1차)	발굴비 (2차)
서천	2곳	108,000	50,000	29,000	29,000	0	0
	추정백제건물지 (비지정)	8,000		4,000	4,000		
	남산성 (도지기 96)	100,000	50,000	25,000	25,000		
태안	1곳	285,713	187,000	49,357	49,356	0	0
	태안 마애삼존불 (보물 432)	285,713	187,000	49,357	49,356	0	0
청양	1곳	411,142	287,800	61,671	61,671	0	0
	장곡사	411,142	287,800	61,671	61,671	0	0

[표 3] 각 시·군 문화재별 정비내역(1980~2002년)

(공주)

(단위 : 천원)

년도	유적 및 공사내용	예 산 액				발굴비 (1차)	발굴비 (2차)
		계	국비	도비	군비		
총계	70개 사업	25,724,329	17,215,360	6,864,009	1,644,960	816,490	70,500
소계	공산성 (사적 12호)	11,851,554	8,634,700	3,216,854	0	199,960	27,500
1980	○ 성곽 보수	106,000	106,000				
1981	○ 성곽 보수	235,000	235,000				
1982	○ 성곽 보수 (260m+50m=310m) ○ 연지발굴, 유구정비 ○ 연지 월동대책	115,000	115,000				
1982	○ 성곽보수 537m	106,000	106,000				
1983	○ 성내 건물지 정비(만 하루 중건 28.25㎡) ○ 연지 발굴, 퇴적토 제거 (854㎥)	100,000	100,000				
1984	○ 지당보수, 지당주변 정비보수(배수로) ○ 여담설치, 암문 및 수구문 지출 수구조사 ○ 안내판 설치	100,000	100,000				
1985	○ 익성 복원 68m ○ 산성 복원 ○ 암문 및 수구문지 유 구 정비 ○ 지당주변 조경 ○ 토지매입 67평 ○ 가옥 철거 1동 18평 ○ 왕궁지 발굴	157,142	110,000	47,142		10,200	27,500
1986	○ 토성 보수 ○ 석축 보수 ○ 공복루 보수 ○ 광복루 보수 ○ 왕궁지 발굴 ○ 진남루 성벽(추가공사)	171,428	120,000	51,428		31,700	
1987	○ 토성 보수 198m ○ 발굴지 유구 정비 ○ 중군영지 발굴조사 ○ 토지 매입	135,857	95,100	40,757			

년도	유적 및 공사내용	예 산 액				발굴비 (1차)	발굴비 (2차)
		계	국비	도비	군비		
1988	○성곽 보수 341.5m ○성곽복원 58m ○건물보수-만하루 8.54평 ○암문 및 연지 보수 ○성내 배수로 정비 1,180m ○성곽미석 성첩 보수 및 강회 다짐 ○수목제거 ○토지 4.5평, 가옥1동	366,700	366,700				
1988	○토성보수 50 ○발굴지 유구정비 ○발굴조사-토성:400㎡, 건물지:5,200㎡ ○토지 매입 6,301㎡	194,000	135,800	58,200		38,800	
1989	○성곽 보수 ○고건물 보수 ○발굴조사 ○가옥(4동) - 토지 매입 1,309평 ○서문복원 주변 정비	899,286	629,500	269,786		33,000	
1990	○화장실 신축 ○발굴조사 700평 ○유구정비 ○토지매입 433평 ○가옥철거 5동	1,358,000	950,600	407,400		39,000	
1992	○보도 포장 ○배수로 설치 ○건물지 4개소 정비 ○조경 ○음수대 1개소	714,285	500,000	214,285			
1993	○임류각 및 동문 단청 ○화장실 신축 ○순환도로 정비 ○진입로 정비 ○기타산성 정비 ○시굴조사 ○토지 매입	578,571	405,000	173,571		47,260	
1994	○가로등 설치 ○토지 매입 ○성곽 보수	600,000	420,000	180,000			
1997	○토지 매입	914,285	640,000	274,285			

년도	유적 및 공사내용	예 산 액				발굴비 (1차)	발굴비 (2차)
		계	국비	도비	군비		
1998	○토지 매입 ○건물 매입 철거 ○성곽 보수	1,000,000	700,000	300,000			
1999	○토지 매입 800평 ○건물 매입, 철거 4동	714,286	500,000	214,286			
2000	○토지, 건물 매입 철거 ○누각 보수	1,000,000	700,000	300,000			
2001	○토지 매입	1,000,000	700,000	300,000			
2002	○토지, 건물 매입	1,285,714	900,000	385,714			
소계	송산리고분군 (사적 13호)	10,063,778	6,393,560	2,718,934	951,284		
1981	○토지 매입 ○공동묘지 이전	136,000	136,000				
1981	○토지 매입, 가옥 이전	84,710	84,710				
1982년	○고분전시관 건립 1동	220,000	220,000				
1983년	○토지매입 5,833평 ○가옥이전 5동 ○공동묘지 이전 500기	136,000	136,000				
1983	○고분군 복원 ○조경	168,000	168,000				
1984	○무령왕릉 누수방지 공사 ○자연석 배수로 90m ○웁스 549m ○생목수벽 549m ○우회도로 4m ○정문배수로 20m ○진입로 확장 70m	85,000	85,000				
1985	○조경 ○외곽경계 웁스 설치 ○편의시설 및 경내 정비 ○안내판 설치 B형 ○토지매입 및 가옥 철거 ○유물 모조(9점:왕관, 두침, 목관편 등)	120,000	84,000	36,000			
1986	○관리사무소 이전, 신축(20평) ○경내 정비	71,428	50,000	21,428			

년도	유적 및 공사내용	예 산 액				발굴비 (1차)	발굴비 (2차)
		계	국비	도비	군비		
1987	○ 고분내부 보수(5,6호분 조명시설) ○ 배수로 정비 ○ 무령왕릉 모형관 환기구 설치 ○ 진입로 포장	35,571	24,900	10,671			
1988	○ 화장실 신축 12평	48,500	33,950	14,550			
1989	○ 무령왕릉 누수 또는 결로 방지 시설 ○ 왕릉 배수구 보수 ○ 모형관 앞 광장 포장 ○ 5호고분 보수	50,000	35,000	15,000			
1990	○ 무령왕릉 보수 ○ 외곽 보호책 설치 ○ 발굴고분 정비 ○ 주변 조경 ○ 토지 매입 ○ 가옥철거	300,000	210,000	90,000			
1992	○ 조경 ○ 화장실 철거 ○ 토지 매입	171,428	120,000	51,428			
1994	○ 토지 매입 ○ 고분 보수 ○ 관람로 보수 ○ 자료 수집 ○ 주변 전기공사	928,571	650,000	278,571			
1997	○ 무령왕릉 및 5,6호분 보수	437,142	306,000	65,571	65,571		
1998	○ 모형관 고분 조성 ○ 누수방지 공사	571,428	400,000	85,714	85,714		
1999	○ 모형관 건립 1식	571,429	400,000	85,715	85,714		
1999	○ 모정, 후원, 우물 보수	200,000	100,000	100,000			
1999	○ 모의광장 조성 광장 조경 편의시설설치	400,000	200,000	200,000			
2000	○ 고분 조성, 임시 전시관 설치	1,428,571	1,000,000	214,286	214,285		
2001	○ 모형관 전시연출	2,000,000	1,000,000	500,000	500,000		
2002	○ 모형관 전시실 ○ 고분내부시설 보완 ○ 주변 정비	1,900,000	950,000	950,000			
소계	무령왕릉 학술세미나	50,000	0	50,000	0	0	
1991	○ 대회개최 책자 발간	50,000		50,000			

년도	유적 및 공사내용	예 산 액				발굴비 (1차)	발굴비 (2차)
		계	국비	도비	군비		
소계	동성왕릉지	400,000	200,000	100,000	100,000	378,600	
1994	○지표 조사	300,000	150,000	75,000	75,000	282,100	
1996	○지표 정밀조사 및 보 고서 발간	100,000	50,000	25,000	25,000	96,500	
소계	남혈사지 (지기 35호)	180,000	90,000	45,000	45,000	0	0
1990	○사지 발굴조사 ○토지 매입 980평	80,000	40,000	20,000	20,000		
1992	○발굴지 정비(안내판 1개소, 보호책 설치) ○토지매입	100,000	50,000	25,000	25,000		
소계	구룡사지 (지기 39호)	821,000	410,500	205,250	205,250	63,300	43,000
1990	○사지 시굴조사 658평 ○발굴조사 1400평 ○토지매입 270평	80,000	40,000	20,000	20,000	23,000	43,000
1992	○시굴조사 400평 ○발굴지 유구 정비 ○토지매입	80,000	40,000	20,000	20,000	19,700	
1993	○발굴지 유구 정비 ○발굴조사 ○토지 매입	109,000	54,500	27,250	27,250	20,600	
1994	○토지 매입	152,000	76,000	38,000	38,000		
1997	○토지매입	200,000	100,000	50,000	50,000		
1999	○토지 매입 15평 ○구정비 1식	200,000	100,000	50,000	50,000		
소계	대통사지	1,236,569	865,600	277,757	93,212	0	0
1992	○토지 매입 ○건물철거	214,285	150,000	32,143	32,142		
1993	○토지 매입	114,285	80,000	17,143	17,142		
1994	○토지 매입	292,857	205,000	43,929	43,928		
1997	○토지매입	615,142	430,600	184,542			
소계	반죽동 당간지주 (보물 150호)	301,428	211,000	45,214	45,214	35,630	0
1990	○당간지주 보수 ○보호책 등 주변 정비 ○토지 매입 109평 ○가옥철거 1동	100,000	70,000	15,000	15,000		
1999	○발굴조사, 철거지 및 발굴지 정비	60,000	42,000	9,000	9,000	35,630	

년도	유적 및 공사내용	예 산 액				발굴비 (1차)	발굴비 (2차)
		계	국비	도비	군비		
2000	○당간지주 보수 ○주변 정비	71,428	50,000	10,714	10,714		
2001	○담장 설치 및 정비	70,000	49,000	10,500	10,500		
소계	신관동 석실고분 (도지기 7호)	80,000	40,000	20,000	20,000	0	0
1989	○고분 보수, 보호책 설치 ○토지 매입 ○발굴조사 ○토지 매입 1,327평	80,000	40,000	20,000	20,000		
소계	수원사지 (도지기 36호)	180,000	90,000	45,000	45,000	0	0
1989	○발굴조사	80,000	40,000	20,000	20,000		
1992	○발굴지 유구정비 ○토지 매입	100,000	50,000	25,000	25,000		
소계	서혈사지 (지기 351호)	100,000	50,000	25,000	25,000	0	0
1992	○발굴지 정비(C형안내 관 1개소, 잔디, 보호 책, 자연석축, 배수로) ○토지매입	100,000	50,000	25,000	25,000		
소계	주미사지 (도지기 38호)	250,000	125,000	62,500	62,500	111,000	0
1997	○토지매입 ○발굴조사	250,000	125,000	62,500	62,500	111,000	
소계	동혈사지	60,000	30,000	15,000	15,000	0	0
1997	○발굴조사 ○발굴지 정비	60,000	30,000	15,000	15,000		
소계	제라회맹단지	150,000	75,000	37,500	37,500	28,000	0
1997	○시굴조사 ○발굴지 정비	150,000	75,000	37,500	37,500	28,000	

(부여)

(단위 : 천원)

년도	유적 및 공사내용	예 산 액				발굴비 (1차)	발굴비 (2차)
		계	국비	도비	군비		
총계	164 개 사업	58,928,112	37,596,716	14,723,041	6,458,408	799,794	0
소계	부소산성 (사적 5호)	13,345,111	9,487,967	3,680,716	176,428	54,000	0
1980	○삼층사 중건	122,789	122,789				
1981	○삼층사 중건비 안내판 ○궁녀사 토성 보수 ○삼층사 조경, 토성 보수	96,000	96,000				
1982	○서복사지 유구정비 ○건물보수, 도로정비 ○궁녀사, 사비루도로 정비	90,000	90,000				
1982	○삼층사 중건비 및 안내판 설치 ○궁녀사, 성보수, 삼층사 조경	96,000	96,000				
1983	○군창지 정비 ○영일루 보수 ○백화정 주변 인제책 57m(38칸) ○궁녀사 진입로 보수	85,000	85,000				
1984	○진입로 가옥 26평, 토지매입 1245평 시설물 31건, 유실수 81주 ○인제책 109.5m(73칸), 조경 소나무 50주, 산철쭉 200주 ○반월루 주변 정비, 군창지 계단 1개소	300,000	200,000	50,000	50,000		
1985	○산성정문 신설 ○사자루-백화정-고란사지도 정비 ○토지매입 1715.3㎡(520평) ○가옥 철거 건물 15평	342,857	240,000	102,857			
1986	○진입로 조성 ○담장 설치 ○건물철거 보상 ○토지 매입 ○가옥 매입	400,000	280,000	120,000			

년도	유적 및 공사내용	예 산 액				발굴비 (1차)	발굴비 (2차)
		계	국비	도비	군비		
1987	○사비문 주변 정비(1040평) ○담장 설치(36m) ○반월루 보수(12.25평) ○주차장 정비(875평) ○안내판 설치(A형) ○토지 매입(82.28평) 및 건물 철거(39동) ○시설물 철거(140건), 유실수(112주) ○산성 진입로 포장(120평)	468,571	328,000	140,571			
1987	○서복사지 주변석축 21m ○백화정 동측 계곡 석축 8m ○궁녀사 진입로 정비 130m ○궁녀사 자연석 배수로 설치 110m ○삼층사 입구 자연석 배수로 설치 70m ○삼층사 동측 토성 복구공사 103㎡	31,492	31,492				
1988	○관리사무소 신축:35평 ○사비문 주변 정비 ○순환보도 정비 ○화장실 개축 1동 ○건물 9동 ○시설물 48건 ○토지매입 297평	651,285	455,900	195,385			
1989	○토성 보수 ○삼층사 광장 및 순환보도 정비 ○사비문 진입로 주변 정비, 수혈주거지 정비(움집, 보호각 기초) ○발굴조사 ○건물(12동) ○토지매입 508평 ○화장실 개축	912,856	639,000	273,856		27,000	
1990	○고건물보수 ○순환보도 정비 ○산성 정비 ○발굴조사 ○발굴지 유구 정비 ○토지 매입 348평 ○건물 철거 16동	1,492,856	1,045,000	447,856		27,000	

년도	유적 및 공사내용	예 산 액				발굴비 (1차)	발굴비 (2차)
		계	국비	도비	군비		
1992	○토성 보수 ○순환도로 포장 ○화장실 개축 ○충열탑, 정려각 등 정비 ○토지매입 ○건물철거	711,836	498,286	213,550			
1993	○토성 보수 ○배수로 정비 ○잡목 제거 ○토지 매입	842,857	590,000	252,857			
1994	○화장실 보수신축 ○토지 매입	645,285	451,700	193,585			
1995	○토지 매입 ○고란사 암벽 정비 ○잡목 제거	718,571	503,000	215,571			
1997	○토지 매입 ○건물 매입	842,857	590,000	126,429	126,428		
1997	○토지매입 ○동헌 보수	779,714	545,800	233,914			
1998	○토지 매입 ○건물 매입 철거 ○백화정 보수 ○수목간벌, 잡목 제 거	857,143	600,000	257,143			
1999	매점 이전 16동	428,571	300,000	128,571			
2000	○산성내 시설물 보 수 ○토지, 건물 매입 철거	428,571	300,000	128,571			
2001	○토지 및 건물 매입	1,000,000	700,000	300,000			
2002	○토지 매입	1,000,000	700,000	300,000			
소계	정립사지 (사지 301호)	14,164,142	9,039,644	3,661,806	1,462,692	62,000	0
1980	○건물지 이전 ○토지 매입	30,000	30,000				
1982	○사지발굴, 유구정 비	150,000	150,000				
1982	○건물이전 2동 ○토지매입 1,215평	137,090	137,090				
1983	○토지매입(801평) ○연지 발굴조사	95,000	95,000			27500	
1984	○연지발굴조사 ○토지 206평, 시설 물 10건, 건물 5동 ○협문설치, 건물 철 거, 인제책	100,000	100,000			34500	

년도	유적 및 공사내용	예 산 액				발굴비 (1차)	발굴비 (2차)
		계	국비	도비	군비		
1985	○연지 정비(동연지 (11.11×15.11, 서연 지 11×12) 신설 ○배수로 정비 ○조경공사 ○담장 해체	85,714	60,000	25,714			
1986	○외곽담장 설치 ○연지 주변 정리	45,714	32,000	13,714			
1987	○정문건립(1동) ○담장 설치(24m)	42,857	30,000	12,857			
1988	○매매소 신축 2.01 평 ○담장(70.6), 광장 (460평)	124,714	87,300	37,414			
1988	○구 인삼창 건물 철	155,550		50,000	105,550		
1989	○화장실 신축 ○건물 철거 ○배수로 정비 ○정립사 복원기본 설계 ○주변 조경	142,857	100,000	42,857			
1990	○토지 매입 348평 ○가옥 철거 13동	334,839	234,387	100,452			
1992	○보호각(강당) 건립	357,142	250,000	107,142			
1993	○석불 보호각 건립 ○구 인삼청 지역 정 비	604,095	422,867	181,228			
1994	○주차장 조성 ○화장실 건립 ○구 인삼창 부지 정 리	730,000	511,000	219,000			
1995	○관리사 건립공사 ○전기 공사 ○조경공사 ○인도 배수로	714,285	500,000	214,285			
1998	○전시관 건립 ○보호각 해체	2,142,857	1,500,000	321,429	321,428		
1999	○전시관 건립 1식	1,428,571	1,000,000	214,285	214,286		
2000	○전시관 건립 1식	2,142,857	1,500,000	321,429	321,428		
2001	○정립사지 전시관 건립(연차 사업)	2,000,000	1,000,000	500,000	500,000		
2002	○전시관 건립	2,600,000	1,300,000	1,300,000			
소계	능산리 고분군 (사적 14호)	1,618,741	1,239,990	378,751	0	19,800	0
1980	○토지 매입	84,710	84,710				
1981	○가옥 이전	38,260	38,260				
1982	○철거지 정리 ○배수로 설치 14m	10,000	10,000				

년도	유적 및 공사내용	예 산 액				발굴비 (1차)	발굴비 (2차)
		계	국비	도비	군비		
1982	○가옥이전 34동	38,260	38,260				
1983	○정비	85,000	85,000				
1984	○주차장 정비, 광장 조성 ○관리사무실 신축 ○전시관 신축지 정지	100,000	100,000				
1985	○백제고분 전시관 건립(473.13㎡:143평) ○주차장 포장 1,146.8×2(337평) ○광장 일부 포장 422×2(128평) ○평폐식재:1,377.89×2(414평) ○관급시멘트 10,154대 ○철근 88.4톤	261,428	183,000	78,428			
1986	○외곽보호책 설치 ○순환산책로(관람동선)조성 ○조경 ○배수로 정비 ○안내판 설치 ○고분 모조제작 설치 ○전시관 바닥 마감처리 ○전시관 및 전시물 안내 시설	198,571	139,000	59,571			
1987	○순환동선 조성(85.5m) ○배수조 정비(20m) ○평석교 설치(2개소) ○안내판 설치(A형) ○전시관 전연광장 조성(420평)	67,142	47,000	20,142			
1988	○순환동선 조성(810) ○광장(2494㎡) ○자연석 계단 설치 3	149,656	104,760	44,896			
1989	○토지 매입 ○배수로 정비	142,857	100,000	42,857			
1990	○배수로 정비 ○잔디광장 조성 ○화장실 이전 개축 ○토지 매입 4,983평	300,000	210,000	90,000			
1992	○시굴조사 ○조경	142,857	100,000	42,857		19,800	

년도	유적 및 공사내용	예 산 액				발굴비 (1차)	발굴비 (2차)
		계	국비	도비	군비		
소계	백제고분군 (사적 14호)	249,857	207,000	42,857	0	0	0
1983	○시설물 8건 ○유실수 390 ○건물 17동 ○묘 이장 28기	59,000	59,000				
1984	○전시관 설계 완료	48,000	48,000				
1987	○고분 묘조 제작 설치(2기) ○제습기 설치(4대) ○능산리 고분벽화 묘조 제작(3쪽)	142,857	100,000	42,857			
소계	부여나성 (사적 58호)	4,988,941	3,396,298	913,198	542,355	402,316	0
1981	○건물이전, 토지 매입	137,090					
1989	○토성 정비	71,428	50,000	21,428			
1990	○발굴조사 약 300평	92,857	65,000	27,857			
1992	○토지매입 ○발굴조사	51,571	36,100	15,471		43,300	
1993	○지반 정리 ○발굴조사 800평	192,857	135,000	57,857		27,800	
1994	○발굴조사	113,140	79,198	33,942		102,340	
1995	○토지 매입 ○발굴조사	428,571	300,000	64,286	64,286		
1997	○토지 매입	464,284	325,000	69,642	69,642		
1997	○토지 매입 ○토성 보수 ○발굴조사	442,857	310,000	66,429	66,429	90,000	
1998	○발굴조사 실시 ○보고서 발간	1,000,000	700,000	150,000	150,000	138,876	
1999	○토지 매입 700평 ○성곽 보수 60m	571,429	400,000	85,715	85,714		
2000	○라성정비 ○사유지 매입, 발굴조사	428,571	300,000	64,286	64,285		
2001	○서라성 토지 매입	280,000	196,000	42,000	42,000		
2002	○발굴조사(농사지) ○농사지 정비 ○토지 매입	714,286	500,000	214,286			
소계	백제왕궁지 (사적 428호)	8,499,571	4,363,500	2,236,071	1,900,000	68,325	0
1982	○토지매입, 가옥철거 ○발굴조사	50,000	50,000				
1983	○발굴조사	20,000	20,000				
1984	○가옥 토지매입	50,000	50,000				

년도	유적 및 공사내용	예 산 액				발굴비 (1차)	발굴비 (2차)
		계	국비	도비	군비		
1985	○토지 매입 874.7㎡ (63,500) ○건물 매입 철거1동 81.34㎡	68,571	48,000	20,571			
1986	○토지 매입(436㎡) ○건물 철거(1동)	120,000	60,000	60,000			
1987	○토지 매입(258㎡) ○건물 철거(2동), 시설물(4건) ○발굴조사(700평)	100,000	50,000	50,000		20,925	
1988	○토지 매입 226평 ○가옥 9동 ○시설물 1건 ○발굴조사 700평	291,000	145,500	145,500		20,400	
1989	○발굴조사					27,000	
1999	○토지 매입 및 발굴 조사	6,800,000	3,400,000	1,700,000	1,700,000		
2000	○발굴조사, 토지 매 입	400,000	200,000	100,000	100,000		
2001	○토지 매입	400,000	200,000	100,000	100,000		
2002	○발굴조사	200,000	140,000	60,000			
소계	구드래 일원 (사적 명승 6호)	1,271,428	890,000	254,999	126,429	0	0
2000	○토지 매입	142,857	100,000	21,428	21,429		
2001	○토지 매입	700,000	490,000	105,000	105,000		
2002	○토지 매입	428,571	300,000	128,571			
소계	화지산일원 유적 (사적 425호)	428,571	300,000	128,571	0	0	0
	○토지 매입	428,571	300,000	128,571			
소계	팔충사 (비문화)	13,000	0	5,500	7,500	0	0
1982	○담장 설치	8,000		3,000	5,000		
1983	○팔충사 보수 단청	5,000		2,500	2,500		
소계	궁남지 (사적 135호)	5,043,864	3,529,727	1,130,566	383,571	91,353	0
1981	○교량 보수, 인조목 의자	14,410	14,410				
1982	○교량 보수	14,410	7,205	7,205			
1987	○궁남지 목교 설치	12,100	6,050	6,050			
1990	○구룡정 보수 ○시굴조사 500평 ○토지 매입 1,937평	245,233	171,663	73,570		30,500	
1992	○발굴조사 ○토지매입	434,711	304,298	130,413		60,853	
1993	○토지매입	157,142	110,000	47,142			
1994	○연지 준설 ○토지 매입 ○궁남지내 목교 보 수공사	523,002	366,101	156,901			

년도	유적 및 공사내용	예 산 액				발굴비 (1차)	발굴비 (2차)
		계	국비	도비	군비		
1995	○토지 매입 ○배수로 정비	142,857	100,000	42,857			
1997	○토지 매입	428,571	300,000	64,286	64,285		
1997	○토지 매입	300,000	210,000	90,000			
1998	○토지 매입	571,429	400,000	85,714	85,715		
1999	○토지 매입 1,000평	285,714	200,000	42,857	42,857		
2000	○토지 매입	571,428	400,000	85,714	85,714		
2001	○토지 매입	700,000	490,000	105,000	105,000		
2002	○토지 매입	642,857	450,000	192,857			
소계	동남리 전 이궁지	6,000	0	3,000	3,000	0	0
1987	○ 발굴 조사	6,000		3,000	3,000		
소계	성흥산성 (사적 4호)	611,426	428,000	149,141	34,285	32,000	0
1992	○성곽보수 ○잔디식재	100,000	70,000	30,000			
1993	○성곽 보수	108,571	76,000	32,571			
1994	○성곽 보수(성곽 15.5m, 잔디 155㎡) ○성곽 추가보수(성 곽 3m, 잔디 30㎡)	45,714	32,000	13,714			
1995	○성곽 보수	57,142	40,000	17,142			
1997	○성벽 보수	228,571	160,000	34,286	34,285		
1997	○가옥 매입 ○발굴조사	71,428	50,000	21,428		32,000	
소계	정암리 와요지 (사적 373호)	389,999	273,000	52,072	52,070	0	0
1994	○토지 매입	42,857	30,000				
1995	○토지 매입	64,285	45,000	9,643	9,642		
2000	○토지 매입	142,857	100,000	21,429	21,428		
2001	○체험현장 시설	140,000	98,000	21,000	21,000		
소계	구아리 백제유적 (도지기 88호)	1,512,000	756,000	378,000	378,000	0	0
1996	○보호책 설치 ○유물 보호각 설치 ○주변 정비	82,800	41,400	20,700	20,700		
소계	은산 별신제 (중무 9호)	714,600	357,300	178,650	178,650	0	0
1989	○전수회관 건립 ○별신당 중건 ○진입로 정비, 조경 ○토지 매입 480평 ○가옥(8동)	648,600	324,300	162,150	162,150		
1999	○교육관시설 보수	66,000	33,000	16,500	16,500		
소계	동남리 사지 (지기 50호)	566,000	323,000	151,500	91,500	70,000	0
1990	○토지 매입 857평	200,000	140,000	60,000			

년도	유적 및 공사내용	예 산 액				발굴비 (1차)	발굴비 (2차)
		계	국비	도비	군비		
1992	○ 사지발굴조사 1700평 ○ 성토, 잔디식재, 보호책, 흙판, 건물지 정비 ○ 토지매입	200,000	100,000	50,000	50,000	70,000	
1993	○ 발굴지 정비	166,000	83,000	41,500	41,500		
소계	천왕사지 (사적 88호)	100,000	50,000	50,000	0	0	0
1992	○ 발굴조사 600평 ○ 발굴지 정비	100,000	50,000	50,000			
소계	왕흥사지 (사적 427호)	3,540,000	1,770,000	885,000	885,000	0	0
1997	○ 토지 및 건물 매입	60,000	30,000	15,000	15,000		
1997	○ 토지 매입	60,000	30,000	15,000	15,000		
1998	○ 토지 매입	220,000	110,000	55,000	55,000		
1999	○ 토지 매입 및 발굴조사	3,200,000	1,600,000	800,000	800,000		
소계	군수리 사지 (사적 44호)	468,571	328,000	98,143	42,428	0	0
2000	○ 사유지 매입	142,857	100,000	21,429	21,428		
2001	○ 토지 매입	140,000	98,000	21,000	21,000		
2002	○ 토지 매입	185,714	130,000	55,714			
소계	중정리 건물지 (도지기 54호)	210,000	105,000	52,500	52,500	0	0
1997	○ 토지 매입	60,000	30,000	15,000	15,000		
1998	○ 토지 매입	150,000	75,000	37,500	37,500		
소계	금강사지 (사적 435호)	50,000	25,000	12,500	12,500	0	0
1997	○ 토지 매입	50,000	25,000	12,500	12,500		
소계	임강사지 (도지기 34호)	60,000	30,000	15,000	15,000	0	0
1997	○ 토지 매입	60,000	30,000	15,000	15,000		
소계	호암사지 (도지기 32호)	50,000	25,000	12,500	12,500	0	0
1997	○ 토지 매입	50,000	25,000	12,500	12,500		
소계	상항리 고분군 (비지정)	100,000	50,000	25,000	25,000	0	0
1997	○ 발굴조사	100,000	50,000	25,000	25,000		
소계	능안골 고분군 (도지기 102호)	920,000	616,000	227,000	77,000	0	0
2000	○ 종합정비계획 수립, 고분 정비	140,000	70,000	35,000	35,000		
2001	○ 토지 매입	280,000	196,000	42,000	42,000		
2002	○ 유적 정비	500,000	350,000	150,000			
소계	용정리 사지 (도지기 48호)	6,290	6,290	0	0	0	0
1980	○ 토지 매입	6,290	6,290				

(연기)

(단위 : 천원)

년도	유적 및 공사내용	예 산 액				발굴비 (1차)	발굴비 (2차)
		계	국비	도비	군비		
총계	10 개 사업	2,233,000	1,091,500	585,750	555,750	0	0
소계	비암사 (도지유 79호)	1,361,000	655,500	367,750	337,750	0	0
1982	○극락보전 단청, 미 장, 기단	20,000		10,000	10,000		
1992	○극락전 보수	30,000		15,000	15,000		
1995	○극락보전 보수 ○산신각 개축 ○삼성전 건립 ○요사채 건립 ○석축 보수	700,000	350,000	175,000	175,000		
1996	○석축 보수 ○화장실 개축 ○요사채 신축	323,000	161,500	80,750	80,750		
1997	○석축 정비 ○소화전 정비	148,000	74,000	37,000	37,000		
1998	○석축 및 배수로 정 비	80,000	40,000	20,000	20,000		
1999	○패불 보수	40,000	20,000	20,000			
2000	○패불 보수	20,000	10,000	10,000			
소계	운주산성 (도지기 79호)	872,000	436,000	218,000	218,000	0	0
1996	○발굴조사 ○성곽보수 ○진입로 정비 ○정비 계획 수립 ○토지 매입	672,000	336,000	168,000	168,000		
1999	○성곽 보수 50m	200,000	100,000	50,000	50,000		

(예산)

(단위 : 천원)

년도	유적 및 공사내용	예 산 액				발굴비 (1차)	발굴비 (2차)
		계	국비	도비	군비		
총계	6 개 사업	942,571	658,000	142,286	142,285	0	0
소계	사면석불 (보물 794호)	94,000	64,000	15,000	15,000	0	0
1998	○토지매입	15,000	10,000	2,500	2,500		
1984	○불두접착 ○C형 안내관 ○보호각 건립	39,000	26,000	6,500	6,500		
1997	○보호각 보수	40,000	28,000	6,000	6,000		
소계	임존성 (사적 90)	848,571	594,000	127,286	127,285	0	0
1999	○성곽 보수 30m	142,857	100,000	21,429	21,428		
2000	○성곽 보수 및 지표 조사	285,714	200,000	42,857	42,857		
2001	○성벽 보수	420,000	294,000	63,000	63,000		

(청양)

(단위 : 천원)

년도	유적 및 공사내용	예 산 액				발굴비 (1차)	발굴비 (2차)
		계	국비	도비	군비		
총계	5 개 사업	411,142	287,800	61,671	61,671	0	0
소계	장곡사 (보물 162, 보물 986)	411,142	287,800	61,671	61,671	0	0
1989	○ 하대웅전 보수 ○ 노전제 보수	35,714	25,000	5,357	5,357		
1996	○ 화장실 신축	60,000	42,000	9,000	9,000		
1996	○ 상대웅전 기단 ○ 응진정 보수	71,428	50,000	10,714	10,714		
1997	○ 진입계단 보수 ○ 일주문 건립	160,000	112,000	24,000	24,000		
1999	○ 철조약사여래 부 석조대좌 봉향각 보 수 12평	84,000	58,800	12,600	12,600		

(천안)

(단위 : 천원)

년도	유적 및 공사내용	예 산 액				발굴비 (1차)	발굴비 (2차)
		계	국비	도비	군비		
총계	1 개 사업	90,000	0	45,000	45,000	0	0
소계	위례산성 (문자 262)	90,000	0	45,000	45,000	0	0
1998	○ 지표조사 ○ 보고서 발간 ○ 성곽 보수	90,000		45,000	45,000		

(금산)

(단위 : 천원)

년도	유적 및 공사내용	예 산 액				발굴비 (1차)	발굴비 (2차)
		계	국비	도비	군비		
총계	4 개 사업	36,000	0	18,000	18,000	0	0
소계	장대리 고분군 (향토유적)	36,000	0	18,000	18,000	0	0
1989	○ 발굴조사	10,000		5,000	5,000		
1990	○ 발굴 조사	10,000		5,000	5,000		
1990	○ 발굴조사	10,000		5,000	5,000		
1991	○ 조사보고서 발간	6,000		3,000	3,000		

(보령)

(단위 : 천원)

년도	유적 및 공사내용	예 산 액				발굴비 (1차)	발굴비 (2차)
		계	국비	도비	군비		
총계	15 개 사업	2,162,541	1,461,700	332,422	368,420	303,400	0
소계	성주사지 (사적 307호)	2,082,141	1,421,500	312,322	348,320	303,400	0
1983	○ 토지매입	44,000	22,000	11,000	11,000		
1984	○ 가옥, 토지 매입 ○ 주변 정비	60,000	40,000	10,000	10,000		
1987	○ 우회도로 신설 (240m) ○ 토지매입(651평), 가옥(1동 26평)	21,428	15,000	3,214	3,214		
1990	○ 건물지 정비 ○ 비 보호각 보수 ○ 토지 매입 1,796 평 ○ 가옥 철거 5동	142,857	100,000	21,428	21,429		
1992	○ 사지발굴 800평 ○ 북쪽 담장 정비	142,857	100,000	21,429	21,428	69,500	
1993	○ 발굴조사 ○ 토지매입	158,857	86,000	18,429	54,428	78,700	
1994	○ 건물지 정비 ○ 발굴조사	300,000	210,000	45,000	45,000	79,200	
1995	○ 발굴조사 ○ 관리사 신축 ○ 화장실 건립	300,000	210,000	45,000	45,000	76,000	
1997	○ 사지 정비 ○ 발굴보고서 간행	328,571	230,000	49,286	49,286		
1999	○ 낭해화상비 보호각 보수	10,000	7,000	1,500	1,500		
1999	○ 중앙 3층석탑 보 존처리	5,000	3,500	750	750		
2000	○ 토지 건물 매입 및 관리사 출입문 설치 등	428,571	300,000	64,286	64,285		
2001	○ 토지 매입	140,000	98,000	21,000	21,000		
소계	도미부인 사당 (향토유적)	80,400	40,200	20,100	20,100	0	0
1997		50,400	25,200	12,600	12,600		
2000		30,000	15,000	7,500	7,500		

(논산)

(단위 : 천원)

년도	유적 및 공사내용	예 산 액				발굴비 (1차)	발굴비 (2차)
		계	국비	도비	군비		
총계	17 개 사업	4,824,249	2,012,839	1,532,135	1,279,275	0	0
소계	계백장군 유적 (도지기 74호)	4,270,000	1,660,000	1,410,000	1,200,000	0	0
1991	○토지 매입	50,000		50,000			
1992	○토지 매입:봉분 조성 ○잔디광장 조성	400,000		200,000	200,000		
1993	○토지 매입 ○진입로 정비	300,000		150,000	150,000		
1994	○전시관 건립 ○주차장 조성 ○화장실 건립 ○진입로, 부지 조성	800,000	400,000	200,000	200,000		
1995	○토지 매입 ○부지 정리 ○관리사 신축 ○화장실	200,000		100,000	100,000		
1997	○관리사 신축	200,000	100,000	50,000	50,000		
1998	○토지 매입	200,000	100,000	50,000	50,000		
1999	○부지 정비 ○광장 조성	300,000	150,000	75,000	75,000		
2000	○참배시설 조성	1,000,000	500,000	250,000	250,000		
2000	○묘역주변, 토지 매입	20,000	10,000	10,000			
2001	○주차장 조성	500,000	250,000	125,000	125,000		
2002	○주변 정비 및 조경	300,000	150,000	150,000			
소계	노성산성 (사적 393호)	534,249	352,839	112,135	69,275	0	0
1995	○성곽보수	105,678	52,839	26,420	26,419		
1998	○성곽 보수	142,857	100,000	21,429	21,428		
1999	○토지 매입 800평 ○건물 매입 3동	142,857	100,000	21,429	21,428		
2002	○성벽 보수	142,857	100,000	42,857			
소계	황화산성 (도지기 92)	20,000	0	10,000	10,000	0	0
1995	○축성 보수 ○별목 제거	20,000		10,000	10,000		

(서천)

(단위 : 천원)

년도	유적 및 공사내용	예 산 액				발굴비 (1차)	발굴비 (2차)
		계	국비	도비	군비		
총계	2 개 사업	108,000	50,000	29,000	29,000	0	0
소계	추정백제건물지 (비지정)	8,000	0	4,000	4,000	0	0
1985	○발굴 조사	8,000		4,000	4,000		
소계	남산성 (도지기 96)	100,000	50,000	25,000	25,000	0	0
2000	○학술조사, 성벽 보수 정비	100,000	50,000	25,000	25,000		

(서산)

(단위 : 천원)

년도	유적 및 공사내용	예 산 액				발굴비 (1차)	발굴비 (2차)
		계	국비	도비	군비		
총계	11 개 사업	1,317,783	771,000	356,250	83,391	0	0
소계	마애삼존불 (보물 432호)	42,071	25,000	8,536	8,535	0	0
1982	○보호각(8.5평) 1동 보수	7,500	5,000	1,250	1,250		
1985	○ 현인 보수	6,000		3,000	3,000		
1994	○보호각 보수 단청 ○자연석 계단 정비 ○자연석 배수로 설치 ○보호각 보수 ○계단 보수	28,571	20,000	4,286	4,285		
소계	보원사지 (보물 105호)	1,275,712	746,000	347,714	74,856	0	0
1986	○보호석축 보수 73.6m ○보호철책 설치 28 경간	10,000		5,000	5,000		
1990	○토지 매입(981평) ○민가 철거	42,856	30,000	6,428	6,428		
1991	○토지, 건물 4동 매입	200,000		200,000			
1994	○토지 매입	357,142	250,000				
1997	○발굴조사(정비만) ○유구 정비	142,857	100,000	21,429	21,428		
2001	○발굴조사	280,000	196,000	42,000	42,000		
2002	○오층석탑 보수	100,000	70,000	30,000			
2002	○토지 매입	142,857	100,000	42,857			

(태안)

(단위 : 천원)

년도	유적 및 공사내용	예 산 액				발굴비 (1차)	발굴비 (2차)
		계	국비	도비	군비		
총계	4 개 사업	285,713	187,000	49,357	49,356	0	0
소계	태안 마애삼존불 (보물 432)	285,713	187,000	49,357	49,356	0	0
1994	○보호각 개축 ○불상 보수	67,142	47,000	10,071	10,071		
1995	○보호각 개축 ○자연석 석축 ○트랜치 시굴조사	65,000	32,500	16,250	16,250		
1996	○보호각 건립, 마무 리 ○석축정비	53,571	37,500	8,036	8,035		
1997	○주변 정비	100,000	70,000	15,000	15,000		

■ 집 필 자 ■

강 종 원(姜鍾元)

- 충남발전연구원 연구위원
- 문학박사(백제사 전공)
- jwkang@cdi.re.kr

기본연구과제 2002-10

충청남도 백제문화재의 체계적 보존관리 및 활용방안

발 행 자 : 김 대 길(충남발전연구원 원장(직))

발 행 일 : 2002년 12월 31일

발 행 처 : 충남발전연구원

302-120 충남 논산시 두마면 금암리 10번지 충청남도 계룡출장소 3층

전화 : (042)841-9904 팩스 : (042)841-9905

인 쇄 처 :

- 이 책에 실린 내용은 출처를 명기하면 자유로이 인용할 수 있습니다.
무단전재하거나 복사, 유통시키면 법에 저촉됩니다.
- 이 연구는 본 연구원의 공식 견해와 반드시 일치하는 것은 아닙니다.

ISBN : 89-89552-24-9 93910

<비 매 품>